

罗 斯 兹



横城文化院

斯瓦兹

創刊號

横城文化院

목 차

創刊辭	文化院長 金仁煥	5
祝 創刊	橫城郡守 柳在珪	6
郡의 象徴	郡 公報室 提共	7
郡 歌		7
郡 木		8
郡 鳥		8
〈漢時〉 創刊 祝時	金台鎭	10
〈遺稿〉 祝 文化院 發展	韓秉洙	11
橫城의 歷史		13
○ 三國時代		15
○ 統一 新羅時代		15
○ 高麗時代		16
○ 朝鮮時代 以後		16
民族의 運動		19
○ 임진왜란과 橫城		21
○ 동학운동		22
○ 의병운동		24
○ 암흑기		26
○ 三·一운동과 橫城		33

橫城과 가스텔시와 자매결연	홍재욱	88
향토지 발간 방향에 대하여	金正雄	90
創 作		95
〈동시〉 황성아이들 외 1편	이연승	97
〈詩〉 얼굴 바라보며 외 1편	金聲起	100
배 암	金亮洙	101
산	최인숙	102
〈만화〉 향 토 지	김용환	103
〈동시〉 눈 길	송수영	104
〈詩〉 기 원	공영옥	105
〈수필〉 바 둑	허양희	106
달 바 꿈	조원천	108
〈동화〉 꽃샘바람	조대현	110
덜재 고갯길 얘기	임교순	119
〈단편소설〉 얼어끼기	정제영	124
橫城文化院에 바란다		141
⊗ 최정근 12 남궁선 74 도희관 94 조대현 143		
⊗ 양승순 144 신재진 145 김종근 146		
生 活 講 座		147
法律 코너	金世雄	149
橫城이 繁榮하는 길	鄭鎬逸	153
橫城 文化院 任員		155

연 혁(沿革)

횡성군(橫城郡)은 영서지방(嶺西地方) 내륙교통의 중심지로서 강원도(江原道)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農業郡)으로서 춘원(春原), 경강(京江)국도와 영동(嶺東)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곳으로, 옛날에는 영서와 영동의 가교로서 역할을 하였고 일제침략기(日帝侵略期)에는 독립투쟁의 거센 항거가 있었으며 6.25동란시에는 엄청난 참화(慘禍)를 입기도 했지만 항상 난국에 대한 극복이 빨랐던 군민(郡民)들은 80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 도읍(都邑)으로 가꾼바도 있다.

횡성군은 면적 1041km²로 동경 127° 46분 - 128° 북위 37° ~ 37° 4 분에 위치하고 강원도 평창(平昌), 영월(寧越) 원성(原城), 홍천군(洪川郡)과 경기도 양평군(陽平郡)과 인접하고 있으며 8개읍면 174개 행정리(行政里)에 14,423호에 70,839명의 군민이 살고 있다.

고구려(高句麗) 시대에는 어사매(於斯買) 또는 화전(花田)이라 불렀고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때 황천(潢川)하고 삭주(朔州)현이 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횡천(橫川)이라 칭하고 원주영현(原州領縣)이 되었는데, 횡천이라 부른 것은 타지방과 달리 군의 젖줄인 섬강이 남북(南北)으로 흐르지 않고 동서(東西)로, 즉 가로로 흐르기 때문에 가로횡(橫)자를 쓰게 되었다 하며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에 감무를 두었고 이조 태종(太宗) 2년에 현감을 설치하고 동 14년에 횡천과 홍천의 발음이 비슷하다 하여 횡성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여러차례 행정구역(行政區域) 개편으로 군세를 확장해왔다.

創 刊 辭



文化院長 金 仁 煥

오늘날의 社會는 매우 빠르게 變化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文化 역시 빠르게 變動하고 있습니다.

특히 物質的文化는 非物質的文化보다 빠른 速度로 變動하기 때문에 文化遲滯現象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現代人들로 하여금 人間性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장 슬퍼해야 할 일들의 하나입니다. 文化院은 바로 이러한 現象을 克服하여 文化의 均衡的 發展을 期할 수 있도록 精神文化를 暢達시키고 잃어져 가는 人間性을 回復하여 참다운 文化國民으로서 生活하게 하고져 이룩된 것이라 生覺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依해 本郡에도 1972年 文化院이 세워져서 많은 분들이 文化暢達을 爲하여 애쓰신 結果 여러 業績을 남겼으나, 한동안 여러가지 與件이 주워지지 못하여 그 機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以上の 침묵을 繼續할 수 없음을 痛感한 뜻있는 분들이 文化院 活性化 推進 委員會를 構成하고 힘쓴 結果 많은 會員이 加入하여 새로운 活動의 章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文化活動을 펼쳐 보려는 우리들의 意志를 굳건히 하고 바른 活動의 方向을 찾자 그 첫 事業으로 橫城文化院誌인 「於斯買」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이 「於斯買」發刊을 契機로 우리의 鄉土文化를 繼承 發展시키고 새로운 文化를 普及함으로써 橫城郡民의 文化力量과 一體感이 涵養되기를 懇切히 바랄 뿐입니다.

本誌가 創刊되기까지 玉稿를 보내주신 여러분과 物心兩面으로 協助하여 주신 會員여러분께 深深的 謝意를 드리고 보다 더 알차고 뜻있는 「於斯買」가 繼續해서 發刊 되도록 늘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創刊辭에 가름 합니다.

1983. 8 . .

祝 創 刊

橫城郡守 柳 在 珪

선진조국 창조를 이념으로 하는 제 5공화국이 「文化暢達」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江原文化暢達」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地方文化育成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낙후된 향토문화를 진흥하는 선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停滯상태에 있는 橫城文化院을 정비하고 문예진흥에 정열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번에 지방문인들이 순박한 향토애와 예술적 정열을 다할 순수문예지「어사매(於斯買)」를 발간하게 된것을 우리군민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이 文化院長님과 이사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미약한 기반과 문화예술의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한 결과 짧은 기간에 이지방 젊은 학도들이 열망하던 독서실의 개관 운영과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발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술 不毛의 땅을 개척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문예지 「於斯買」발간은 本郡에서 금년봄 향토사를 집대성한 향토지 「橫城의脈」을 발간하면서 일기시작한 향토의 뿌리와 열을 찾는 관심과 연구열과 내 고장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심어준데 이어 또다시 우리군민에게 희망과 보람, 그리고 향토애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리라 믿읍니다.

이러한 우리군민의 지방문화예술에 관한 관심과 열기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도시편중이라는 불합리와 모순을 점차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문인들과 문화원회원여러분의 소중한 玉稿로 만들어진 「於斯買」 出刊에서 얻은 자신과 용기로서 여러분이 더한층 힘을 모아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향토사를 발굴 연구 오늘에 사는 우리모두의 교훈으로 재조명하고 잊혀져가는 전통민속예술을 찾아 재현하는 한편 문학, 음악, 미술, 교양, 취미등 문화계 각분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므로서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선진 문화국민으로 군민을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지방문화발전과 문예진흥의 요람으로 횡성문화원이 더욱 공고히 기틀을 다져 나갈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군민과 함께 「於斯買」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귀지가 2, 3호 그연륜을 더할 수록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창간호 발간에 애쓰신 橫城文化院長님과 편집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郡의象徴

횡성군 노래

방직현 작사
노명석 작곡



대기 - 산 뻗은 즐기 덕고 -의 정 기 모 아
운암 - 정 청란 아배 횡성 -교 빛져 있 고
교룡 - 의 심장 부로 사람 뻗은 동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토 부강 을 자랑 하 고
태봉 - 루 반 송 터는 옛 일 을 아 되 는 듯
경향 으 로 사 룡 오 달 거 미 가 즐 비 하 고



동서로 - 구비 친 강 꾸준 하 - 흐 르 는 곳
낙낙 장송 넓은 숲 에 흥 익 정신 가득 한 곳
전통 의 - 산업 정 신 부흥 을 - 꾀 하 는 곳



아름다 운 이 - 강산 에 빛 나 는 우리 횡 성

郡 木



군을 상징하는 군목은 느티나무로 느티 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큰기나무로 큰것은 지름이 4m, 높이 50m나 되는 것도 있으며 잎이 길둥그렇고 새알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 자리는 톱니처럼 되었으며 어긋난다 꽃은 이른봄에 새잎과 함께 암수기 한그루에 피며 빛은 누르스

름하고 열매는 작고 둥글 납작하다.

느티나무를 군목으로 정하게 된것은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아니라 우람하며 재질도 좋고 정자목으로 널리 애용되어 왔듯이 한여름엔 그늘밑에서 땀을 말리고 휴식을 취하기 좋아 횡성 3·1 공원을 비롯한 군내에 각처에 마을의 정자나 어귀에 수호목으로도 산재해 있다.

郡 鳥

군을 상징하는 군조는 왜가리로 왜가리는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서 번식하고 있는 여름철 새로 천연기념물 2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군새인 왜가리를 해오라기과에 속하며 목과 다리가 길며 4월에 도래해 10월에 떠난다.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살며 눈에 있는 각종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압곡리 일대에는 약 5천수의 왜가리가 여름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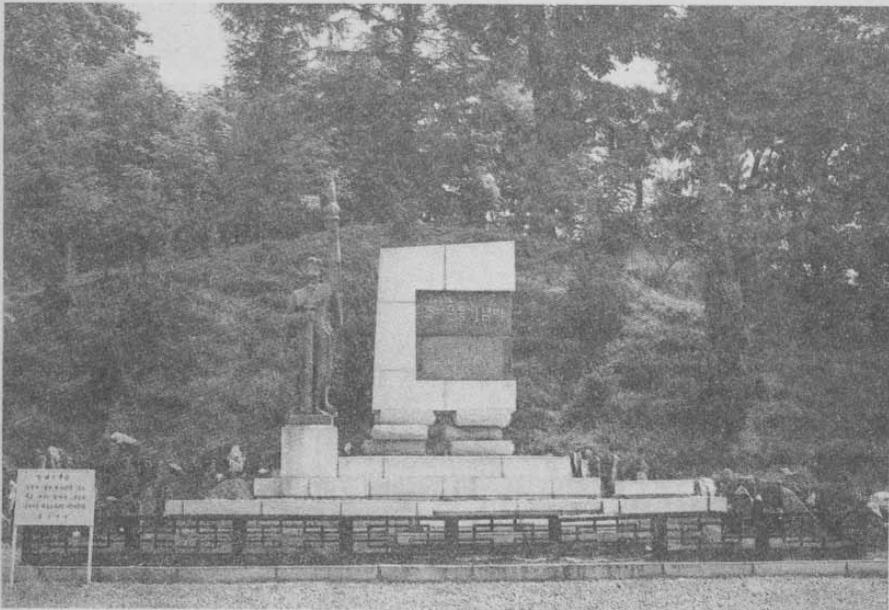


郡 花

우리군의 군화는 백합으로서 백합의 흰
꽃잎은 군민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붉은 반
점은 경열을 상징하고 피침전형의 잎은 군
민의 예리한 지혜와 투지를 T자형의 꽃발
은 전설과 뿌리의 인편의 집합은 군민의 단
결을 상징하며 백합을 군화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길러 애



향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공고히 하여 개발정신을 확립하며 무한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민
주적인 군민정신을 함양하여 배달민족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있다.



3. 1 운동기념비

祝橫城文化紙創刊

愛鄉發展在於文
志士應當事必勤
宣喚揚起美仁績
創眾論糾合行乃
敬賀諸公傾生芬
城賴此倍生芬

邑上里

秋堂 金台鎮

祝橫城文化院發展

展開文化始於文
深謝諸賢勉勵勤

道德闡明多士頌
仁風興起衆人欣

庶黎團結能安分
國紀宣揚永樹勳

遵守倫綱兼秩序
三千權域滿芳芬

邑下里

笑我韓秉洙

文化院에바란다

主婦 崔貞根(柳章熙會員婦人)

어쩌다 저녁에 시장을 나가 느리면 많은 청소년들이 할 일 없이 배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휴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로 물리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수준이 꽤 향상되어 생활을 즐기려는 생각에서 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르나 한편 생각 해 보면 큰일이다 싶어 집니다.

한참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할 청소년들이 노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우리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얼마나 마련 해 주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 됩니다.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뛰어 들으므로써 경쟁의식을 갖게되어 열심히 공부하게 될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을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도서관 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평생교육을 위해 여러가지 애쓰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회교육기관이나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자신이 자신을 평생교육해야 되지않을까요?

황성문화원이 진정 문화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시키는 일을 수행하려면 그 최고 최선의 사업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일일 것이며, 이 사업은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커다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이 기대는 자식을 둔 모든 어머니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橫 城 의 歷 史

橫 城 의 歷 史

1. 삼 국 시 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횡성은 원시 시대에 마한의 영역에 속하여 있다가 삼국시대(三國時代)를 맞이하여 되었으며 삼국 중에는 먼저 백제(百濟)의 땅이 되었다가 고구려(高句麗)의 영토가 되었고 다음에 신라(新羅)의 영토로 변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영토가 됐던 때는 빠르면 제 8 대(A.D. 235-285) 고이왕(高爾王) 당시였을 것이고, 늦어도 제 13 대(A.D. 346-374) 근초고왕(近肖古王) 당시 이전일 것이다. 그 까닭은 백제가 국가체제를 이룬 것이 고이왕 때이니 빠르면 이 당시에 횡성까지는 영토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늦어도 근초고왕 때는 횡성이 백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근초고왕 때는 횡성이 백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근초고왕 때의 백제는 백제의 전성기(全盛期)로서 삼국 중에서 가장 우세했던 때였으니, 적어도 강원도 영서 지방의 대부분은 백제의 강역이 됐기 때문이다.

백제시대를 지나서 고구려시대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고구려 제 20 대 장수왕(長壽王) 때의 일로서 서기 475 년 이후였다. 이 해에 장수왕은 백제의 서울 위례성(尉禮城-경기도 광주)를 공략하여 백제의 개로왕을 죽이고 백제를 남쪽 웅진(熊津-公州)으로 쫓았던 것이다.

다음에 신라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신라 제 24 대 진흥왕(眞興王) 때 서기 551 년 경의 일이었다. 이 무렵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한강 유역을 찾아하여 삼국통일의 기반을 굳혔던 것이다. 끝으로 횡성의 본래 이름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어사매」(於斯買)라고 수록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고구려 때에는 횡천(이라고) 했었는데 횡천이라는 이름은 이곳 강물의 흐름의 길이 즉 남북으로 흐르지 않고 가로(橫) 즉, 동서로 흐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2. 통일 신라 시대

통일 신라는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 영서 지방은 삭주(朔州)로 불리웠고, 그중에서 원주만은 북원경(北原京)이라 하

여 5소경 중의 하나로 독립하여 있었다. 삭주는 9주 중의 하나인데 북쪽은 함경남도 안변(安邊)에서부터 강원도 영서 지방을 합쳐서 남쪽은 경상북도 영주(榮州)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주는 오늘날 도(道)와 같은 행정 구역으로 도지사(道知事)와 같은 격으로 도독(都督) 혹은 총관(總管)이 있었는데 삭주 도독의 소재지는 지금의 춘천이었다. 당시에 주 밑에 군(郡)이 있고 군 밑에 현(縣)이 있었는데 횡성만은 주 도독의 직할 현(直轄縣)으로 황천(潢川)이라 이름했으니 황천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통일신라의 끝 무렵, 소위 후삼국(後三國) 때에는 원주에 웅거했던 양길(梁吉)의 세력 하에 있다가 양길과 싸워 이긴 궁예(弓裔)의 태봉국(泰封國)의 지배를 받았으며 뒤따라 왕건(王建)의 고려시대를 맞았다.

3. 고려 때의 연혁

고려 때의 횡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횡천(橫川)이라 불렀다. 그런데 고려 때는 횡성지방이나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 행정에 대한 일관적인 질서를 잃고 있어서 기록이 책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또 하나의 책에서도 일률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여기 고려 때의 횡성 연혁을 밝히는 데도 확실한 연대를 명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초기와 중기와 말기의 3단계로는 밝혀 둘 수 있다. 고려의 초기에는 전국을 10도(道)로 구획했는데 이때의 강원도는 함경남도 남부와 더불어 삭방도(朔方道)라 하였으며 횡성은 삭방도의 춘주(春州)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중기에 이르러 전국을 5도 양계(五道兩界)로 구획할 때는 강원도가 세 토막으로 나뉘어지는데 영동 지방은 동계(東界), 영서 지방의 북부는 교주도(交州道—혹은 東州道, 春州道), 남부는 양광도(楊廣道)였다. 그중에서 양광도는 경기도와 충청도와 강원도의 영서 지방의 남부를 통합한 것이었다. 이 때에 횡성은 처음에 교주도의 춘추에 속해있더니 후에 양광도에 속한 땅으로 원주(原州)의 관할이었다.

그후 고려 말기에는 동계(東界)였던 영동 지방에 강릉도(江陵道)가 생겨나더니 영서 지방 북부의 교주도와 합쳐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가 되었는데 횡천으로 불리우던 이 고장은 공양왕(恭讓王) 1년(서기 1389년)에 감무(監務)로 독립한 후 양광도에서 다시 교주 강릉도로 이관(移管)되어 조선 왕조를 맞는다.

4. 조선시대 이후

고려에서 조선 왕조에 넘어올때 황성의 이름은 횡천(橫川)이었다는 것은 고려왕조 때의 횡성을 말할 적에 서술한 바 있다.

이때의 횡성군은 횡천현으로서 현재 서원면(書院面)도 원주 땅이었고 또 안흥면(옛날의 정곡면:井谷面)의 강림(講林), 부곡(釜谷), 월현(月縣)도 원주 땅이었다. 강림 등 3개 마을은 그후 영월땅이 되었다가 횡성으로 옮겨온 것이다.

횡천으로 불리우던 고장이 현을 두게된 것은 전국을 8도로 나누던 태종 13년(1413)의 일이며, 또 횡천을 횡성으로 고친 것은 태종(太宗) 14년(1414년)의 일이었다. 이름을 고친 이유는 횡천이 바로 옆의 고을인 흥천과 그 소리가 비슷하니 태종이 고치라고 명령한 까닭이었다. 참고로 태종 13년에 설치한 현은 1959년에 발간한「강원도지」에 태종 2년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을 근거로 1967년의 「군지」에서도 그와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잘못이다.

그리하여 횡성현으로서의 이 고장은 임진왜란 때 약간 분주하기는 했어도 비교적 조용한 고을로 평화를 누려왔다. 그런데 인조반정(仁祖反政)이 있고 그 후 인조 5년(1627년)에 횡성에 살던 이 인거(李仁居)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뜻하지 않던 환난이 닥쳤다. 인조 5년은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던 해였는데 왕실에서도 광해군(光海君)을 내쫓고 인조반정을 수행한지 얼마 안되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이 인거는 불평이 많은 농민을 규합하여 수백 군중을 이루고 자신이 창의 중흥대장(昌義中興大將)이라 이름한 후 횡성 현아(縣衙:군청)를 습격하였다. 앞에서 말한대로 횡성 현감은 강원 중영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무기를 현아에 보관하여 있었던 것인데 이 인거의 반란도는 현아를 점령한 후 현감 이 탁남(李擢男)을 묶어 놓고 무기를 빼앗아 반란도가 무장한 후 서울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원주 목사 홍 보(洪寶)가 이끄는 군대와 싸움이 벌어졌고 이윽고 이 인거는 홍보의 정부군에서 잡혀서 서울에서 사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횡성은 벌을 받게 되었으니 현이 철폐되고 횡성은 10년동안 즉 인조 14년(1636년)까지 현을 두지 못하고 원주목에 합쳐져 있었으니 이 해는 병자년(丙子年)으로 유명한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였다.

1636년 즉 인조 14년에 횡성현으로 복구되어 1895년(고종 32년)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참고로 조선 왕조때 현(縣)에는 크고 작은 고을에 따라서 종 5품(從五品)의 현령

(縣監)이 다스리는 고을도 있고, 종 6품(從六品)의 현감(縣監)이 다스리는 고을도 있었는데 횡성은 현감이 다스렸다. 옛날 수령방백(守令方伯)이란 말을 흔히 쓰는데 그것은 지방장관이란 말로서 수령은 군수와 현령을 말하고 방백은 관찰사를 가리킨다.

1895년 전국을 23부로 나누던 을미년의 지방행정 개혁은 행정구역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8도를 23부로 나눈 자체는 그것이지만, 8도 당시에 도 밑에는 목(牧)·부(府)·군(郡)·현(縣)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군(郡)으로 통일하여 23부 밑에는 모두 336개의 군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횡성현도 횡성군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3부의 지방 행정 구역은 1년후 즉 1896년에 폐지하고 전국을 13도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과 같다. 그런데 1895년 23부로 나누던 행정구역 개편 때에 원주에속해 있던 서원면(書院面)이 횡성군에 편입되었다. 그후 변함없이 일제 시대를 지나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 1175호로서 영월군 수주면(水周面)의 강림(講林)·부곡(釜谷)·월현(月縣)의 세 마을을 안흥면에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民族의運動

민족의 운동

1. 임진왜란과 횡성

근세 조선 왕조때 가장 큰 전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우리나라 북부에 전란이 심했고 비록 당시에 임금인 인조(仁祖)가 항복했던 치욕은 있었다라든가 한반도 남부에서는 싸움이 없었고, 따라서 횡성에서도 싸움이나 백성의 고초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경우는 한 반도 전체가 전란을 당하여 모든 백성이 모진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강원도 지방에서도 싸움이 여러곳에서 벌어졌다. 원래 일본군의 주력인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부대가 서울로 진격할 때 충주에서 신립(申稜)장군의 우리 군대를 격파하고 그중의 한 부대는 여주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원호(元豪)가 거느린 원주의 군대에게 격퇴되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일본군의 침입을 겪은 첫번째의 싸움이였다. 그후 일본군은 원주 지정면(地正面) 귀미나루까지 쳐들어 왔으나 역시 격퇴되었던 것이다.

강원도를 다시 침입한 일본군은 모리길성(毛利吉成)이 이끄는 부대였는데 이 부대는 서울에서 철원·김화·회양을 짓밟고 철령을 넘어 함경도(安邊)으로 가서 황해도에서 마석령(馬息嶺)방면으로 들어온 가등청정의 부대와 합류한 후, 가등의 부대는 함경북도 방면으로 침입했고 모리의 부대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강원도를 침략하였던 것이다.

모리의 주력 부대는 동해안으로 내려가 삼척·정선·영월·평창을 거쳐 다시 영월 주천(酒泉)을 침략한 후 원주로 침입하였고, 또 한 부대는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와 양구·춘천·홍천·횡성을 침략한 후 원주에 침입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임진왜란사에 유명한 영원산성의 싸움이 벌어졌고, 당시 원주 목사로 있던 김 제감의 장렬한 싸움과 죽음의 기록이 남았다.

이렇게 전국이 싸움터로 화한 임진왜란이니 횡성에서도 평안할 수 없었다.

다음에 임진왜란때 횡성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설로 남은 유적

① 베틀바위

서원면에 있는 자연 동굴인데 폭 5미터에 깊이 15미터의 이 동굴은 임진왜란 당시에 피난민이 밀려와 있던 곳으로 전해 오며, 피난민은 이곳에서 베틀을 놓고 베를 짰다고 하는데 때문에 여기를 베틀바위라고 한다. (황성군지 참조)

② 궁 터

공근면 삼베 마을에 궁터로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진왜란 때의 의병(義兵)이 왜적과 싸웠다고 해서 전해 오는 이름이라고 한다. (황성군지 참조)

전사한 충신

① 박 혼(朴渾)

일찌기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춘천(春川)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국가에서 충신(忠臣)의 호를 받았다. (「조선 각도읍지」, p.474)

② 이 옥(李沃)

이 옥도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는 박 혼과 더불어 춘천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위의 책 참조)

③ 서 예원(徐禮元)

무과에 급제한후 임진왜란 당시 보성(寶城)·김해(金海)·진주(晋州) 싸움에 참전하여 마지막에는 장렬한 전사를 했다. 그가 전사하니 그의 부인 이씨(李氏)는 아들 서 계성(徐繼聖)과 함께 자결했으며 그의 종(奴婢) 김 길(金吉)도 같이 전사하였다. (황성군지)

2. 동 학 운동

동학운동은 보통 동학란으로 불리워 온다. 당시로서는 정부에 대한 반란이었지만 역사적 평가로서는 우리의 근대적 민족 운동으로 최초의 대중운동이었던 탓으로 옛날과 같이 동학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학운동 혹은 동학혁명으로 이른다. 그리고 동학운동이 최초로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때는 부패한 정부에 대한 반란이었지만, 그것이 충청도 지방까지 번져 소위 북접군(北接軍)이 손 병희(孫秉熙)에 의하여 남접군(南接軍)인 전 봉준(全奉準)의 혁명군과 합세하였던 때 즉, 동학운동의 후기는 일본 칩

락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니까 안으로 부패한 정치 사회를 개혁 밖으로 일본 침략에 항거한 동학운동은 근대 민족 운동의 첫 출발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동학운동이 일어난 것은 1894년의 일이었다. 원래 강원도에 동학교가 전파된 것은 특히 제 2세 교주 최 시형(崔時亨)이 여러차례 순회한 이후였다. 수운(水雲) 최시형이 강원도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71년 봄에 영월에서 이 필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 이듬 해부터였으나 주로 영월·정선·평창·인제·양구·양양·간성 그리고 홍천·횡성·원주·등지였는데 그가 1898년 4월 6일 체포될 때도 원주 호저면 송동, 조 진여의 집에 있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 시형 교주의 영향으로 강원도 남부 지방에 동학교가 널리 전파되어 있어서 1894년 동학운동 때도 강원도에서는 최 시형 교주가 다녀간 곳에서 일어났다. 즉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간성·양양 지방의 동학운동, 하나는 영월·정선·평창의 운동, 하나는 원주·횡성·홍천의 운동이었다.

처음에 전 봉준이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때 충청도 이북 즉 북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해 9월 18일 최 시형 교주는 청산(靑山: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북쪽(충청도 이북)의 각 고을 두령(頭領)을 모아놓고 남쪽인 전 봉준과 함께 싸울 것을 결정한 후 손 병희에게 통령기(統領旗)를 내렸다. 여기서 동학운동은 후기에 접어들어 전국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강원도에서는 2백명의 대표가 청산에 파견되었고, 모두 전쟁의 지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홍천·횡성·원주 지방에서 손 병희 통령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만을 보면, 홍천에서 차 기석(車基錫)·심 상현(沈相賢)·오 창섭(吳昌燮), 횡성에서 윤 면호, 원주에서 이 화경(李和卿)·임 순화(林淳化) 등이었다.

위의 사람들은 원주·횡성·홍천에서 동학교도를 모아 횡성군 둔내 갑천 등지를 거쳐 홍천군 서석에서 동면으로 나아가 홍천읍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니 홍천의 정부군과 맞서 싸우게 됐고 또 당시 횡성군수 이 필영이 이끄는 군대와 동학군에 반대하는 소위 갑오의려(甲午義旅)가 민간 포수를 모아 동학군 토벌에 가담하여 동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하니 여기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 이 지방에서 갑오의려로 활약하여「동학당 정토인록」(東學黨 征討人錄)에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은 원주의 이 철화(李哲和), 횡성의 정 준시(鄭駿時)이다. 그

리고 1968년의 횡성군지(郡誌) 81 페이지에 갑천의 정 난기(鄭蘭基)도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에 말한 흥천 등면의 싸움은 동면 속초리(東草里)에서 시작되어 그 해 10월 25일을 전후해서는 서석면(瑞石面) 풍암리(豐岩里)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 여기에서 많은 동학군이 전사하였다. 오늘날 동면 속초리 허씨(許氏) 문중이나 서석면 풍암리에 가면 10월 20일 뒤 며칠 동안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는데 모두 역사에 얽힌 쓰라림과 더불어 향내음이 퍼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 흥천 전투에서 정부군에는 앞에 열거한 부대 외에 강력한 민간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평(砥平: 양평군)에서 포수를 모아 온 맹 영재였다.

맹 영재의 부대는 충청도 방면에서 싸우다가 이곳에 와서 동학군을 토벌하고 있었는데 동면과 서석면의 전투에서는 거의 총대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 공로로서 동학운동이 끝난 후 지평 현감의 벼슬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동학운동은 강원도 남부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횡성에서도 많은 인원이 이에 가담했는데 이러한 동학교의 활동과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것으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으려니와 일제 치하에서 1919년 3·1운동은 동학교도(천도교도)에 의한 것이었으니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3. 의 병 운 동

구한말의 의병(義兵)이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1895년 이후 1910년 까지 쫓기하여 싸운 애국지사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조직적인 계획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것과 구별하여 순전히 자발적인 민간운동이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1910년 일제의 지배하에서 항거한 독립군 운동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의병 항쟁사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다. 전기는 1895년 당시 고종(高宗)의 왕비였던 민비(閔妃)가 일본 침략자에게 시해(죽음)되고 또 일본이 침략의 방편으로 단발령 등 여러가지 개혁을 추진하니 이에 일본의 만행과 침략에 대하여 싸운 것을 전기(前基)의병 항쟁이라 하고, 후기(後期)의병 항쟁은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침략이 한층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됨에 전국에서 또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계속하여 1910년까지의 일을 후기 의병 항쟁이라 한다. 1905년부터 일어난 후기의병 항쟁은 1907년 이 상설, 이 준의 헤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가 일본 침략자에

게 쫓겨나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니, 해산된 군대도 합세하여 전에 없던 큰 규모의 의병조직이 성립되어 대규모의 항쟁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전기나 후기를 막론하고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횡성군에서도 특히 청일면·둔내면·갑천면·안흥면 일대는 의병 활동의 본거지였다.

의병 활동에서 전국적으로 어디보다 강원도가 가장 치열했던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째 강원도에는 의병운동의 전국적 지도자였던 유 인석(춘천사람)같은 인물이 배출되어 그의 영향도 컸고, 또 강원도 사람들의 성격이 비교적 단순하고 평소 국가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이해관계에는 초연(超然)하고 무디지만, 큰 일에는 그무거운 몸을 움직여 누구보다 앞서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강원도에는 포수가 많아서 의병으로서의 인적자원(人的資源)이 다른 곳보다 풍부했다는 점이며, 세째는 산악지대가 많아 의병전투가 치열했던 곳은 횡성읍에서 태백산맥 쪽인 동북 방면이었다.

횡성 출신의 의병장(義兵將)은 최 인순, 한상열(韓相烈), 박성목, 강 도영이 가장 대표적인데 횡성 출신이 아니면서 횡성에서 활약한 의병 부대도 많았는데 송 락중(宋洛中)이 강년(李康年), 민 금호(閔肯鎬), 박 장호(朴長浩)등의 의병부대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 이 강년과 민금호, 박장호의 의병부대는 강원도 곳곳마다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전해 주고 있거니와 민 특무(閔特務)로 알려진 민 금호의 부대는 영서 지방의 농민들에게 신화(神話)속의 인물 같은 존재였다. 더욱 그가 마지막에 일본군에 전사한 곳이 횡성군 안흥면 강림리(講林) 노고소 근방이고보면, 민 금호의 나라를 위한 원통한 영혼이 횡성 이 고장에서 이 고장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 고장 출신인 강 도영(실제는 소초면 둔둔리 출신이나 횡성 천도교회 두령이었다)은 청일면 춘당 고개에서 일본 침략자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리고 한 상열(韓相烈)은 후에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후손이 안흥면 하강리(한정희)에 살고 있으며 최 인순은 강릉에서 전사했는데 그 후손이 우천면 법주리(최 봉수)에 살고 있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의병이 곳곳에 원혼을 남긴 채 침략자의 총탄에 쓰러져 갔으니 아직도 산골 마을에는 옛 의병들의 이야기가 설움 많은 겨례의 사랑방 이야기에서 눈물을 짓게 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구한말때 의병은 일본 침략군이 발달된 무기로 공격을

계속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만주나 시베리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의병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여 산악 깊은 고을로 들어가고 혹은 먼 객지에서 글방 선생, 술장사, 머슴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자리를 숨겨 살았다. 그중에서 산속에 들어간 의병은 나오면 일본군에 죽게 되니 혹은 강제로 식량을 빼앗아가며 연명하여 가기도 했다. 이 불상한 도적 아닌 도적을 칠없는 사람들이 욕하는 수가 있는데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병에 나간 것을 알면 침략도배는 그의 가족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다. 이러한 운명을 예감한 의병은 흥천 출신 박 장호같이 자기의 가족을 산속 화전민으로 만든 후 의병 전선에 나갔고, 원주의 김 운선(金雲仙)같이 의병에 나갈 때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칼로 모두 죽이기도 했다.

이와같이 일본 침략군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며 침략군과 싸운 의병들의 정신은 구한말 의병사(義兵史)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은 일제시대 3·1운동으로 연결되어 우리 역사에 빛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횡성군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한 강도영의 정신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어져 횡성 3·1운동사에서 찬란한 자취를 남겼으니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즉, 그의 막내 삼촌인 강 달회는 1919년 4월 1일 횡성 3·1운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그 장날에 만세를 부르며 일본 헌병에 항거하다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의 아들 강 만형은 잡혀 감옥에서 왜놈에게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죽어야 했다.

4. 암 흑 기

1. 일제의 헌병 통치

일제는 구한말부터 우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괴롭히며 행패를 부리더니 1910년 우리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이후부터 고을마다 헌병을 배치하여 무단정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행정기관으로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지방에서는 도장관(道長官 : 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군수(郡守)와 면장(面長)으로 연결되는 행정체제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사법기관이 총독(總督)의 지배하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구실 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법기관인 법원(法院)도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하여 졌다는 의미를 부인하지 못하는 제국주의의 체제일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체제가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 무단정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은 총독부와 별도로 경찰기관으로 조선 헌병 사령부가 있었고, 지방에는 조선 헌병 사령관의 산하기관으로서 도에는 헌병대장이 있었으며, 군에는 헌병 분견소장 그리고 면에는 헌병 파견소장이 있어서 이들이 경찰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때는 경찰서(警察署)가 따로 없었다. 경찰 업무는 조선 총독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헌병 사령관이 전담하여 있었는데 조선 헌병 사령관을 경무총감(警務總監)에 임명하여 헌병과 경찰의 두가지 일을 맡게 했으며 각도에 있던 헌병대장은 경무부장(警務部長)에 겸임 임명하여 지방의 경찰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군과 면에서는 헌병 분견소장 혹은 파견소장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지, 경무총감이나 경무부장처럼 별도로 경찰 업무를 표시하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같이 경찰 업무는 헌병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그것도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 총독과 독립한 헌병 사령관이 맡았으며 경찰 조직의 체제 자체를 총독부에서 독립시켜 놓았던 점은 일제의 무단정치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행정부인 총독부 안에 두고, 행정기관인 경찰은 헌병이 맡게 했던 그 의도는 우리 겨레에 대한 일제의 계획적인 탄압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3·1운동 때 황성에도 행정기관으로서 군청이 있고, 헌병 분견소가 있었는데 당시 군수는 심 상준(沈相俊)이고 헌병 분견소장은 도변경삼랑(度邊慶三朗)이었다. 우선 군수는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실권이 헌병에게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황성군의 당시 재판 관할은 경성 지방법원 원주지청(原州支廳)에서 맡고 있었는데 3·1운동 관계 재판서류를 검토하니 당시 원주 지청에서는 대개 예심(豫審)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 붙여 둘 말은 이 때는 조선 태형령(朝鮮苔刑令)이라는 것이 있어서 3개월 분의 징역은 90대의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이 태형은 경찰서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헌병 분견소장이 부과할수 있는 것이어서 분견소장도 명목상 가벼운 범죄는 재판하였고, 또 마음대로 때릴 수 있게끔법령으로 규정해 뒀던 것이다. 즉, 범죄 즉결례(犯罪即決例)라는 규정에 의하여 헌병소장(경찰서장)이 법원의 재판에 넘기지 않고 3개월까지 구류를 살게 할 수도 있고 90대의 태형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 3·1운동때 특히 태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우리 나라 고을마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종 교 실 태

종교를 검토하는 것은 횡성 지방의 민족적 역량을 사상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3·1운동전에 종교라면 모두가 우리 겨레의 편이었고, 우리의 민족 사상을 발전 시키는데 도움이 안된 것이 없었다. 나라가 없고 때문에 우리에게 사상을 계획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었으니 그 임무는 자연 종교 기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횡성의 종교는 천도교·유교·천주교·감리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교가 종교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으나 편의상 종교안에 포함시켜 설명하겠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천주교의 문제인데 천주교는 3·1운동때 프랑스 선교단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천주교가 교회 조직을 통해서는 3·1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횡성에는 서원면 풍수원 성당이 있는데 이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으로 우리 나라 천주교회 역사상 유명한 성당이다. 원래 횡성은 강원도 어디보다 일찍 천주교가 전래하여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고장으로 때문에 오늘날에 횡성 출신 신부(神父)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3·1운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횡성 3·1운동에서 그 몫을 담당했던 종교는 천도교와 감리교와 유교로서 다른 지방에 비교하면 불교의 활동이 없었다.

천도교의 활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횡성에서는 거의 천도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당시 횡성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교구(大敎區)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주 방면과 평창 방면도 횡성교구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내에는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횡성과 우천면·갑천면·안흥면 그리고 원주의 소초면과 평창의 대화면(방림면 포함)에 보다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때에 대교구장은 횡성면 영영포리(永永浦里)에 있던 최종하(崔宗河)였는데 횡성에는 신재근(申在根)·장도훈(張道勳)·김인경등 유능한 인사가 교회 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지만, 이채일(李采一)·이동구(李東求)등 중앙 천도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어서 어디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다는 것이 다른곳과 비교된다.

이렇게 천도교회가 대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배경이 되었으며 서울에서 천도교회가 주동하여 3·1운동을 일으켰으니 그 영향으로 횡성 3·1운동도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중추를 이루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횡성 천도교회가 횡성읍에서나 농촌에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천도교인

의 모임이 아닌 횡성 청년회(회장 趙喆九)가 천도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횡성 천도교회는 현재 읍하리(邑下里) 천주교회 근방에 있었다.

다음에 감리교회는 당시 설치된지 얼마 안되어 수십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불과하였다. 그러기에 감리교회가 횡성 3·1운동에 참여는 했어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큰 몫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감리교회의 지도자인 내지리의 정해경 읍하리의 탁영재(卓英才)가 참여한 것을 보아 얼마 안되는 교인이었지만 모두 동원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에 유교에 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유학자가 없다는 이유로 3·1운동과 유교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3·1운동을 왜 3월 1일로 정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그것은 3월 3일 당시 고종황제 인산(因山: 장례식)에 참례하려 지방에서 모여든 유학자의 집회에 힘을 입자는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니 말이다. 또 횡성군 서원면 매호리(梅湖里: 당시 분일리)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은 천도교인도, 감리교인도 아닌 유학자들에 의하여 전개되었음을 보면 알 것이다. 또 그해 3월 16일 횡성 보통학교 학생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례치 못하였다고 해서 가슴에 삼베 천을 달고 다녔다는 당시 현병사령부의 기록도 유교적인 풍토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고종황제가 일본 여자의 독약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고종황제는 대한 제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니 옛 임금에 대한 충성심인 유교 윤리적 충동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시키는 사상적 배경으로 중요한 몫이 됐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곳곳에서 서당훈도(書堂訓導)가 앞장을 섰던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횡성 3·1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인경·김윤배·박영하등이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의 교사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한후 우리 나라에서는 마을마다 글방을 차려 놓고 선생을 모셔다가 자녀의 공부를 시켰으니 횡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 글방에서 배운 유교 철학은 3·1운동때 특히 시골에서 큰빛을 발휘했던 것이다.

3. 학교 교육

3·1운동때 횡성에 있었던 학교는 횡성 보통학교가 대표적이었다. 횡성 보통 학교는 원래 횡성 객사(客舍)에 있던 화성학교(花城學校)가 변천한 것인데 3·1운동 당시

는 4년제의 학교였다. 보통 학교라면 오늘날 국민학교를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학교의 교육 수준보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그것은 보통학교 학생이면 대개 가정에서 한문 공부는 마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음악, 미술등 예능과목은 아니더라도 일반 학술 과목은 자연이 높은 수준에서 교육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의 학생도 20세에 가까운 사람이 많았던 관계로 오늘날의 국민학교 교육 수준은 물론, 아동보다 사회적으로도 높았던 것이다.

횡성에는 이와같은 보통학교 졸업생이 친도교회에 횡성 청년회를 조직하여 있었으며 그 청년회 회장은 조 철구(趙喆九)였다.

횡성 보통학교는 사립학교였던 화성학교를 인수하여 공립학교로 발전한 것인데, 당시에 횡성군 내에는 사립학교로서 성심서원(聖心書院)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광동국민학교의 전신이다. 원래 풍수원 성당의 부속학교로 세워진 것이나, 이 성심서원이 우리나라 종교계 및 신문화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는 크다.

위에서 본것과 같이 횡성 보통학교나 성심학교는 신문화의 조류와 함께 생겨난 근대적 교육기관인데 여기에서 근대적 민족주의의 사상이 발달하고 있었음은 물론, 그것이 3·1 운동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상적 배경이 됐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외에 마을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던 글방이나 서당도 3·1 운동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던 중요한 것으로 봐야한다. 3·1 운동의 사상적 원인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호응하였다는 점도 있으나 지방에서는 봉건적 충성심(忠誠心)이 고종황제의 죽음에 자극되어 일어났다는 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시골에 있었던 서당교육은 3·1 운동의 원동력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당시 시골에서 근대적 사상인 민족자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판단 일 것이며, 그러한 시골에서도 3·1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이니 그 시골의 사상적 배경은 역시 전통적 서당식 교육에서 많이 찾아야 할 것이다.

4. 농촌의 생활

시골에서 일어난 3·1 운동의 중요한 원인은 (1) 일제의 헌병정치 (2)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농민의 착취 (3) 종교와 학교를 통한 민족 사상의 발달 (4) 고종황제의 별세에 대한 민족 감정의 폭발 (5) 서울의 3·1 운동에 자극된 점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것은 3·1 운동 당시의 상황을 놓고 검토하여 끌어 낸 원인들인데 보다 큰것은 우리 겨레가

오랜 역사를 지너오면서 간직하게된 민족정신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민족정신은 구한 말에는 의병 항쟁으로 나타났고 일제시대에는 3·1운동으로 연결되어 나타났고, 계속하여 여러 모양의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겨레를 일본 제국주의가 무참히 탄압, 착취하고 있었으니 우리들이 참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일본의 착취 양상은 농촌에서도 가혹하였다. 당시 농촌의 실태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3·1운동이 일어나기 그 전해인 1918년에 토지 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끝내고, 일본은 한국 농촌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토지 조사사업에서도 소위 세부측량을 할때,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선량한 농민을 괴롭혔지만, 토지 조사사업을 끝내고 그들은 통계적 수자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침략하였다. 예를들면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를 통해서 농토를 독점한다든지, 혹은 농지세(農地稅)로서 농작물을 착취하는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일제는 농토뿐만 아니라 임야(林野)도 빼앗고 있었는데 1911년 9월에 산림법(森林法)을 제정해 놓고 소위 국유림 구분조사(國有林區分調査)및 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을 하면서 개인의 산을 수없이 빼앗았다. 특히 사유림(私有林)은 제출 신고케 하였는데 신고서류에 측량도면을 첨부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붙여 실제로 산을 가진 사람도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 혹은 특별히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 자체를 불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산에 대한 측량도면을 만들자면 오늘날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농촌 사람들의 수준으로서 더욱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판단이 갈출안다 그리고 사유림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계측량을 할 때 좋은 산은 국유림에 편입시키는데 착취 행위를 예사로 했으니 농민의 항일의식은 점점 높아만 갔다.

그렇게 대부분의 임야는 국유림으로 만들어 농거나 친일파의 소유로 확정시켜 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묘지제(共同墓地制) 화전의 경작의 제한, 임산물 채취의 제한등의 조치를 엄격히 실천하니 농민의 생활이 한없이 구축을 받았다. 위의 것들을 표면상으로 보면 좋은 조치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국유림이나 친일파의 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니 당시 농민의 일상생활에서 써야 할 나무는 어디에서 구하여야 한단 말인가.

결국 친일파나 일제의 관공서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얼마간의 나무를 구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일본 관리의 눈을 피하여 나무를 훔치다시피 해야만 됐다. 이렇게 억울한 농민이 3·1운동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면 쌓인 울분을 한 번 터뜨리지도 못했을 것이 아닌가.

농민을 착취하는 것은 주세(酒稅)와 연초세(煙草稅)등에도 나타났지만 3·1 운동 당시는 특히 도로(道路: 新作路라 불렀다) 공사에서도 나타났다. 값싼 품싸으로 일을 시키거나 부역으로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3·1 운동 무렵, 황성에서는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문재와 전재를 넘는 길을 우천면 우항리(牛項里)에서 원주 소초면 평장리를 통하여 경기도로 가는 길을 닦아 1918년부터 개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주에서 황성으로 오는 길은 춘천으로 통하는데 원주 황성간의 도로는 거의 지방 농민의 부역에 의해서 닦은 길이다.

이러한것 외에도 농민이 받은 고통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만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던 우리 농민들은 곳곳에서 측량기술(測量技手)나 일제의 관리들과 싸움을 벌였고, 그러한 동안에 3·1 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던것이다.

5. 통신과 교통

3·1 운동의 분위기는 황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성숙되어 있었는데 그것이고 종황제가 독살(毒殺)되었다는 소문에 의하여 촉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디서나 곧 터질것 같았다. 이때에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터져나오니 전국으로 번져 온 거래가 일어나 항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황성의 교통과 통신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통신은 당시에 황성읍에 우편소(郵便所)가 있었고 전화는 행정 전화로서 헌병 분견소에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통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천면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 막 개통되었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으나 아직 자동차는 다니지 않았다. 황성 사람들의 서울과의 교통은 걸어서 양평을 거쳐 가지 않으면, 원주 문막(文幕)을 지나 문막에서 약 20 리쯤 가면 부론면(富論面)의 관할인데 고려(高麗)때부터 유명한 서울로 가는 뱃길이 있었으니 배를 타고 가기도 했다. 원래 그 뱃길은 고려와 근세 조선 때 정부가 설치한 교통으로서 주로 조세를 건우어 날르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뱃터에는 정부의 창고(조창: 漕倉)를 지어 두는데 부론면의 것을 흥원창(興元倉)이라 한다.

5. 3·1운동과 횡성

횡성에서는 3월 21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월 27일 첫번째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뒤 따라서 4월 1일 2일 3차에 걸쳐서 횡성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시장 철폐운동이 있었고 4월 12일에는 서원면 분일리(매호리)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져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정면으로 항쟁하였다. 그러드라고 5명이 피살되고 수십 명이 부상되었으며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일제 헌병에게 잡히어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혹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죄없는 죄수로 고통을 겪었다. 그 중에서는 강 만형처럼 옥중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횡성 운동은 곧 이웃 고을로 번져 나갔으니 그것들 중에서 횡성 운동과 직접 연결된 것이 두곳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중 소초면의 운동은 4월 5일 있었는데 4월 1일 횡성 장터의 운동이 연장된 것이고, 평창의 운동은 4월 4일과 5일에 전개하려던 것인데 4월 3일 비밀이 탄로되어 관계자가 모두 잡혀 성공치는 못했으나 이것은 3월 12일부터 횡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할때 평창까지 배부한 결과이니 역시 횡성 운동의 연장 운동이었다.

횡성의 3·1운동은 당초 천도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서울의 3·1운동의 소식은 곧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졌는데 횡성의 경우는 횡성 천도교회 출신으로 도훈(道訓) 이던 이 채일과 의사원(義事員) 이 동구(李東求)는 서울 천도교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동구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3·1운동과 천도교회의 활약에 대한 소식이 비교적 자세히 전달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전국 각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서는 미리 발각되기도 했으나 어떤 곳에서는 발각되지 않고 전달되기도 했다. 대개 지방의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 혹은 그곳 청년회 대표에게 보냈는데 횡성에도 그런 인사가 전달 됐던 것으로 안다. 그것은 횡성면 감곡리에 거주하는 박 순기(朴淳紀)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당시에 횡성면 회계 서기로 있으면서 횡성 청년회의 총무로 있었는데 자기에게도 독립선언서 1통이 보내왔더라는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 (1970년 10월 10일 증언 77세)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당시 횡성 천도교회는 대교부였는데 대교부장은 최 종하(崔宗河)였다. 그리고 천

도교회의 지도층 인사는 봉 훈(奉訓)이던 신 재근(申在根)과 장 도훈(張道勳), 김인경, 강달희, 강만형등이었다. 그 중에서 강 달희와 강 만형은 원주 소초면 둔둔리의 사람이나 당시 횡성 천도교회가 원주(원성)를 통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회가 추진한 횡성의 3·1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이며 또 둔둔리는 원주땅이라 해도 특히 과거에는 횡성 생활권에 속해 있어서 장날도 횡성 장날을 이용했기 때문에 횡성 3·1운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고 3·1운동을 추진하던 곳은 횡성면 읍하리에 있던 천도교회 교구실(敎區室)과 영영포리 441번지 신 재근 집이었다.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최 종하·신 재근·장 도훈이 협의하여 3월 초에 장 도훈이 당시의 돈으로 3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그리하여 장 도훈은 서울에서 의사 원으로 활약하던 이 동구를 만나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가지고 3월 11일 횡성에 돌아왔다.

장 도훈이 돌아오니 운동 계획은 급진전하여 영영포리 신 재근의 집에서 최 종하·신재근·장 도훈·김 인경이 협의하여 독립선언서를 배부한 것은 3월 12일과 13일의 일이었다. 3월 12일은 음력 2월 11일로서 횡성 장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연락하기가 좋았다.

당초 독립 선언서를 가져 온 것은 장 도훈이 재판석에서 말한 대로라면 40매였고, 태극기는 20매였다.

그리하여 3월 12일과 13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여러 곳으로 배부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독립선언서와 태극기의 배부, 그리고 만세 운동의 추진은 약 10일간 계속되어 3월 27일(음력 2월 26일) 첫 번째의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원래 운동의 추진은 읍하리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신 재근의 집에서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하여 순조롭게 추진되었는데, 3월 16일 횡성 보통학교의 학생 일부가 상장(喪章)을 달고 일제에 대하여 무언의 시위를 벌인 일이 생겨 좀 늦어진듯 하다. 당시 조선헌병 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보낸 보고문에 보면 3월 16일 횡성 보통학교 학생이 고종의 죽음에 조의(弔意)를 표시하는 뜻으로 삼베천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고 나타나 있으며 이것 때문에 조선군사령관은 3월 12일 이후 춘천에 주둔해 있던 보병(步兵) 79 연대의 병력일부를 원주로 이동 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횡성군내에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고, 따라서 만세운동의 추진도 더욱 심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3월 12일부터 약 10간 각지방에 연락하고 계획을 추진할 때 영영포리 당시 구장(區長)이던 이 창래가 신 재근의 집에서 만세 운동을 추진하는 그 비밀을 보장해줬다는 점은 고마운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할 때 각 지방에서 참가하고 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횡성면 읍하리 최 종하(崔宗河: 43세) 천도교구장
 " " 윤 대환(尹泰煥: 22세) 청년회원
 " " 탁 영재(卓英才: ?) 감리교인
 " 읍상리 전 성수(全聖洙: 34세) 천도교인
 " " 최 동수(崔東壽: ?) 청년회원
 " 영영포리 신 재근(申在根: 64세) 천도교인
 " 내지리 정 해경(鄭海璟: 43세) 감리교인
 우천면 두곡리 김 명기(金明起: ?) 유학자
 " " 김 진대(金振大: ?) "
 갑천면 매일리 김 윤배(金允培: 56세) 천도교인
 안흥면 안흥리 천 선재(千善在: 78세) "
 " 상안흥리 장 도훈(張道勳: 49세) "
 " " 김 인경(金麟卿: 38세) "
 " " 안 경춘(安敬春: 20세) "
 " 가좌곡리 김 연의(金演儀: 21세) "
 " 하산전리 조 상렬(趙常烈: 49세) "
 우천면 법주리 강 승문(姜勝文: ?) "
 소초면 둔둔리 강 달회(姜達會: 51세) "
 " " 강 만형(姜萬賢: 28세) "
 " " 하 영현(河永賢: ?) "
 " 교향리 추 병학(秋秉學: 47세) "
 " " 추 병륜(秋秉倫: 45세) "

위에서 강 달회(사문·士文)와 하 영현(돌림) 그리고 강 승문(사운)은 4월 1일 만세운동 때 피살되었고, 최 종하·신 재근·장 도훈은 2년의 징역을 살았고, 정해경은 1년6개월, 천 선재는 1년, 김 인경·조 상렬·전 성수·김 윤배·김 연의·안경춘

강 만형은 8개월, 윤 태환·추 병륜은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탁 영재·최 동수·명기(김 사극)·추 경학은 만세 운동후에 숨어 버렸다. 앞에 말한 사람들의 조직은 최 종하·신 재근·강 도훈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계통이 뚜렷하다. 그 하나는 천도교 계통이며, 이 천도교 계통은 김 인경·김 윤배등 천도교인이면서 한문 학자로서 서당 훈도(訓導)를 하는사람을 통해서 보통 사극씨로 알려진 김 명기 같은 유학자를 포섭하였다. 김 명기는 추동리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천면에서는 명망이 높은 인사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 해경·탁 영재등의 감리교 계통이었고, 또 하나는 윤 태환등 청년회의 계통이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다섯갈래로 분류된다. 횡성면이 하나이고, 우천면과 안흥면 서부(하산전리, 가좌곡리등), 그리고 안흥면 동부(전재동북), 또 갑천면이 그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원주 소초면이 하나였다. 소초면의 거의 둔둔리 한 마을이 해당되나 둔둔리의 중심인물 강 만형의 매부(妹夫)이며 강 달희의 종손씨가 되는 교항리 추 병학과 그의동생 추 병륜이 포섭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 인경은 원래 평창 대화면 운교리(雲橋里) -당시는 방림면이 없고 모두 대화면에 합쳐져 있었다 - 사람인데 안흥에서 서당(글방)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기록을 검토하니 독립선언서 12매를 평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선언서는 평창 운교리에 살던 이 인영에게 전달하여 이 것을 계기로 평창에서도 만세 운동이 추진되었다.

횡성의 만세운동은 이와같이 평창 만세 운동을 유발시켰고, 또 4월 5일 소초면에서 따로 운동을 일으키겠금 하였으니 평창과 소초면의 운동은 횡성 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횡성 운동은 앞에서 말한 운동외에 서원면 분일리(分一里 지금 매호리)에서 단독으로 일으킨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원주의 지정면(地正面), 건등면(建登面 지금문막면) 방면 운동의 영향을 받아 유학자 혹은 청년들이 중심되어 추진하였다. 분일리 운동의 중심 인물은 다음과 같다.

257번지(향산) 송 병기(宋秉箕: 28세) 징역 10월

247 " (") 성 태현(成泰鉉: 29 ") 8월

" " (") 박 민희(朴民喜: 41 ") "

359 " (상촌) 유 정근(柳定根: 40 ") 7월

492 " (수동) 이 정헌(李正憲: 26 ") 6월

158 번지(상촌)이 두연(李斗淵: 39세) 6월

499 " (수동)이 종우(李鍾禹: 40 ") "

119 " (")김 옥봉(金玉鳳: 40 ") "

이상이 매일리에서 만세운동을 추진하는데 중심인물이었다. 그중에서 김 옥봉은 그곳에서 술집을 하던 사람으로서 혐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죄목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2. 3월 27일의 운동

앞에서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소개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최 남선(崔南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탄압하고 착취하던 것에 비하면 너무 온건적인 것이었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것이다. 독립선언서가 그와 같이 온화한 문구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을 어떤 사람은 비폭력(非暴力)에 의한 평화적 민족 운동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규정일 것이다. 33인은 평화적 운동을 계획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지방에서는 폭력운동을 계획하였고,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 지방에서 더욱 과격하게 전개될 운동도 어느 한계에서 머물렀던 것이다. 만일 독립선언서가 과격한 것이었다면 3·1운동은 보다 더 활발한 민족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 되었을 것이다.

횡성에서도 처음에는 독립선언서에서 밝히고 있던 것과 같이 평화적 시위운동에서, 출발하였는데, 처음의 만세운동은 3월 27일에 있었다. 이날은 음력 2월 26일로서 횡성장날이었다. 그런데 우선 당시 일제측에서 기록으로 남겨둔 보고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헌병사령관(국무총감)의 비밀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27일 횡성 시장에서 12명이 옛날 한국기를 흔들며 운동을 개시하기에 관계자 8명을 검거하였는데 시장의 각 상점은 문을 닫고 있다. 원주에서 헌병 3, 보병 4명이 응원차 왔다.」(김 정명, 「조선 독립운동」 p.431)

그리고 3월 27일 당시 강원도 장관이 조선 총독에게 보낸 전신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오후 1시 횡성읍내 시장에 약 삼백명이 집합하여 천도교도 8명과 그의 4명이 옛 한국 국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기에 천도교도 8명을 포박하다」

위의 보고문을 보면 이날 만세 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은 12명이었던 모양이며 오랜 시간동안 운동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날 선두자들의 판결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3월 27일 관계자의 판결문은 다섯 사람의 것 밖에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신 재근(2년)·장 도훈(2년)·안 경춘(8개월)·강 만형(8개월)·윤 태환(6개월)의 판결문인데 원주 지청에서 예심(豫審)을 거쳐 그해 5월 1일에 경성 지방법원에서 위 명시한대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심 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서류 심사로서 기각 되었던 것이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10일경 영영포리 신 재근의 집에서 신 재근과 장 도훈이 협의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폐기로 결정한 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서울에서 구입하기로 합의하여 신 재근은 구입자금 3원을 부담하고 장 도훈은 서울에 올라가서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구입해 오기로 했다.

그리하여 장 도훈은 3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가져와서 만세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서 강 만형과 안 경춘이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다음에 윤 태환이 동의하여 같이 운동을 폐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3월 27일 황성 장날 윤 태환이 큰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나섰으며 그 외 모두가 군중을 선동하며 조선 독립만세를 불렀다.

위의 몇가지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두 가지의 해석을 하며 또 문제를 제기해 둔다.

① 3월 27일의 운동은 독립선언서에 밝혀 있는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만세를 부르는 정도의 범위를 못 벗어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헌병사령관의 보고문에 장터의 상점은 모두 폐쇄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고 또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상점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 이 점을 고려한다면 온화하게 만세를 부르는 정도에 그칠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고 민중의 준비 태세도 상점 문을 닫고 덤벼들고 그 인원이 3백 명에 이르렀다면 지도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어떠한 시위 행동으로 변할지 알 수 없었던 급박한 분위기였음이 사실이었다.

② 그러나 상점 문을 닫으며 준비에 들어 갈 때가 거의 점심때였고, 이것을 눈치 챈 황성 헌병 분견소에서는 원주에 급히 연락하여 헌병 3, 보병 4명을 불러들여 그들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③ 이러한 때 오후 한시경 윤 태환이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높이 세워 들고, 따라서 지도급 인사가 같이 군중 앞에 나타났고, 신 재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다.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있었던

모양을 모방한 절차이기도 했다.

④ 그러한 때에 일제 헌병이 몰려 왔다. 그러니 모두들 조선독립 만세만을 부르게 됐고 선언서는 읽을 여가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앞에 나섰던 지도급은 잡혀 가게 됐다. 그리고 아직 만세운동에 경험이 없던 군중도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우선 해산하여 다음 계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⑤ 이날 독립선언서도 읽지 못하고 만세운동도 치열하게 전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에 헌병 분견소는 지금 군청 뒤 어린이 놀이터인 옛날 횡성 현감, 그리고 1895년부터는 횡성 군수가 사무를 보던 동헌에 있었고 만세 군중은 장터(지금과 비슷함)에 있어서 거리가 좀 멀다는 것만 생각하고 독립선언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줄 판단하여 선언서를 읽어서 군중에게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을 충분히 알리고 격려하려던 것이 뜻밖에 일제 헌병이 빨리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⑥ 그러나 이 날의 운동은 장기간 계속되지 못하였어도 이것이 횡성군 각 마을에 전해져서 만세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됐고, 또 이것을 주동하던 천도교인도 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감리교인과의 연합하여 4월 1일 큰 규모로 치열한 운동을 가져오게 됐다.

⑦ 여기에서 3월 27일 주동급의 사람 중에서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소개해 둔다.

신 재근(申在根)은 당시 64세의 노인으로 횡성면 영영포리 441번지에 살았는데 횡성 천도교회의 봉훈(奉訓)으로서 천도교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3·1 운동 때도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

장 도훈(張道勳)은 당시 49세로서 안흥면 상안흥리 240번지(물안골)에 살았는데 장 도훈은 원래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안리의 사람으로 1907년에 안흥에 이사왔다. 평안도에서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한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당시 평안도 지방에서 의병대장으로 이름 높은 유 인식의 고향인 강원도에 찾아와 안흥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는 2년간의 징역으로 고생한 후 안흥에 돌아와 있다가 1937년 2월 8일에 작고하였다. 후손으로서 안흥면 월현리「등자치」에 아들 장 기을(張基乙), 장 기병(張基丙)이 살고 있다.

안 경춘(安敬春)은 안 승훈(安承勳)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20세로서 역시 상안흥리 641번지(배나무골)에 살았다. 그는 장 도훈과 김 인경에게 글을 배운 청년으로서 3·1 운동에 참가했는데 8개월의 징역을 마친 후, 고향에 돌아와서 살다가 1968년에 작고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는 심하고 공연한 간섭으로 사람을 괴롭히니 안 경춘은 그들의 눈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주(四柱)같은 것을 보며 세월을 보냈다. 다른 경우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더러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여 “점장이” “술장사”로 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았는데 흑간 철 없는 사람들이 욕하는 수가 있으니 그것은 친일파가 아니면 무식한 탓이다. 안 경춘의 후손은 그 아들 안 성만(安成晩)이 상안흥리 「버리소골」에 살고 있다.

강 만형은 당시 28세로서 원주 소초면 둔둔리 223번지에 살았었다. 그는 구한말의 병으로 횡성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해병과 싸우다가 전사한 강 도영의 아들이며, 4월 1일 만세운동 때 피살 당한 강 달희의 종손자이다. 그들은 집안이 모두 천도교 가문으로서 특히 강 만형은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은 누구보다 격했다. 그러한 관계로 횡성 현병 분견소에도 심한 고문을 받아 병중에 8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1920년 2월 28일 서대문 옥중에서 작고하였으니 29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의 후손으로 아들인 강 백선이 원주시 학성동 2반에 거주하고 있다.

윤 태환(尹泰煥)은 당시 22세로서 횡성면 읍하리 68번지에 살고 있었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최 종하·탁 영재와 더불어 여러차례 협의 후 3월 27일 제일면 저 만세운동에 몸을 던졌다. 흑간 윤태환이 활동한 것이 4월 1일의 운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으나 판결문을 봐도 3월 27일이며 더구나 그의 부인 김 성배(金聖培) 할머니가 횡성면 갈풍리에 살고 있어서 그 할머니가 분명히 음력 2월 26일(3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으니 4월 1일 운동때로 아는 것은 착각인 것 같다. 4월 1일은 그의 형 윤 석환(尹錫煥)의 활약이 배후에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김 성배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윤 태환은 3월 28일 아침에 잡혔고, 재판 기록에 따르면 6개월의 징역형을 겪어야 했다.

3. 4월 1일의 운동

4월 1일의 운동은 3월 27일의 운동이 발전하여 전개된 운동이다. 3월 27일의 운동에서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급이 체포되어 현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남은 교인들은 더욱 분개치 않을 수 없었으며 다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배후에서 조종하던 횡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가 있어서 보다 조직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회의 지도자 정 해경과 탁 영재와

연락하여 더욱 규모를 넓혔으며 천도교회에서도 우천면 법주리의 강 승문, 안흥리의 김 인경, 기좌곡리의 김 연의(金演儀), 하산전리의 조 상렬(趙常烈), 갑천면 매일리의 김 윤배, 횡성면 읍성리의 전 성수(全聖洙) 원주 소초면 둔둔리의 강 달회, 하 영현(河永賢) 그리고 교항리의 추秉倫(秋秉倫) 형제 등이 죽음을 각오하고 4월 1일 장날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밤낮 산을 넘으며 활동하였다. 특히 3월 27일 장사하러 횡성 장에 왔던 당시 영월군 양변면 주천리 김 성서(金聖西)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김 윤신은 모두 천도교인이기에 장사도 버리고 4월 1일의 만세운동을 위하여 장사를 가장하고 마을을 다니며 활약했으니 그들의 공적도 컸던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이번 장날 구경거리가 많다”고 민중에게 호기심을 불러 넣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애국심에 호소 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만세운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다”고 협박도 하며 4월 1일 장날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를 천도교인이나 감리교인 모두가 힘을 쏟았다.

이리하여 4월 1일 (음력 3월 1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대목장 같이 군중은 모여 들었다. 당시 강원도 장관의 보고에 만세 군중만 1천 3백명으로 추산하니 만세 군중외에 장사군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군도 있었을 터이니 수천명의 장군이 모였을 것이다. 우선 당시의 보고에 나타난 인원은 국제적 체면관계로 인원을 줄여 보고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니 강원도 장관이 보고한 1천 3백명 보다 훨씬 많은 만세 군중이었을 것이다. 아물든 천도교회가 감리교회와 연합하였고, 3월 27일의 운동을 교훈으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보람은 수천 군중을 동원했다는 사실에서 일단계 성공하였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모여드는 나라 잃은 백성, 일본의 말굽에 밟힌지 10년 그동안 갖은 고생을 겪으며 참아왔던 백의 민족의 행진이 횡성 장터로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일본군대에 끌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징용이나 징발에 끌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요, 횡성에 주둔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제 헌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였다.

군중이 온 장터에 가득차매까지 모두들 기다렸다. 그리고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의 요소 요소에는 주로 천도교인이 파견되어 이 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혹간 얼빠진 수작으로 만세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의 이름으로 질책도 하였다. 여러곳 술집에서는 돈이 아까우랴, 술을 받아 너도 주고 나도 마신다. 당시 수로공부(修路工夫)로 있던 전한국은 장터 한농옥 술집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술을 받아 준다. 횡성면 옥동리 한치 고개에서 술을 팔던 여자 황소 아줌마(황소갈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 운동을 역설한다.

지금 송강루 옆에있던 황용구(黃龍九)의 술집에서도 만세운동을 역설하는 소리는 높다.

이리하여 만세 분위기는 익어갔고 따라서 원주에서는 일제 군대가 증강되었다. 점심때가 지나도 군중은 갈 생각을 안하고 저녁때를 기다린다. 날이 약간 저물기를 기다렸던 것은 군중의 심리나 일제 헌병들의 심리나 같았다. 군중은 총을 피하기 좋다는 생각에서 저녁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헌병은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가 좋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4월 1일은 조선군 사령관이 강력히 무기를 사용해서 폭동을 조속히 진압하라는 특별 명령을 발표한 날이었으니 헌병들의 태세도 그들대로 비상한 것이었다.

낮에 군중의 동향을 본 일제 헌병은 총을 쏘는 계획등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과 대처의 한 토막을 보면 우선 일본 민간인과 헌병들의 가족은 당시 헌병 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 규화의 집에 숨겨 놓았다. 이것은 이 규화 노인이 직접 증언한 것인데 당시 그의 집은 지금 군청 뒤 있었던 간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에 황성면 회계 서기로 있었던 박 순기(朴淳紀)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면 사무소의 중요 서류는 낮에 이미 비상 관출하여 숨겼으며 낮에 면서기를 소집하여 당시 심 상준(沈相俊)군수와 김 석환(金錫煥) 면장이 앞에 나서 심 상준 군수가, "오늘 총소리가 나더라도 놀래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미 낮부터 무기도 없는 백성을 상대로 전쟁과 같은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무기는 없더라도 그들을 몰아 내려고 했던 것이며 그들에게 동정을 기다린것이 아니니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한국인의 군수와 면장은 그 태도가 다른 곳의 군수와 면장에 비하여 너무 친일적이었다. 가령 당시 이천(伊川)군수 이문하(李文夏)같은 사람은 군중이 만세를 부를려고 모여들때 그 앞에 나가 울면서 하소연 했는데 그것은 만세운동의 제지라는 이유보다 이 문하 군수의 말대로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니 억울한 백성의 죽음을 예상하여 군중 앞에 나와서 울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 군수는 형식적으로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군중에게 위협을 알려 줬던 것이다. 그런것에 비하면 황성군수는 너무 냉담했던 것이 주목된다.

하영은 4월 1일때로 접어들어 4시를 넘어섰을 때다. 군중은 집단을 만들고 장터에서 쌀가게하던 조 흥렬(趙興烈)은 집을 고치려고 준비해 뒀던 석가래 나무를 잘라서 군중에게 나누워 줬고, 윤 석환은 장작을 배급하였으며 문둥이를 못된 사람은 아무 집에서라도 적당한 끈봉을 쥐고 여기 저기 모였다.

10년 동안을 참아온 군중의 분노를 머금은 눈동자는 뒷산 헌병 분견소를 응시했고, 군

골목마다 꿈틀거리는 무거운 행렬은 죽음을 눈 앞에 놓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누가 먼저 외쳤던가, 탁 영자 라고도 말하고 조흥렬 이라고도, 혹 정 두철 이라고도 말한다.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와도 좋다. 「대한 독립 만세!」 「조선 독립만세!」

친지를 진동하는 만세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그리고 군중은 장터에 있던 게시판은 물론이요, 군청과 면소앞에 있던 게시판도 부시면서 만세를 부르며 군청쪽으로 몰려갔다.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헌병 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 규화는 군중에게 매를 맞고 도망쳤으며 말을 달리며 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소도로(小島了) 상등병은 최 동수(崔東壽)에게 잡혀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김 진대(金振大) 노인도 담배대로 헌병을 호명하며 때렸다. 김 진대는 김 명기의 부친으로 당시 우천면 두곡리에 살았다.

이 때 뒷산에 잠복해 있던 헌병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군중의 움직임은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분노와 울분에 찬 10년 동안의 한이었기에 총소리에 멈출 수 없었다. 군중은 다시 일어났다. 황용구 술집에서 총소리에 놀라 들어앉아 술이나 먹던 몇몇 남자들은 옥동에서 온 황소아짐마가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뛰쳐 나왔다. 이날 황소아짐마는 칼을 들고 다니며 운동을 제촉했다고 한다. 앞에 말한 천도교인과 감리교인은 물론 시장의 상인도 시골의 농민도 모두 나서서 만세를 부르는데 점점 날은 저물어 갔다.

이 때 또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그리하여 선두에 섰던 당시 수로공부 전한국이 쓰러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여기 저기서 피를 쏟으며 쓸어졌다. 범주리의 강 승문(강사윤)을 비롯하여 둔둔리의 하영현(하돌립) 강 달회(강사문) 등 곳곳에서 쓸어졌다.

이러한 기회에 헌병과 보조원은 장터로 내려와 군중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당시 일제측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헌병 사령관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오후 일곱 시경 횡성 읍내에서 약 1천명의 폭민이 봉기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관공서와 상점을 파괴하기에 보병과 협력하여 발포 해산시켰다. 강원도 장관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횡성 읍내에서 어제 오후 다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사이에 전후 2회에 걸쳐 약 1천 3백명의 폭민이 집합하여 손에 곤봉을 들고, 돌을 던지며 시장의 상점문을 파괴하고 관공서를 습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처음에는 주모자를 체포 해산시켰으나 다시 같은 방법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무기를 사용하여 해산시켰는데 폭민에게 사상자가 있다」

위의 보고문에서 상점을 파괴했다는 것은 만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고 군중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부 상점은 친일파라고 공격한것을 말하며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것은 면사무소에 돌을 던진것, 그리고 군청에 돌을 던지며 군중이 공격하였던 것을 말한다.

아뭏든 날은 임이 어두웠고 여기 저기에서 총에맞아 신은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탁 영재·김 명기·최 동수 같은 사람은 멀리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고 부상자는 피를 흘리며 그래도 왜놈에게 잡히기 싫어 몰래 집으로 갔다. 한편 사망자 5명은 면사무소(지금의 자리 앞에 있었다) 마당에 운반되어 거지의 시체마냥 거적으로 덮여 뒹고 부상자는 당시 박 인춘(朴寅春)과 동업하던 심 용구(沈容求)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 용구 병원은 지금 양조장 자리에 있었다.

이날 피살자 5명중 4명은 직사했고 1명은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그리고 심 용구 병원에 입원했던 인원은 그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의 정곡면(안흥면) 안흥리 천 선재(千善在)의 판결문(판결문책 제 13책 p.586)을 보니 8명이었다고 하니 부상자가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았던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부상자 중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집으로 도망쳐 버렸고, 그 후에 헌병의 감시가 심해서 부상된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현재 우천면 추동리에 살고 있는 윤 동선 노인(1970. 10.10 현재 86세)은 당시 영영포리에 살면서 이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잡혀가서 매를 맞고 나왔다고 증언하는 것을 봐도 알 만한 일이다.

피살자도 이날 밤에 모두 그 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모셔갔는데 둔둔리의 사람들은 하 영현과 강 달희의 시체를 안고 밤길에 촛불을 밝히며 돌아가 사흘장을 지냈다. 원통한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하고 장사 지내야 하는 억울한 울분은 드디어 이를 뒤에 다시 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으니 그것이 4월 5일 소초면 만세운동이다.

그리고 4월 1일 만세운동으로 잡혀 가서 태형(苔刑)을 받고 나온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3·1운동 때에 태형으로 90대의 매를 맞아서 살이 일그러져 1년 동안 병 치료로 아무 일도 못했던 것은 물론, 오늘날과 같이 소독 약이 없어서 여름철을 지나며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했다. 태형은 거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대에서 처리했는데 이날 잡혀서 징역을 산 사람은 천 선재(1년) 정 해경(1년6월)

김 성서(1년 6월)·조 상렬(8월)·김 윤신(8월)·전 성수(8월)·김 운배(8월) 김 연의(김순서·8월)등이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서 고생하였고, 모두 다른 곳으로 몰래 떠나갔기 때문에 그 후손을 찾지 못하였다. 가좌곡리(지금 상하가리)「구령 마을」에 살던 김 연의 같은 인물은 감옥에서 나와 가족과 더불어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에 남은 삶을 바쳤으나 아무도 그 후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

4. 4월 2일의 운동

어제 장날 밤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던 군중은 잡혀가기도 하고 횡성 장터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날이 새자 2일에는 잡혀 간 사람을 풀어 달라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 날 시위에 대하여 강원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오늘 아침 횡성읍 사람 약 2백 명이 헌병 분견소에 몰려와서 독립운동의 허가를 요구하며 또 지금까지의 체포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또 지금까지의 체포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제 운동하던 사람도 섞여 있을 것임.」

이 날은 만세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당시 헌병 분견소장 도변경삼랑(渡邊慶三郎)과 군중 대표 정 호봉(鄭鎬鳳)·조 흥렬(趙興烈)과의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던 이 규화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약 한 시간 옥신각신하다가 분견소장의 강경한 태도로 군중은 돌아갔으나 이 때의 군중은 대부분 횡성 장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날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모두 폐쇄하였다. 그리하여 7일에 가서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청에 의하여 문을 열었으니 이것은 일본 압제에 대한 무언의 항쟁이다.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횡성 읍내에서는 4월 1일 소요 사건이 발생한 이래 조선인 상점은 모두 폐점하였는데 군수와 헌병 분견소장의 간곡한 설유에 의하여 7일에 이르러 개점하다.」

그리고 4월 7일 열 두 시경에는 장터에 있던 게시판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그 밑에「군수를 죽인다. 체포한 사람을 석방하라」는 전단이 붙었다는 역시 강원도 장관의 보고문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 만세운동의 뒤가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의 상황을 봐서도 알 것이다.

5. 민중의 각성

3월 27일과 4월 1일 그리고 2일의 시위운동이 있은 뒤, 횡성군내 각 마을은 물론 원주·평창 영월에 이르기까지 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집집마다 퍼져 나갔다. 그리고 마을마다 만세운동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만세운동을 극렬히 변호하고 시국을 이야기하던 사람 가운데에는 일본 앞잡이에게 발각되어 잡혀가기도 했다. 그 중에서 더욱 열렬했던 사람은 감옥살이도 했고, 당시 경성 지방법원 판결문 속에서 횡성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재판 받은 사람의 것이 발견된다.

그 하나는 둔내면 자포곡리에서 잡혀와 5월 9일 재판을 받고 8개월의 징역을 산 이 기순(李奇順)의 것이고, 하나는 공근면 하갈마곡리의 이 유태(李裕泰)의 것이다. (판결문책 제 5책 p.582와 588)

그리고 마을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었기에 횡성 군수와 현병 분견소장은 다음과 같은 비밀 공문을 각 면장과 동장에게 하달하였다.

비 제 15호

대정 8년 4월 15일

횡성 군수

횡성 현병 분견소장

각 면장
각 구장

소요사건에 관한 건 내첩(內牒)

「근시(近時)소요 전과의 상황을 사찰(査察)한 즉, 읍내에는 경비가 엄하여 놀아날 여지가 없음을 보고, 경비가 비교적 허술한 지방에 미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그의 주요한 원인은 타군 타도에서 들어오는 나쁜 무리의 선동과 협박에 의한 것이 많다니 유감스럽다. 그들 나쁜 무리가 귀면 내에 들어와 선동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곧 힘을 모아 포박하여 현병에 넘길 것이며 이것을 관하 일반인에게도 급히 주지시켜 좋은 성과를 올리기 특별 내첩 함」

위의 공문은 당시 영영포리 구장이던 위 창래의 아들 위 성현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橫 城 의 큰 별

橫 城 의 큰 별

1. 거란족을 몰아낸 조충

조충은 아버지 영인(永人) 아들 계순과 더불어 횡성조(橫城趙)씨 문중은 물론 횡성사람으로써 뛰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고려조(高麗祖)를 통해서 문신으로 빼어났고 무신으로 유명했던 그들은 3대가 원수(元帥)를 지냈다가 삼원수(三元帥)라 일컫으며 공근면 상동리(公根面上洞里)에 후손들이 사당을 지어 세덕사라 칭하고 제향을 올리며 한편 이곳지명을 삼원수 골이라 불러내려오고 있다.

조충은 조영인(永人)의 아들로 고려사열전 제 16권에 자(字)는 담약이며 생후 1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어려서 부터 효성이 지극한 효동이었다고 적고 있다.

조충은 고려때 거란유족(契丹遺族)을 막은 대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시호가 문정공(文正公)이며 그의 아버지도 문경공(文景公)이며 아들 계순 또한 광정공(光定公)으로 그들의 생애가 모두 문신(文臣)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조충에 대한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의 서술은 모두 전선에서 쌓은 공적(功績)에 관한 것으로 최(崔)씨 무단정치가 시작되던 최충헌(崔忠獻)의 집권당시로 문신으로서의 활동이 활발치 못하였을 것이고 비록 활발했다 할지라도 감추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정중부(鄭仲夫)의 난 이후 최충헌의 집권까지 숨한 무신(武臣)의 분쟁이 계속되어 마치 문신인 김부식이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묘청(妙淸)의 난을 평정하고 공훈을 차지했던 때와 같은 문신의 횡포는 지양되었을 때이고 보면 보충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상장군(上將軍)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과에 급제하고 문신으로 활약하던 그가 어떤 경로로 무신이 되어 입신출세(立身出世)했는지 알수는 없다. 그러나 문신으로 일했고 전시(戰時)에는 장군(將軍)으로 전선에 몸 바친것을 검토하면 정말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희종(熙宗)때에는 국사대사성한림학사(國字大司成翰林學士)를 역임했으니 학자로서 정통적인 출세길에 들어선 셈이며 그러다가 그가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를 지낸것은 무신의 자리를 맡은 것인데 동북면병마사는 동제의 군정(軍政) 책임자로서 지금의 함남(咸南)과 강원도 동해안의 행정을 주관하는 동시에 동북방면(東北方面) 국방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그후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었으니 예부상서는 문무제를 통틀어 가장 영예스러운 자리로 이와 같이 문무의 자리를 오가며 재질을 발휘하다 고종(高宗) 3년에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학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고 다시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에도 충은 재질이 문무를 겸비하여 특별히 두관직을 주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혹자는 그의 이같은 입신(立身)을 최(崔)씨 정권의 혼잡한 정계(政界)를 틈타서 비정상적으로 출세가도를 달린 인물로 오해할 지 모르나 그것은 전혀 부당하다. 왜냐 하면 최충헌(崔忠獻) 집권시 형제(兄弟)싸움을 기점으로하여 난폭했던 때에 그는 정도(正道)를 지켜 최씨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정중부(鄭仲夫) 경대승(慶大升)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보이고 있던 때였음이 입증된다. 그가 거란족(契丹族)과의 싸움이 끝난뒤 평양(서경:西京)에서 버티면서 최충헌과 한때 맞섰던것도 이를 뒷받침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에 대한 공훈(功勳)을 주는 정도가 소홀하여 맞서게 되었다고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국전란사(東國戰亂史)에 특기되어 있다.

이것이 그가 세도가나 정상배와 결탁하지 않았던 사실을 시사하며 최씨 정권에 야합(野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의 끈은 절개와 충성심(忠誠心)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지성인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웬만하면 세도가에 의탁하고 자신의 철학을 짓밟으며 권위로 군림하는 자에 복종(服從)의 윤리관을 자기것으로 알고 처세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 오늘날 청탁배격이니 부조리 척결 운동이 일고 있음을 불매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충이 고고한 성품과 행동으로 일관할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意志力)이 한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진것으로 식자들은 평가하기도 한다.

그는 거란유족(契丹遺族)의 침입을 맞아 국사상(國史上) 그 공훈(功勳)이 빛나고 있는데 전란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고려는 북진정책(北進政策)을 통해 고구려(高句麗)의 실지(失地)를 되찾으려 했지만 북진정책은 거란(契丹) 여진(女眞) 몽고(蒙古)의 침입 때문에 좌절되고 만다.

중국(中國)에서 몽고족이 일어나 북중국(北中國)을 지배할 때 만주(滿州)지방에서 살고 있던, 거란족이 몽고에 밀려 고려를 침범하였다.

거란유족들은 몽고에 밀려 생존(生存)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강토(江土)를 짓밟는다. 그들의 처지는 나라를 몽고에 빼앗기고 갈곳이 없으니 고려에 정착해야 했고 정착을 위해서는 사력(死力)을 다해 싸워야 했다. 영토확장(領土擴張)이나 정복(征服)을 위한 싸

움이 라면 싸우다 물러날 수도 있지만 실학민인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는 곧 죽음이었으므로 가족까지 동반한 그들의 약탈은 극심하였다. 처음 침입한 때는 고종(高宗) 3년이었는데 평안도(平安道) 방면으로 들어와 평안도는 물론 황해도(黃海道)를 짓밟고 당시 서울이었던 개성(開城)을 피해 철원(鐵原)을 침입하고 양평을 거쳐 원주(原州)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 원주 지방민의 항전은 빛나는 기록으로 9번의 싸움에서 원주를 함락치 못하고 다시 횡성(橫城) 홍천(洪川) 춘천(春川)을 침입(侵入)했다.

당시 춘천은 안양이라 했고 도지사격인 안찰사(按察使)가 있었는데 안찰사 노 주한은 봉의산(鳳巖山) 전투에서 애절하게 전사했다. 춘천을 완전히 점령(占領)한 그들은 원주를 재침(再侵)하여 짓밟다가 고려군에 쫓겨 제천(提川) 영월(寧越) 평창(平昌) 강릉(江陵) 양양을 거쳐 함경도를 지나 여진(女眞)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듯 거란유족의 침입은 강원도 전란에서 특기되는 사건이며 도민의 희생도 많았다. 강릉 사람들은 그들의 만행(蠻行)을 피해 울릉도로 피난가다 풍랑(風浪)을 만나 죽는 비극도 연출해야 했다.

이러한 전쟁중에 충은 사력(死力)을 다해 싸웠으나 승전(勝戰)과 패전(敗戰)의 연속 가운데 한때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파면(罷免)당한 일도 있었다. 그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거란유족(契丹遺族)이 재침한 1218년(高宗: 5년)으로 그는 서북면(西北面) 원수로 임명되어 김취려(金就勵) 정통보(鄭通寶) 오수기등의 장군을 앞세우고 평안도 방면으로 쳐들어 오는 적을 맞아 싸웠다. 거란족은 고종 3년때의 침입처럼 남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충의 탁월한 작전에 말려 침략야욕을 채우지 못하고 강 동성(江東城)으로 도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고려사에서는 재침때, 고종 3년 침입때 처럼 적을 쉽게 막아내지 못한것은 최충현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충현의 첩 자문선이 평안도 백정(白丁)들에게 가혹한 세(稅)를 거둬서 그 백정들이 거란족과 합세(合勢) 했다는 점과 둘째 고려군(高麗軍)이 늙고 힘이없는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이다.

충은 이러한 군대일 망정 김취려(金就勵)등과 함께 잘 싸워 적을 강동성(江東城)에 몰아 넣고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을때 괴변이 일어났는데 몽고(蒙古)가 원조를 핑계삼아 진주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몽고군과 함께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정월(正月)에 그들의 항복을 받아 3년간의 전란이 끝났는데 여기서 조충의 행동(行動)에 두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는 몽고군의 대장 합진과의 담판(談判) 광경인데 주연(酒宴)이 베풀어진 몽고군 진영

에서 술을 무한정하게 잔을 바꾸고 인주는 몽고풍(蒙古風)의 칼에 고기를 찢어 상대방의 입에 넣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주석이었으나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분위기를 제압하여 합진에게 형(兄)의 대우(待遇)를 받고 돌아와 합동작전(合同作戰) 결과 처리의 주도권(主導權)을 쥐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이야기는 국사상(國史上) 유명한 것으로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거란족 왕자(王子)를 비롯하여 지도층은 그 자리에서 처형 했지만 그외의 5만여명은 우리나라 곳곳에 분산시켜 살게 했다. 이같은 용단은 거란족이 몽고의 일파인데도 불구하고 몽고에서 살지 않고 고려에서 살겠다고 애원한 탓도 있겠지만 어제의 적을 한 가족으로 맞아주는 성품 그것이 곧 충의 인간성(人間性)이다. 그가 거란족을 우리나라에서 살게한 계획은 정부(政府)에서도 동의 허락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거란족의 촌이 생겼으니 이른바 거란장(契丹場)이다. 이로써 난을 평정하여 맡겨진 중책을 다했다.

한편 충의 아버지 조영인(趙永仁) 또한 임금울 도와 국사(國事)를 돌보니 세상 여론이 그를 존중했는데 벼슬이 수태위상주국(守太尉上柱國)에 이르고 신종(神宗)이 즉위하여 정책에 공이 있음을 높이 사 개부의 동삼사수태사 문하시랑 평장사(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郎平掌事)의 벼슬을 더했다.

그러나 그는 관직이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노쇠하자 눈이 어두워 정사(政事)를 들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직(官職)을 물러나 낙향 5년후인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시호는 문경공(文景公)이며 신종(神宗)이 그의 위업을 높이여겨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또한 고충의 아들 계순도 이고을이 낳은 뛰어난 인재로 고려조를 통해서 문신으로 빼어났고 무신으로 유명했던 인물로 관지평장사 태자소사(官至平掌事 太子小師)를 지냈다.

2. 순국열사 서예원

서예원(徐禮元)은 이조(李祖)때의 사람으로 그의 본(本)은 이천(利川) 서(徐)씨이며 무과에 등과하여 나주(羅州) 판관을 거쳐 파산·김해(金海)목 부사를 지내고 진주목 부사(府史)에 이르렀다.

그가 진주부사로 부임해 있을때 임진 왜란이 발발했고, 풍신수길(豐神秀吉)이 이끄는 일본군은 당쟁으로 국력이 쇠약하고 기강이 문란했던 조선을 침입 많은 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강토를 유린 마침내 진주성에 당도하였다.

침략한 적들과 대항하는 서부사가 이끄는 관군(官軍) 그리고 성민(城民)들은 성문을 굳게

잡고 싸웠으나 부족한 군사와 장비로는 원제 많은 침략자들과 상대할 수 없는 중과부적이었다. 끝까지 성을 사수하려던 서부사(徐府使)는 마침내 장열히 전사하여 최후를 마쳤으며 남편의 죽음을 본 부인(李)씨도 맨손으로 왜적에 대항하다 순국하였으며 뒤를 따라 장남 계성(繼聖)과 자부(子婦)인 노씨등 일가족과 그를 따르던 노비(奴婢) 김성길(金聖古) 등 여섯명이 그들의 항복 권유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추한 삶보다 나라위한 장엄하고 깨끗한 죽음을 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같은 충정어린 순절은 전가족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으로 볼모로 갈던 사람들이 환국하므로써 밝혀져 숙종(肅宗) 4년에야 알려져 서예원에게 태의명족여관서의 직을 내렸으며 그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橫城郡 公根面 梅谷里)에 1692년(숙종 18년)에 여섯사람의 뜻을 기리는 여섯개의 위패가 모셔진 옥절여를 세우고 서예원이 충절(忠節)과 의열여(義烈女)인 부인등 고결한 일가의 유덕과 한낫 노비에 불과했던 김(金)씨 등의 충성심을 기리게 했다. 옥절여는 그후손들과 뜻있는 유림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고 81년도에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65호로 지정되었다.

3. 도학으로 관공쇄신한 정종영

정종영(鄭宗榮)은 횡성은 물론 도내에서도 따를 사람이 없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선비로 화려한 관직과 경력을 가진 정치가였고 또한 강직하고 곧은 청백리(靑白史)였다.

정종영은 옥당승지(玉堂承旨)와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강원(江原) 평안(平安) 경상(慶尙) 전라(全羅)도 관찰사(觀察史)를 역임했고 6조판서(六曹判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두루 지낸 태백(太白)이 낳은 인물로 당쟁과 을사사화(乙巳土禍) 등 내우외환(內憂外患) 가운데도 자기직분을 다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한 사람이다.

그는 초계 정(鄭)씨로 초계정씨가 자랑삼아 삼는 인물이며 초계 정씨는 도내에 원주(原州) 강릉(江陵) 양양(襄陽) 그리고 횡성 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 이 지방에 초계정씨가 들어 온것은 조선(朝鮮) 초기에 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종영의 할아버지인 정온(鄭溫)에서 부터 조선왕조(朝鮮王祖)의 판계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위(偉)였고 자(字)는 인길(仁吉)이며 호(號)는 승제(恒祭)요 시호는 정헌공으로 1513년(중종 8년 癸酉)에 원주 배말(현 원주시 봉산동)에서 태어나 1589년(선조 22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신도비(神道碑)와 묘소가 횡성군 공근면(公根面) 공근리(公根里)에 있다.

세상을 떠날때는 원성군(原城郡)만종리에 은거할 때로 그해 여름 우찬성(右贊成)에서 물러났을 때니 평생을 관직(官職)에 머물렀고 중종(中宗) 인종(仁宗) 명종(明宗) 선종(宣宗)의 사왕대(四王代)를 한결같이 청렴결백한 충신(忠臣)으로 일관해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무려 100 회에 이르도록 그 이름을 남겼다.

초계정씨의 대과방목(大科榜目)이나 세보(世譜)에 실려 있는 각조(各祖)의 행장(行狀) 신도비문(神道碑文) 시기에는 인종(仁宗) 명종(明宗) 대에 걸친 대윤(大尹): 소윤(小尹)의 싸움인 을사사화나(乙巳士禍) 선조(宣祖)때의 동서당쟁(東西黨爭)의 틈바구니에서 난국을 무난히 극복해 나간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의 김안국(金安國)의 문인(門人)이며 김안국은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서 조광조(趙光祖)와 더불어 정통 사림(士林)인데 김안국의 문인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의 관풍(官風)이 도학(道學)을 펴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은 학문인 동시에 학문을 통하여 경세(經世)하려는 행동철학이다. 도학에 심취했던 그는 모든 일에 한계를 분명히해 국사(國事)를 돌볼때 왕실(王室) 친척들과 휩쓸리지 않았고 언제나 국가관을 뚜렷이 가지고 행동하여 친척간의 싸움인 을사사화(乙巳士禍)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파란을 극복하고 4대왕조에 대해 충성(忠誠)을 다할 수 있었다.

그가 당쟁(黨爭)에 초연할 뿐만 아니라 청렴한 관리였다는 점이 돋보이는데 강직한 문장가에 의해 편찬된 중종실록(中宗實錄)과 명종실록(明宗實錄)에 가담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가 만년에 원주에 은거해 있을때 나라에서 연금(年金)을 보내니 관을 떠난 사람이 녹을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내니 그의 행장(行狀)을 쓴 영의정 심수광(沈守廣)이나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쓴 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가 함께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조정랑 당시 농촌에 유람민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를 놓고 왕(王)앞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을때 그는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실정(失政)을 크게 꾸짖어 듣는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는데서도 그의 강직성을 알 수 있으며 당시는 유명했던 농촌의 굶주림과 농민의 반란이 극심하던 명종대(明宗代)로서 문정왕후와 윤원형(尹元衡)의 집권하에서 감히하기 힘든 직언(直言)중의 직언으로 삼공(三公)이라면 자기의 생명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상관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기 어려운 일로 그는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지방으로 쫓겨나기도 여러번 했다고 실록(實錄)에 적혀있다.

그가 명종(明宗) 때 경상도(慶尙道) 관찰사로 갔을 때 일로 세도가 당당하던 문정왕후(文定王后)와 윤원형(尹元衡)과 맞서 싸운일이 있는데 그이유는 문정왕후의 명을 받은 승려들이 인종(仁宗)의 태봉이 있는 산에서 벌채를 하는 것을 모조리 처단하여 왕후와 정면으로 맞서게 된것이다.

인종(仁宗)은 명종(明宗)의 이복(異腹) 형으로 모두 중종(中宗)의 아들인데 인종은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아들이고 명종은 문정왕후의 아들로써 배후에 윤임(尹任) 윤원형(尹元衡)이 있어 전자를 대륜(大尹)과 후자를 소륜(小尹)이라 부르며 이두파의 대립은 심각하여 결국 대륜파(大尹派)를 숙청한 을사사화(乙巳土禍)로 까지 번졌으며 그후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세가 8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판국에 정중영이 문정왕후를 배경으로 횡포를 일삼는 경상도 안령(安領)을 숙청하였으며 문정왕후의 명으로 인종의 태봉이 있는 산에 나무를 베는 중에 처단하였으니 정계(政界)에 파문을 일으켰고 문정왕후는 중영을 잡아 숙청하려 했지만 성균관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하고 삼사(三司) 즉 사헌부(司憲府) 사헌부 홍문관(弘文館)에서도 성균관의 편을 드니 문정왕후도 끝내 손을 들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문헌에 수록되어 있고 특히 그의 시기에 잘 밝혀져 있는데 시기는 숙종 때 대제학(大提學)과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민목이 썼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행장(行狀)을 심수광(沈守廣)이 신도비문(神道碑文)은 이단하(李端夏)가 썼다는 사실로도 그가 당시의 정계(政界)에 미친 비중은 짐작 할수 있다.

그의 사후 만장중에 대표적인 것은 좌의정 유흥과 한준겸의 것으로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동서분당의 인물이 파쟁을 반대한 인물을 찬양한 점이다. 정철등 예의 인물도 있었지만 양파에서 모두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치적 술수를 모르는 공정한 관리 였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 할수 있는 인품을 지녔던 것이다.

그의 검소하고 근면한 옷차림은 고관의 위풍은 나타내지 않았으며 남의 어깨위에 앉는 것을 싫어해서 가마를 타지 않았다니 계급적 봉건사회의 휴머니티한 귀족이라 하겠다.

을사사화(乙巳土禍)때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인(門下人)이면서 난국을 무사히 넘길수 있었던 것은 을사(乙巳)년이 1545년으로 인종원년(仁宗元年)이며 명종(明宗) 즉 위년으로 명종이 즉위한 후 인종파(仁宗派)를 죽이고 약 5년간 유학자를 숙청했는데 이사건을 을사사화라 하며 이때 33세인 그는 관제(官界) 초기 시절로 당시 처숙인 유권(柳權)이 첫번째로 숙청되고 그에게도 위협이 닥쳤으며 이러한 위협은 문정왕후가 별세한후 윤원형

(尹元衡)이 실각되던 명종 20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마다 관계에서 일지 풀려 나거나 의적으로 쫓겨왔을 뿐 별탈이 없었다. 그 이전에는 정종영과 윤원형에 얽힌 서계(庶系) 인척관계로 정종영의 조부 정윤겸에게 서출(庶出)의 딸로서 난정(蘭貞)이 있었는데 그녀는 첩(妾)의 딸이기에 윤원형의 첩이 되었으며 윤원형집권시 배후인물이 들어 있는데 누이 문정왕후와 첩 난정이었고 난정에게는 생모인 윤겸의 첩 남(南)씨도 생존해 있었으며 이때에 종영이 관계에서 활약하고 있어 명종조(明宗朝)에 숙청되지 않은것으로 심수광(沈守廣)이나 이단하(李端夏)는 천운이었다고 말하지만 서조모(庶祖母)인 남씨(南)나 서고모인 난정의 활약도 컸던것이다.

초계정씨 성포기행록을 보면 을사사화때 팔계군(정종영)이 화를 입게되자 난정에게 우리 증손이 화를 입으면 지하에 가서 어떻게 청계군(정윤겸)을 만나냐고 호소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난정 혹은 남씨의 도움을 받았대서 그들의 집을 출입하며 도움을 청한것은 절대아니다. 그것은 난정의 동복(同腹)오라비 정담(鄭淡)의 행장(行狀) 등을 봐서도 알수 있다.

공사견문(公事見聞)을 인용한 연려실기술의 명종조(明宗祖) 고사본말(故事本末) 윤원형조에 보면 정담이 그누이 난정이 반드시 화근(禍根)이 될것을 짐작하고 소원하게 지내 청탁왕래(請托往來)가 없었으며 "사는집 입구에 꼬불꼬불하게 담을 쌓아 뚜껑이 있는 가마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난정이 가보지 못하였다"고 쓰여져 있는것을 봐도 알수 있다. 그와 같이 윤원형과 친척이라면서도 멀리하였고 윤원형이 몇번이고 손을 잡을것을 청해왔으나 몇번이고 거절했다. 때문에 윤원형 집권 20년간 그가 받아야 했던 고충도 더욱심했는데 명종(明宗) 20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별세와 동시 윤원형이 실각한후 부터 그의 관운도 빛을 받아 중요 요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그가 팔계군으로 봉해진 강원도 관찰사 역임직후인 명종 12년의 일로서 윤원형이 실각되자 그는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관계정리를 담당하고 명종 22년 명(明)나라의 세종(世宗)이 죽으니 진향사(進香使)로 중국을 다녀왔다.

그후 형조(刑曹) 병조(兵曹) 이조 판서(判書)를 역임했는데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간의 이조정랑의 자리를 놓고 동서분당(東西分黨)이 시작되던 때로 심의겸과 김효원을 외직(外職)으로 보내어 수습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결국 이조판서이던 그는 무반(武班)에서 이조정랑 자리에 보하자는 의견까지 제출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이지만 그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동서인(東西人)이 다 불편해했다.

아무튼 정종영(鄭宗榮)은 검박하고 강직한 청백리였기 때문에 사후에는 동서인이 다함께 추모하였고 그가 좌찬성(左贊成)을 내 놓고 관직을 떠날때 선조(宣祖)가 한강에서 송별연을 베풀어 역대에 없는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글을 몇편밖에 찾아볼수 없는 일이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유고(遺稿)를 임진왜란때 소실했다고 하니 정말 아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의 유언(遺言)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후손에게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이 지방에 살고 있으니 지켜졌다고 할수 있겠고 다음은 시문(詩文)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유몽인(柳夢寅)의 어간기(於干記)에 실려 있는데 그것은 유학자로서 시문을 즐기면 도학(道學)을 경솔하기 쉽다는 뜻이라고 하니 사실 시문은 미(美)를 추구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나 선(善)을 추구하는 도덕과 다름을 볼때 그의 고귀한 성품을 엿볼수 있다.

정종영은 인조(仁祖) 16년 무인(戊寅)에 서원면(書院面)에 있는 칠봉서원(七峰書院)에 제향하였다.

원 천석(元天錫) 운곡 원 천석(元天錫)은 고려말 4처사의 한사람으로 고려가 멸망한뒤 안흥면 부곡리에서 은거, 후에 태종이 된 방원(芳遠)이 스승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으나 두 입금을 섬길수 없다며 이곳에서 은거하며 절개를 지켰다.

구 익(具隘 : 1620 ~ 1695) 횡성현감을 지냈고 인조 6년(仁祖 6年 : 1659) 횡성 앞뜰는 천가리를 관과 민이 합심하여 관개시설을 완전하게 하여 수리안 전담화 했다. 이를 기념해 1684년에 교향리에 관개이민 물세불망지비를 세웠다.

한 상열(韓相烈)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 출신으로 구한말 의병대장으로 50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원주, 평창, 강릉지방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안 삼교(安 霽橋) 이조선조(宣祖)때의 사람으로 정계에 몸을 담았다가 어지러운 정치상에 실증을 느끼고 이곳 산간벽지에 은거하며 주민의 아버지와 스승으로써 마을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며 마을을 잘살게 했다. 후에 마을 등산에 장례를 후하게 지냈으며 공부에 지명 이름을 처음 올릴때 그의 이름을 따 삼교 또는 삼다리라고 불렀다.

심 지영(沈志英) 고종(高宗)때의 사람으로 지극한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눈썹인 산속에서 신통님의 가호로 병을 구하거나 인삼을 캐내 병약한 아버지를 간호했고 사후 3년간 시묘살이를 하기도 했다.

안 광근(安光瑾) 둔내면 화동리에 살고 있던 안 광근(安光瑾)은 자는 성윤(聖潤)이며 호는 진계(鎭齊)로 순흥(順興)안씨로 지극한 효자로 그의 효성이 조정에 알려져 광무 20년(光武)정문을 내리고 호조참판(戶曹參判)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증직하였다.

遺 蹟 篇

遺 蹟

1. 유 적

세덕사(世德祠)

- 위치 : 공근면 삼원수 골.

고려조의 3대 원수를 지낸 조영인(趙永人), 충, 계순의 영당을 모신 사당으로 의채와 안채로 되어 있고 봄, 가을로 제향을 올린다.

육절여(六節閣)

- 위치 : 공근면 매곡리
- 규모 : 6 칸
- 지방문화재 65 호

임진란때 진주목사로 있다가 순국한 서예원(徐禮元) 일가 6명의 순절을 기리기 위하여 숙종(肅宗)대왕이 내린 정려문이다.

태기산성지(泰岐山城址)

- 위치 : 청일면 신대리
- 규모 : 축성당시 3653 척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泰岐)가 신라 박혁거세에게 패배하여 몽진하다가 이곳에 성을 쌓고 항전하던 곳으로 지금은 폐허가 되고 잔흔만 남아있다.

태종대

- 위치 : 안흥면 강림리
- 규모 : 비각 1동, 비 1기
-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22 호

이조 태종이 옛스승을 만나러 왔다가 스승 운곡 원천석이 만나주지 않아 그냥 돌아간 것을 기념하여 추필대라는 비석을 세우게 되자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각.

3·1 운동 기념비

- 위치 : 황성읍 읍하리 3·1 공원
- 규모 : 비 1기, 석상 1기.
- 건립년월일 : 1976. 8. 15.

1919년 있었던 황성의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3·1 운동기념비협찬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풍수원 천주교회

- 위치 : 황성군 서원면 유현 3리
- 규모 : 1동
- 건립년월일 : 1890
- 지방문화재 : 제 69호

경강 국도변 서원면 유현 3리에 있는 천주교회로 도내에서는 처음(1890년)으로 전국에서는 4번째로 세운 성자이며 신유박해와 병인, 신미양요를 피하여 천주교들이 이곳에 찾아 들어 마을을 이루고 교회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천주 교회에서 빼 놓을수 없는 성지이다.

네델란드 참전기념비

- 위치 :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
- 규모 : 기념탑 1기, 동상 1기
- 건립년월일 : 1975. 9. 29

6·25 동란시 한국전에 참전하여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한 네델란드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네델란드 군이 가장 훌륭한 전과를 올린 이곳에 국방부 주관으로 건립했다.

M·P 오우덴 중령현충비

- 위치 :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3·1 공원
- 규모 : 비 1기
- 건립년월일 : 1956

6·25 동란시 황성전투(1959. 12. 12 ~ 13)에서 전사한 네델란드 오우덴 중령과 휘하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

매일리 층흔탑

- 위치 :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 규모 : 석탑 1기
- 건립년월일 : 1965. 10. 1

6·25 동란으로 인한 치안유지를 위해 이곳 젊은이들이 의용경찰을 조직 경찰과 함께 향토수호에 힘쓰다. 패주하는 북괴군과 교전하다가 전원이 중과부적으로 순절하여 이를 기념하여 갑천면민의 힘으로 세웠다.

읍하리 석불 3층석탑

- 위치 : 횡성읍 읍하리 3·1 공원
- 규모 : 석불 1구, 3층탑 1기,
- 지방문화재 22, 23 호

공근면 상동리에 있던 석불과 석탑으로 일제시대에 옮겨 왔으나 고려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중금리 3층석탑

- 위치 :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 규모 : 석탑 2기
- 지방문화재 제 19 호

신라시대 거찰지의 사탑으로 동서 양탑으로 되어 있으며 신라중기 작품으로 4우의 8부신상(八部神像)이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상동리 석불, 석탑

- 위치 : 공근면 상동리
- 규모 : 석불 1구, 석탑 1기.
- 지방문화재 20, 21 호

성덕사지에 있는 석탑과 석불로 신라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적은 편이다.

용운사지 석불, 석탑

- 위치 : 서원면 압곡리 ^{2리 용운}
- 규모 : 석불 1구. 석탑 1기.
- 지방문화재 42,43 호

용운사지에 있는 3층석탑과 석불로 신라시대의 작품이며 사찰은 고려초기의 수해로 매몰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신대리 3층석탑

- 위치 : 청일면 신대리
- 규모 : 3층탑 1기
- 지방문화재 60 호

신라 자장율사가 봉부사(鳳腹寺)를 창건하면서 이곳에 세웠다고 하는데 원래 5층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3층만이 남아 있다.

소사리 선정비

- 위치 : 안흥면 소사리
- 규모 : 비 1기

이마을이 명주현에 속했을때 가혹한 부세로 살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준 정모현감의 뜻을 기리는 애민선정비로 년대는 불상이다.

운암정

- 위치 : 횡성읍 읍하리
- 규모 : 1동
-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23 호

1937년 이원식, 김환갑, 양씨가 자수성가한 것을 기념하여 회갑을 맞아 건립하고 양인의 호에서 한자씩 따서 운암정이라고 했다.

충훈탑

- 위치 : 횡성읍 읍하리 3·1 공원

○ 규모 : 탑 1기

○ 건립년월일 1968. 6. 6.

6·25 동란중 반공정선에서 희생한 이고장 군경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했으며 매해 현충일 행사를 이곳에서 갖는다.

침원각

○ 위치 : 공군면 부창리

○ 규모 : 1동

공군면 부창리에서 살았던 효자 유봉수(柳鳳秀)의 효행을 기리 남기기 위해 주민들이 세웠다.

화동리 효자문

○ 위치 : 둔내면 화동리

○ 규모 : 1동

효자 안광근의 효행을 빛내기 위하여 광무 26년 6월 3일 조정에서 정려문을 내려 그 이름을 길이 빛내게 했다.

월현리 의병총

○ 위치 : 안흥면 월현리

○ 수량 : 5기

구한말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이름없이 순국한 5명의 분묘가 있다.

2. 문화재 현황

지정별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적(수량)	지정년월일
추연기념물		248	암곡리 백로뫎 왜가리 번식지	횡성 서원 암곡186-2	1개소	77.10.1
지방문화재		19	중금리 3층 석탑	횡성 갑천 중금484	2기	77.12.12

지정별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적 (수량)	지정 년월일
		20	상동리 석불좌상	횡성 공근 상동 495-9	1 구	77.12.16
		21	상동리 3층 석탑	횡성 공근 상동 495-9	1 기	77.12.16
		22	읍하리 석불좌상	횡성 횡성 읍하 40	1 구	77.12.16
		23	읍하리 3층 석탑	횡성 횡성 읍하 40	1 기	77.12.16
		42	용운사지 석조미노사나 불좌상	횡성 서원 압곡	1 구	73. 7.31
		43	용운사지 3층 석탑	횡성 서원 압곡	1 기	73. 7.31
		60	신대리 3층 석탑	횡성 청일 신대	1 기	79. 6. 1
		65	육절여	횡성 공근 매곡	1 동	81. 6.31
		69	풍수원 천주교회	횡성 서원 유현	1 동	82.11. 3
지정외문화재		23	태종대	횡성 안흥 강림리	1 동	75. 2
		24	운암정	횡성 횡성 읍하리	1 동	75. 2

참고문헌

「횡성군지」 「횡성향교지」 「횡성과 3·1 운동」 「동국여지승람」 향토의 건설
「연려실기술」 「강원도지」 「고려사 열전」 「태백문화총서 1~15」 「문화재총람」 기타

民 謠 篇

✽ 민요 ✽

미 나 리 타 령

천하지대본은
농사한철 지어보세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고 병들면 못하나니

예전에 순임금은
농사지어
부모공양 하신고로
천하지대본은 농사로다.

농사한철 잘못하면
억조창생 배굶는다
농사한철 힘써지어
나라에 봉공하고
부모에 효도하세

시화연풍 좋기로는
우리마을 영화로다.
오실토실 익은곡식
동산밭에 춤을추네.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되네

진개맹개 오야미들에서
갱피훤는 저 여자야
갱피훤기 마다더니

삼산은 반락 청천이 위요하니
이수증분 백로주요
이태백이 노는데라

춘초는 연연 녹이요
왕손은 귀불귀라.

※ 민요 ※

시 집 살 이 노 래

1

사촌형님 다시보자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가

시집살이 좋다만은
어려운것 많고많아
시집삼년 살고보니

행주치마 쪽반으로
눈물כות물 씻고나니
다해지고 흔적없네

2

작은애기 점심해라
무삼쌀로 하라는가
외비잡쌀로 하라으나
무슨찬을 하라는가

우리오빠 남은고기
적은고기 지저놓고
굵은고기 구워놓고
어라가라 물러가라.

부 음 요 (訃 謠)

하늘잡아 배틀놓고
구름잡아 잉애걸고
잉애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독신이다.

황경나무 바디집에
대추나무 여리복에
직곡직곡 치 짜더니
콩콩개가 콩콩짓네

문틈으로 손 내밀어
왼손으로 덩석받아
두손으로 펼쳐보니
부모죽은 부고일세

비녀빼여 띠에꽂고
당기끌러 남애걸고
달이끌러 품에 품고
머리풀어 산발하고

한모퉁이 돌아서니
관짜는 소리 귀에쟁쟁
한모퉁이 돌아서니
아홉형제 우는소리

한모퉁이 돌아서니
행상소리 귀에쟁쟁
한모퉁이 돌아서니
수건대가 앞을섰고

한모퉁이 돌아서니
명정대가 다음섰네
한모퉁이 돌아서니
부모상여 완연하다.

앞에가는 큰오빠야
삼여를 들락발에 놓지말고
평지밭에 놓아주게
부모얼굴 다시보세

에라요년 네까짓게 자식이냐
자식이면 엇그적게
까막까치 짓을적에
와서보지 인제왔나

형님방에 들어가지
설게울음 치트리고
어머님방에 들어가니
취도감감 새도감감

어머님 깔던 자리깔고
어머님 덮던 이불 덮고
어머님 베던 베개베고
밤새도록 울고나니

눈물솟아 소가되고
한숨지어 바람되네.

우리형님 질쌘종메야
수건한개 내모르고

우리오빠 글 좋은데
편지한장 왜 못했노.

❁ 민요 ❁

연 잎 댕 잎

조개피는 조개가고
장개피는 장개가고
연화로다 연화로다
연화꽃을 꺾어들고

주걱문을 펼덕여니
어머니는 연잎이요
아버지는 댕잎이요
연잎댕잎 쓰러지면

어머니도 저승가고
아버지도 저승가고
너의형제 우찌사나

우리형제 죽거들랑
뒷산에도 묻지말고
앞산에도 묻지말라

고개고개 넘어가다
가시밭에 묻어주게

가지라는 다따먹고
섬홀라는 길렀다가
장인장모 오시거든
오양간에 들이매고

귀뚜라미 잡아넣고
폭폭삼아 주려므나.

✻ 민요 ✻

자 장 가

세상세상 서울로
불 붙이러 갔다가
다리목에 짚단하나드니
밤 한톨 있거든

통 노구에 삶아서
조리에 건져내어
삼태기로 담아서
고무탁에 치뜨렸더니

머리감은 새암취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다만한톨 남았거든
점테기는 아비주고
보므리는 어미주고
알은 너하고 나하고
단들이서 논아먹자
달강 달강

文化院에 바란 다

南宮 銑

橫城文化院의 활성화에 발맞춰 「文化院誌」를 창간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문예지를 통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郷土文化를 증흥하고 文化暢達에 기여하는 觸媒가 되어 줄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동안 橫城文化院은 당국의 文藝振興 시책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지역여건 때문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군민 모두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뜻있는 일부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각오로 재출발하게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믿어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5공화국이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敎育革新과 文化暢達을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지역 문화사업 촉진에 문화원이 큰책임을 맡아야 하겠으며 스스로 그 몫을 다하도록 노력을 배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찌기 과학과 문명이 뛰어났던 민족과 국가는 한때 융성하지만 곧 몰락했지만 문화와 예술이 뛰어난 민족은 어떠한 시련과 난관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고 그맥을 이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찬란한 전통문화를 민족혼 속에 간직하며 만만년 역사를 가꾸어온 자랑스러운 나라요. 오늘에 사는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예술은 한나라 상징이며 힘이며 민족정신의 보고입니다.

현대화 가정에서 물질문명 만능 세대로 소홀해 온 문화를 증흥발전시켜나가는데 회원들은 주역이란 긍지를 가지고 문예지 발간을 비롯해 향토문화와 전통예술의 발굴 보급, 2세교육을 위한 도서관사업 문학, 음악, 미술등 창작 활동과 건전오락 및 여가선용 유도등 앞으로 하여야 할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급하다하여 한꺼번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쉽고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해나감으로서 뜻한바 있는 모든 일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횡성문화원이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문화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傳 說 篇

고려시대에 황장군 또는 황장사라는 사람이 황성을 마산리에 살고 있었다.

황장사의 힘은 주먹으로 황소를 잡을 수 있는가하면 호랑이와 싸워 이길수있는 힘을 가졌고 마을사람 백여명과 즐다리기를 해도 나막신 뒤꿈치가 조금 들릴 정도였다니 황장사의 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힘이 이같이 장사이지만 그가 아끼는 용마라 이름지은 말을 한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말을 낮이면 풀 베어다 먹이고 틈틈이 말을 타면서 혼자서 전투훈련을 하였다. 때가오면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워 보자는 뜻을 가지고 살았다.

날마다 활쏘기와 칼쓰기 그리고 말 달리기 훈련을 계속하였다.

황장사는 언젠가는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일념에서 마을 청년들과 전투훈련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활솜씨와 칼솜씨가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용마를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용마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날마다 말을 타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말달리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의 장군이 되려면 활과 칼도 잘 써야겠지만 말도 잘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의 훈련을 무섭게 시켰다.

그는 이 용마의 달리기 시험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말달리기 시험에 이런 것이 있다.

그는 홀로사는 누이에게 아침밥을 지으라고 하고는 용마를 달려 서남동고개를 넘어서 마을을 한바퀴 돌아와서 부엌에 그 밥이 끓지 않으면 말에게 먹이도 주지않고 마당가 배나무에 말을 묶어 놓고 주먹으로 말을 때려 혼을 내어 주었고 말은 식식거리면서 빨리 달리지 못한것을 누우침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맞고 있었다.

그러면 황장사는 말이 누우침것으로 믿고 먹이를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동안에 이 용마도 황장사와 정이들어 말도 잘듣고 날이갈수록 실수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대로 힘껏달렸다.

그러자 황장사는 용마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로하고 남산에서 말미쪽을 향하여 활을쏘고 말을 달려 그 화살이 목표지점에 도착하기전에 말이 먼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마의 목을 베이

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적어도 용마라면 또 장군의 말이려면 화살보다도 빠르게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용마라는 이름을 이 말에게 줄수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용마에대한 최후의 실험을 하기로하고 만일 이 실험에서 말이 지면 다른말을 구하여 다시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장군에 훌륭한 말을 갖고싶은 생각으로 아끼던 말에 대한 실험을 하기로 하였다.

맑고 밝은 어느 가을날 아침 남산으로 용마를 타고 서서히 올라갔다. 그는 활을 들어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본 다음 말에게 외쳤다.

“내 이 활을 쏠 것이니 저 앞 표적에 화살보다 네가 먼저 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너는 이 칼에 죽을지니라.”

하고 칼을 번뜩이며 말앞에 칼날을 보이자 용마도 알아들었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비장한 마음을 먹고 말 잔등에 올랐다. 그리고 몇해를 애지중지 키우고 훈련시켜온 용마를 오늘 아침에 목을 베인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장군의 말로 키울것인가 마음은 설레이었다. 그러나 장군의 한마디가 헛되어서는 전쟁터에서 적군을 무찌르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활을 힘껏당겨 화살을 놓았다. 그리고는 용마에게 채찍을 들었다.

말은 “엥헤헤—” 소리를 치면서 달렸다. 말은 달려 목표지점에 도착하였으나 화살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않았다. 그는 화살이 먼저와서 땅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용마의 목을 치면서,

“굶벵이 같은 놈. 난 너를 지금까지 애지중지 먹여 키워거늘”

하며 목을 치니 말목이 발 밑에 뒹군다. 이때 화살 한개가 “획—”바람을 일으키며 표적에 꽂히지 않는가.

용마의 발걸음이 훨씬 먼저였던 것이다.

‘황 장사는 내가 너무 성급 했구나’ 하는 뉘우침이었으나 두 동강난 말은 피를 내 뿜고 있었다.

그는 숨진 용마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며 후회 했으나 말은 살아날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용마의 시체옆에서 울기만 하다가 얼마후 그자리에 용마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칼쓰고, 활쏘는 훈련은 하지않고 3년간 용마의 무덤옆에서 시묘를 하였다고 한다.

단, 하나의 혈육인 누이가 말을 다시 구하여 훈련하면 되지않느냐고 달래어도 듣지않고는 “나의 실수로 용마를 죽였으니 나는 장군이 될 그릇이 못되는 인물이 못된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다. 이런말을 어디서 구하겠는가 하면서 말없는 장군은 날개
잃은 새와 같다고 생각하고 활을 꺾고 용마에 대한 속죄로 용마의 무덤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후 누이동생이 해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상제의 모습으로 이 마을을 떠났다. 지금도 이 고
장사람들은 이곳 마산리(馬山里)를 말미(馬墓)라 부른다.

핑(꽁) 골

공근면 창봉리에 있는 오음산(五音山)에는 옛날 5 가지 소리만을 내는 산이라하여 五音山이라 불렀는데 모녀의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전설이 담겨있다.

이 五音山에는 큰 골짜기가 다섯개 있는데 골짜기마다 산 짐승들이 따로따로 모여 살아담니다.

여우, 까마귀, 핑, 살팽이, 산돼지들이 한 골짜기마다 점령하고 살면서 다른 짐승들이 자기네 골짜기에 들어오면 잡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까마귀골에 못가고 핑은 살팽이골에 가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기슭 산돼지들이 사는 골짜기에는 말 못하는 어머니와 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이 극진하고 착하여 아랫마을 사람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딸은 말 못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시간이 나면 마당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밤이면 넘적한 돌에다 솟으로 그려가며 그 날에 있었던일을 이야기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병어리와 대화하는 手話方法과 비슷했지요.

집안이 가난하여 논밭도없이 화전에 곡식을 심어먹고 살아가나 배부르게 먹지 못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마을사람들은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말 못하는 어머니와 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름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이웃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되니 자연 이름이 필요하여 마을사람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정이는 열대여섯이 되면서 아랫마을로 다니며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밭매기, 빨래하기등을 하면서 품삯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아침 날개를 다친 핑 두마리가 뛰어오더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정이는 문을 닫고 핑을 잡아 살펴보니 하나는 날개가 붙어졌고 하나는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멧돼지골에 다른 짐승이 나타나면 멧돼지가 잡아치우는 이 골짜기에 핑이 나타났으니 큰 일이었습니다.

모녀는 이 사실을 산돼지들이 알아차릴까봐 문을 잠그고 꿩들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산돼지들이 안다면 정이네 집을 부수고 꿩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꿩을 살려 주려다는 집을 산돼지들에게 부수키고 쫓겨날 일이었습니다.

모녀는 다친 꿩을 살려주려고 여러가지 약을 구하려했으나 좋은 약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꿩의 상처는 점점 더해가고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어머니는 어릴때 보았던 생각이 나서 뒷산에가서 송진을 떼어다 가루를 만들어 발라주었습니다. 송진가루를 바른 꿩은 차차 아물어갔습니다. 열흘쯤 지나서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동안 정이는 콩, 옥수수를 먹이고 어머니는 간호하여 꿩을 완쾌는 시켰으나 꿩을 산돼지들에게 들키지않게 살려보낼수가 없었습니다. 집부근에는 산돼지들이 우글거리고있어 꿩을 집밖에 가지고 나갔다가 산돼지들에게 들키면 꿩도 죽을뿐 아니라 사람도 죽을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던 끝에 어느 여름날 밤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모녀는 꿩을 이불에 싸서 동구밖으로 가지고가서 살펴보내기로 했습니다.

동구밖을 나가면서 산돼지떼를 몇번 만났으나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럴때마다 모녀는 식은땀이 흐르고 간이 콩알만큼이나 해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칠혹같은 밖에 돌부리를 차며 동구밖을 나와 꿩을 살펴보냈습니다.

꿩들은 모녀에게 고맙다는듯 부리로 옷깃을 두어번 쪼아 주고는 어둠밤을 날아갔습니다.

모녀는 집으로 돌아와 꿩을 무사히 살려준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은 맑게 개었습니다.

정이는 품팔이 나가고 어머니는 어젯밤 꿩을 싸가지고 갔던 흠뻑젖은 이불을 햇빛에 말리려고 앞마당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이때 꿩의 깃털이 이불에 붙어있고 꿩의 냄새가 났는지 산돼지 십여마리가 몰려와 정이네 집기둥을 주둥이로 파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병어리여서 소리도 못질러 이웃사람이와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칼과 낫으로 대항하려다 그만 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병이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앓고있었습니다. 정이는 사방 돌아다니며 약을 구해서 달여들여오나 점점 병은 더해만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것인지 정이는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정성껏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깜짝 잠이들었습니다. 꿩 두마리가 나타나 정이에게 수없이 절을하며 살려주어 고맙다면서 우리를 살려주다가 어머니의 병까지 나셨으니

이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좋으나면서 어머니약을 저쪽 앞밭 뽕나무 밑에 놓았으니 가져다 드리라고 하기에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정이는 하도 꿈이 신기하여 가보니 이상한 뿌리같은 것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와서 달여 드리니 3일만에 아주 깨끗이 병이 나았습니다.

모녀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꿩을 놓아준 향해 수없이 절을하고 고맙다고 빌었습니다.

그날밤 모녀의 꿈에 또 두마리의 꿩이 나타나 하는말이 우리를 살려준 은혜 무엇으로 갚아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찾아와 인사드리려도 산돼지들이 또 해치려 덤빌것이니 못 온다면서 내일아침 뒷산을 넘으면 살꿩이 골짜기요. 또 넘으면 여우골인데 그 골짜기를 넘으면 산골짜크 큰 참나무 밑 아래넝쿨 아래서 우리가 기다릴것이니 그곳까지만 오시면 우리가 안내하겠다고 하기에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모녀는 꿩의 말대로 아침을 먹고 산을 넘고넘어 가보니 꿩 두마리가 반겨주면서 앞에서 쫓르르 가기에 따라서 가니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꿩이 들어갔습니다.

두 모녀가 오는것을 본 꿩떼들이 수백마리모여 훨훨날며 "꿩-꿩-" 울면서 반겨 주었습니다. 모녀가 방을 살펴보니 방안에는 벼싹과 잡곡이 그득하였습니다. 모녀는 신기하여 두리번거리며 살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꿩이 하는말이 할머니께서 살려주신 꿩은 우리 골짜기에 대장꿩으로서 그날 식구들을 살피러 나갔다가 살꿩이를 만나 날아서 쫓겨온다는 것이 그만 방향을 잘못잡아 산돼지 골짜기에 가서 죽을뻔한 것을 할머니가 살려주었으며 우리는 할머니의 은혜를 갚기위하여 그동안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집을짓고 또 지난 가을에는 논밭에 다니며 곡식을 주어다 모았으니 여기 이 집에서 이 곡식으로 우리와 같이 살아 주기를 바란다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곳 양지바른 곳에는 두 모녀가 터전을 잡고 살기시작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꿩이 은혜를 갚은 골짜기라하여 꿩골(꿩골짜기)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양지바른 골짜기에는 겨울철이면 수십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고 있으며 꿩사냥 하려면 꿩골로 가라는 말이 이 마을에 전해진다.

特 報

橫城 文化院의 基本事業

金 鼎 基

우리 文化院이 앞으로 해야할 基本事業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傳統文化의 繼承이고 둘째는 우리 橫城이라는 고장을 土台로 한 固有文化의 啓發과 開發입니다.

이제 傳統文化에 對해 말씀드리면 傳統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財物로서 사거나 팔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點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祖上들이 이고장 橫城에 발을 붙였으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무슨 일에 從事해 왔으며 무엇을 생각하여 생각의 버릇(理念)을 키우고 그 理念은 옳은것에 얼마나 誠實함으로써 傳統을 定立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대에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探究한 後에 이 傳統을 繼承 發展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傳統을 말이나 글로서 만들어진 傳統文化로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使命인 것입니다.

우리의 傳統文化란 불란서의 革命(나폴레옹)當時 極히 一部의 知識인들이 革命의 當爲姓을 부르짖다가 勢不利해지자 다시 王政復舊를 力說한 前例라던가 美國獨立戰爭當時 一部 美國의 知識인들이 걸으로는 獨立을 主張하면서도 안으로는 英國과 內通하면서 英國王室과 손잡고 相通했다거나…… 러시아 革命때에 한발은 볼셰비키에나 멘세비키에 딛고 다른 한발은 로마노 王朝에 걸치고 있었던 流의 것이 아니며 걸으로는 橫城을 愛鄉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自己의 生色이 안나든가 自己의 利益과 無關한 일에는 말을 빼려는 二重的이 아니며 繼絕된 文化가 아니라 橫城과 더불어 기리 기리 남을 傳統文化를 啓發함에 目的이 있어야 되겠음을 強調합니다. 그야말로 純粹해야 되겠고 哲學이 깃든 傳統文化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爲해 鄉土遺跡(遺蹟도包含)寫眞展示會를 每年 한번 以上씩 文化院 展示場에서 열어 우리들과 다음世代가 보고 느끼고 배우게 하겠습니다. 또한 民俗資料 展示會도 가질 豫定이며 遺跡이나 遺物의 探查씨들도 組織 隨時로 活動하게 勸奨할것입니다.

다음은 우리固有의 傳說과 古事(遺蹟)의 研究도 해볼까 합니다. 卽 公根面 水白里에 있는 閑山李氏의 列女 정문에 對한 貞節을 살펴 본다면 橫城邑 馬山里 所在 말미 (馬 墓)에 얽힌 傳說 이밖에도 왜정하에서 日帝에 抗拒 3·1 萬歲에 얽힌 無名의 愛國志士等을 살피으로써 숨은 眞實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고장 祖上들이나 先覺者들이 간직했던 愛國愛鄉心 習慣 孝道愛隣思想 이 모든것들을 찾아내어 우리의 傳統文化로 繼承발전시켜 나가

게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固有의 文化를 啓發하고 開發한다는 點입니다. 現代는 無限의 可能性을 附與하고 있으며 다음世代는 無限한 發展을 強要받고 있습니다.

이 可能性을 實踐으로 옮기는것이 가장 貴重한 使命입니다. 이 使命의 達成은 우선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알기 爲해서는 讀書가 가장 重要합니다. 이웃인 原州市와 洪川郡에는 圖書館을 兼한 讀書室이 있어 學生과 靑少年들이 熱心히 冊을 읽고 있는데 우리 橫城에는 讀書室도 圖書館도 없습니다. 우리 世代는 깊이 反省할 點이 많습니다. 韓末에 外國先進의 文物을 받아드리지 못했기에 애정의 苦痛을 맛보았으며 우리고장 橫城에도 讀書室이나 圖書館이 없었기에 頭惱송고 試驗에 잘 붙는 우수한 橫城人物 排出이 斷絶되었고 教授의 資源이 枯渴되어버린것입니다. 우리는 이點을 명심해서 現在의 文化院 2層에 圖書館을 兼한 讀書室을 마련할것 입니다. 남이 먼저 읽고 깨달은 글을 읽고 연구해서 텅빈 頭惱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일이 있습니다. 글을 몇줄 더 읽었다거나 冊을 몇권 더 보았다고 해서 훌륭한 人格을 갖추는것은 決코 아닙니다. 活字를 많이 읽고 記憶을 많이 하고 말을 잘 하는사람은 知識人은 될지언정 知性人은 아니라는 點입니다. 우리는 知識人보다 知性人을 길러 키워야겠습니다. 知識人이란 머리에 들은것이나 남보다 더 아는것을 바로 使用치 못하는 部類도 섞일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中國의 春秋戰國時代에 진시황이 中國을 統一한後 醫學 卜學 樹種學 등의 書籍을 남기고 以外에 冊을 불태우고 權力에 附하거나 今日的 談論과 어제의 主張이 그리고 來日의 理論이 다르게 表現하는 部類의 知識人들을 한구덩이에 끌어넣고 묻어버린 경우서에 해당하는 知識人들이야말로 非知性人에 屬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知識人이 안되기 爲해서 글을 바로 消化하여 人格을 갖춘 知性人으로 養成하기 위해서 讀後感發表會도 갖고 良書의 求讀과 先賢先學者들의 思想과 理念 그리고 哲學을 研究하고 後世에 나라와 이고장을 걸머질 젊은 知性을 기르겠으며 그리하여 橫城이 어떤 人物이 났으며 어떤 業績을 남긴것임을 나라와 世界萬邦에 알릴것입니다. 그리하여 不義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非理를 排拓하고 군센 삶을 누리는 젊음의 養成에 매진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不正과 非理를 보고 이를 指摘하고 是正을 要求할줄 알며 이를 實踐하는데 앞장설줄 아는 셋파란 知性人을 기르는데 정성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25時의 作家 「게오르규」는 時計를 찬 現代人들이 時間을 잘모르는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知識人은 있으나 知性人이 없음을 말함이었습니다. 「그리스」의 哲人 「디오제니스」가 白晝에 햇불을 들고 「아테네」市街를 돌며 찾아내려던 知性人을 우리 橫城에서만이라

도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이 知性人의 양성이야말로 橫城固有의 文化의 開發이라 믿으면서 建全歌謠競演大會를 비롯한 무용競演大會 寫生大會 慈母 글짓기大會도 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童話大會와 老人詩調競唱大會와 初中高等學校의 白日場 및 主婦白日場도 열 計劃입니다. 揮大會와 文學의 밤도 開催하고 農村文化의 啓發과 情諸의 涵양을 爲해 郷土文化祭도年一回 開催하며 反共思想양양을 爲한 反共포스타 展示會도 6·25를 前後해서 每年 開催예정입니다. 한便 大學教授를 비롯한 著名人士를 招請하는 時局講演會와 其他 講師들의 招請講演等 연극 活動을 통한 살아있는 知識을 받아 들여 우리의 산 知識을 키워가며 老人學校運營을 통한 敬老思想을 涵양하며 父母님에 對한 孝道의 길을 터나가는데 애쓸것을 約束드립니다.

「횡성」-「가스텔」 자매결연

홍재욱

횡성군이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스텔시는 한국동란시 U·N군의 일환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횡성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1951년 12월 12-13일)한 고 MP 에이덴 오우덴 중령의 고향으로 인구 2만 여명이 사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축산과 화훼가 주업이며 낙농 및 축산가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델란드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일찌기 「하멜 표류기」를 써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처음으로 유럽에 알라 하멜이 바로 네델란드 사람이다. 하멜은 1653년에 일본서 출발 표류 제주도 66년까지 억류되었다가 탈출 본주에 가서 68년에 조선국기와 하멜 표류기를 낸바있다.

아무튼 이같이 깊은 여조를 가지고 있는 韓一和 관계는 한국동란시 참전으로 더욱 공고히 될수 있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침선전투에서 그들은 많은 희생을 무릅쓰며 자유수호에 최선을 다했다. 네델란드군은 해군이 50. 7.16~55. 5. 15까지 6개함대가 해전에 참전했고 육군은 50. 11. 23~54. 12. 15까지 횡성 홍천 원주 양구 금화등 전투에 참전하여 모두 768명이 고귀한 희생을 한바있다.

그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위하여 56.10.12일 지금의 3·1공원에 오우덴 중령의 흉혼비를 세우고 다시 75. 9.29일 우천 새말 인터체인지에 「네델란드 참전기념비」를 세웠으며 이 비의 제막식 석상에서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체결의 날이되게 되었고 이듬해인 76년 10월 30일을 가스텔시에서는 「한국의 날로」 우리 군에서는 「네델란드 가스텔시의 날」로 정해 자매결연 행사를 거행하므로써 양국 도시간의 자매의 정을 다지게 되었다.

아무튼 이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는 아무 댓가 없이 오직 자유를 위해 숨겨진 위대한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보답하게 되었으며 피로 맺은 맹방으로서의 상호교류와 양도시간의 친목 및 상호발전에 기여하게 된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미 30년전의 일로서 오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된 동기가 된것은 심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76년 자매결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양도시에서 거행된 자매결연 행사와 영화 및 스

라이프를 교류 아동미술, 교환 전시 및 서신교환등을 통해 자매결연의 우의를 한결 성숙하게 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와 횡성군내의 전적기념물을 찾는 네델란드 방문단에게 우리군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것은 값진일로 79년도에 본군을 방문한 한규진 참전용사들중「오우덴 중령과 본군 전투에서 싸우다 부상한 상이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감회는 우리들에게 뼈아픈 전쟁의 상처의 아픔과 또한 50년대에 무기력한 국력으로 전쟁을 당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 까지 희생하게된 죄책감과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어야 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자매결연 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과 같이 체험한 아픔을 함께 느꼈던 것처럼 뜨거운 형제애를 느낄수 있도록 외형만 화려하고 겉으로는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유대에서 이제 좀더 깊고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계기가 되어야 겠다.

매년 한바의 결연기념식(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병행)과 그리고 몇번의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환영과 「주한 네델란드 대사관 방문」의 극히 소극적이인 활동이 아니라 자매결연 첫해에 있었던 “사진, 그림 교환 전시” “서신교환” “각종 문화사업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깊이 자성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카스텔시를 얼마나 알고 있고 카스텔시는 또한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수가 없으며 우리고장을 찾은 네델란드 인처럼 화란에가는 한국인이 카스텔시와「오우덴」중령의 생가나 미망인은 찾아 보거나 아니 그 회생을 얼마나 아는지 자못 궁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제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결연 성과를 거울 삼아 자매결연의 뜻과 의의를 더욱 훌륭하게 승화시켜 나갈것을 바라는 바이다.

향토지 발간 방향에 대하여

김 정 응

<서 언(序言)>

우리가 항상 자랑으로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歷史)요 전통이며 그속에서 꽃핀 민족문화(民族文化)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창한 구호만큼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알지못하고 또 아끼거나 보장하고 있지도 않다. 마치 우리의 과거사가 그 천년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불필요한 역사의 부산물쯤 생각하고 있을 부류(部類)가 있을 진대 항상 알고 갖추어야 한 향토사와 향토의 이야기쯤은 모두의 관심 밖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이상 향사(鄉士)에 대한 방관을 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 될때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온 얼과 슬기는 역사책에 사장(死藏)될뿐 후세에 영원히 그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을 없애고 향토사를 일깨우고 길이 남기기 위하여 년초에 황성군 당국에서 「황성의 맥」이란 향토지를 펴낸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으로 향토사에 채록(採錄) 보존(保存)에 대한 의무가 다한것은 아니라고 본다.

<황성의 맥을 보고>

1967 년도에 교육청 주관으로 군지를 만들었고 그후 이렇다할 군지는 커녕 안내 팸프렛 하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향토지 발간은 낙후된 향토문화에 하나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起爆)가 될것을 믿는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5천년을 내려온—중에서 얼마나 함축성 있게 담았는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얼마나 그 깊이가 진실되게 다루어 졌는가 이다.

둘째, 편이 주도한 향토지 편집으로 밝은 것만 강조되고 어두운 것은 하나없이 감추어졌고 내용도 너무 도식적이었다.

셋째, 무리한 출간이다. 원고수집 편집제책등 모든 과정이 당국의 획기적인 추진으로 전

문가나 문필가의 손이 닿지 못했다는 것이다.

넷째, 단순하게 향토사만 다루었으므로 군(郡)의 전부를 소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대사와 현대사는 물론 문화(文化)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교육(教育) 산업(産業) 등의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어야 하며 따라서 군지로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끝으로 군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다. 범군민적으로 참여하고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 각분야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채집(採集)되고 정선되어 수록 되어야 했을텐데 거의 전군민들의 무관심속에서 행정주도 형으로 이루어진 듯한 인상이 씻을수 없는것 또한 아쉬움이 아닐수 없다.

물론 모든 여건상 피치 못한 사정에의하여 이러한 점을 수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같이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그같은 책을 만들어 향토사를 우리모두가 읽고 배우고 느낄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고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향토사를 재 발전하고 정립(定立)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

앞서 나열한바와 같은 미숙(未熟)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 문제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가 발간하고자 하는 향토지는 문화원이든 아니면 제 3의 단계든 간에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편집해야 한다.

예를들어 "군지 편찬위원회" "향토지 편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안에 지도층 인사들보다는 전문가나 관심을 가지고 직접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선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체계있는 자료조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편제(編制)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 안에 국한된 자료를 수집하여 한편의 책을 만들기 보다는 많은 시간을 두고 향토의 영광(榮光)된 이야기보다는 애환과 암울이 서린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현대에 알맞게 재조명하여야 한다.

기획과 편집, 자료 수집과 아울러 앞서 말한 위원회에서 기능별로 현지답사 고증자료(고문헌추적등) 조사 사진촬영 필진등이 맡아서 하고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심의에 부쳐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방대한 자료와 내용의 수집은 향토지 뿐만 아니라 근대사와 현대사를 비롯해 향토문화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내용을 담는 군지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서는 우리를 알고 자랑할만한 군지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아닐수가 없다. 우리 보다 연조가 짧은 신흥도시에서는 시지를 격년 또는 매년 발간하고 도내의 우리보다 여건이 못한 군에서도 군지를 발간하고 있는것을 볼때 우리에게서는 군지가 없다는 것은 향토인 모두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발간될 향토지는 군지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정예된 필자에 의한 완벽한 책의 출간이다. "횡성의 맥" 이 어려운 여건에서 발간된점과 미숙한 면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군지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많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르게 정리하여 문자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특히 한문 문화권의 우리역사는 한글문화권으로 바르게 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구전되어도 설화(說話)를 문장으로 옮긴다는것 역시 쉬운 것이 아니고 고학력자나, 저학력자 모두가 같은 내용을 쉽게 그리고 갖게 이해 할수 있도록 필진의 수준이 정예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진이나 자료의 제시도 좀더 완벽하고 또 내용과 부합되어 이해가 쉬워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제작된 책자의 보급이다. 향토교육을 위하여 만든 책이라면 향토인 누구에게나 손쉽게 구입해 읽어야 한다.

물론 "횡성의 맥" 이리단위까지 배부되었다고 하나 리장집에서 사장 된다면 그효과가 반감이고 천여명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한두권의 배부로는 읽히기가 어렵다.

고급 양장지보다는 단가가 적은 문고판 형태의 책을 만들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읽을수 있는 많은 부수의 책이 발행되어야 한다. "1가구 1향토지 돌려보기" 라도 되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발간비용을 염출할 재원이 없다면 발행처(편찬위원회)에서 실 발행가에 준하는 유가지로 발행하여 읽고 싶은 사람이 구입해 읽거나 또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입해 선물할 경우 다른 어느것 보다도 멋있는 기념이 될것이라 믿는다.

<결 여>

앞서 나름대로 橫城郡 文化公報室에서 금년 초에 발간한 "횡성의 맥" (橫城의 脈)에 대하여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의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지 두달 밖에 ~~안된~~ 우리 횡성문화원이 이 문예지 발간만도 힘이 겨운

큰 일을 해낸 것이라 자부하고 싶는데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은 향토지의 발간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향토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는등 준비를 하고 기획도 하여야 한다. 물론 향토지 편찬위원회로 구성하여 지금부터 출간에 따른 모든 편찬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년이고 3년후이고 언제나 재정적 여건이 형성되는 즉시 발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군관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빨리 우리가 소망하는 군지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 문예지 담당회원들과 같이 다짐한다.

文化院에바란다

도 회 관

인간은 누구에게나 현실을 살아가는데 직분이 있다. 적게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분을 가지고 분수를 찾아 생활한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는 신분이 부여되고 그 신분이 주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역할해 가는 것이다.

그러한 개인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같은 목적을 향해 뜻을모을때 복지사회 건설이 이룩될 것이다. 현실은 너무 혼탁하여서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가 명예에 금욕에 허영에, 권력에 미쳐서 양심을 잃어 버리고 신분을 혼돈하여 자신을 망각하고 사회를 혼돈케하는 악습이 만연하고 있다.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이성을 바로하여 분별있는 자기 역할을 해야한다. 내 주의의 모든 사람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항상 고마움을 느껴야하며 자신의 직분에 소중함을 알고 긍지있는 자기역을 충실히 해야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횡성에서도 여러분야에 모임이 있다. 문화원은 이고장의 문화분야의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만치 현대인의 건전한 정신문화활동을 통해 분수에 맞는 자기역활을 할수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문화원 사업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겠다.

문화원을 통한 모든행사가 지도자 몇사람만의 참여로나 또는 형식적인 회원의 미온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면 문화원 사업의 달성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뿐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의 열매를 제으른 사람이 따먹거나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가 난무하는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

문화원사업은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활성화 되어야하며 각박한 현실속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우리 문화원은 문화원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따먹을수있는 진실한 발전이기를 바란다.

創 作

❁ 동시 ❁

횡성 아이들

이 연 승

태기산 품 속에서
덕고산 솟았고
왜가리떼 너울너울
춤추는 우리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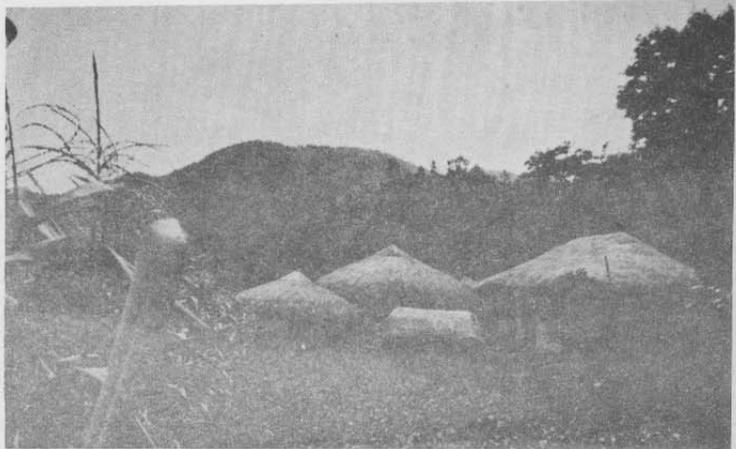
앞넷물
뒷넷물
손잡은 섬강기슭에
화성들 이루었네

옛부터
장작불에 쌀밥먹어
토실토실 살졌다는
횡성 아이들

동으론 강릉
서쪽은 서울
남으로 원주
북쪽은 춘천

길이 좋아
차가 좋아
서울, 춘천, 강릉이
2시간 거리

해 뜨면



바다 생선이 고속도로에 실려오고
서울, 춘천, 강릉 소식이
까만 아스팔트에 묻어오는
황성 고을.

소 물며
풀 뜯기고
책 읽어 마음 살찌우는
황성 아이들

그 옛날 박해속에
숨어지은
풍수원 성당은
강원의 자랑

산새같이
날개돋는 꿈을 꾸면서
천주님 보살핌에
서양문명 먼저 받은곳.

일제압박 벗어나려
독립만세 부르짖던
목소리들이
삼일공원에 뭉쳤고

눈보라 헤쳐가며
낮엔 국군
밤엔 공산국
뺏고 뺏기던
6·25의 격전지.

이제는
나무가귀 푸른산
산 짐승 모여살고
섬 강 맑은물에
새로움을 찾아 사는
황성 아이들.

※ 동시 ※

해 를 파 는 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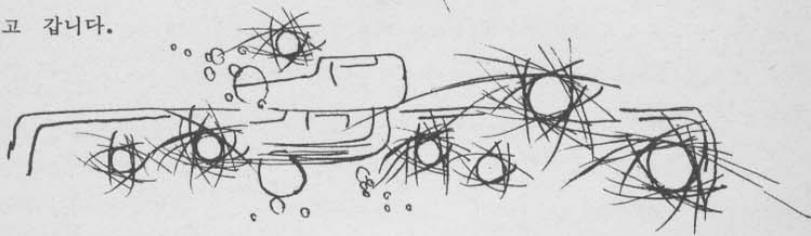
이 연 승

거울 가게에는
거울 수만큼
하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파랗게 닦아 놓고
해를 팝니다.

손님들은
하늘 속에 비친
얼굴을 보고

해가 담긴
거울을
사 가지고 갑니다.



(국민학교 4-1 국어 교과서의 수록작품)

＊ 시 ＊

얼 굴 바라 보기

김 성 기

화려한 행길을 하나 꾸며 놓고 묘령의 얼굴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개중에는 아름다움의 극치인 듯싶게 보고보고 또 보고 싶어 서둘러 쫓아가다가 내 차폐가 아닌 듯하여 지레 겁먹고 돌아선 후, 보기에 무척이나 질척한 부담을 주는 지루함의 모습을 만나 심중은 다시 그늘로 덮힙니다. 이제부터 에 서린 안개를 재빨리 헤집고 짝지어진 出入口를 美醜 식별의 초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지천으로 보기 거북살스런 이목구비가 그렇게도 바쁘고 불안한지 전승공의 조립품 같아 밤길 무겁다가, 잠깐 지나쳐도 오래도록 남는 매달리고 싶은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 出入口를 살펴보면, 주위까지 어찌 그리 어울리게 芳香을 뿜는지 아찔하게 마음이 맑아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것과 멀리하고 싶은 것의 초점은 같은 이름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다가 나도 그만 행렬에 섞여 길을 걷고 있습니다.

＊ 시 ＊

달 따 기

김 성 기

언덕에 올라 읍내의 불빛 위로 떠오르는 달을 내려다 봅니다. 옆으로 몇 발짝 비켜서서 숲속의 한 그루 나무되어 얼마쯤 기다리다가 정수리에 달을 매달았읍니다. 그리곤 내 그림자의 어깨위로 무등을 타고, 이번에는 달을 따려고 손을 뻗치자마자 켜디란 황금의 새가 숲속에서 날아 오르며 깃털 속에서 떨어지는 비듬이, 모든 뜻이 지워지는 이파리 위에서 소름으로 일어섰읍니다. 훨훨 날아가버린 하늘과의 거리를 재어보며 등 뒤를 만져보니, 황금의 새는 돌기를 하나씩 쪼아 먹으며 읍내 가득, 점진적인 공간의 기둥을 박으며 거대한 어둠의 기초 공사를 하다가, 그 어둠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 보았읍니다.

＊ 시 ＊

배 암

김 량 수

A

치약산 배암은
평고기만 먹고 살아서
등이 이쁘다지만

네 몸 온통 살빛을 감아도는
慘酷의 말씀들.

핏줄로 돌는 무늬.

B

살 떨리는 알몸으로
슌그늘 돌담에서
초록잠을 깨면

겨우 목졸린 不滿으로
때로 외면하리만치
追放 당하고 있었다.

C

꼬였던 몸 서리서리 풀어본들
네가 잃던 기억들은
하나씩 송곳날에 얹어지고

배암을 먹고 사는 우리야
항시 絶望 속에서 산다지만.

❁ 시 ❁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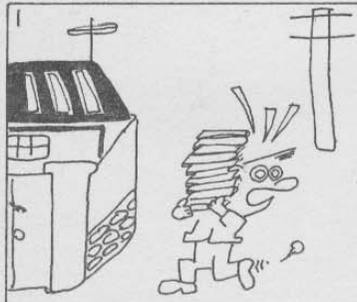
최 인 숙

그림같은 구름자락
산허리에
머물다 가고
성큼 다가오는
청자빛 하늘
동공 깊숙히
여울이 된다.

술렁이는 잎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조각난 하늘 담고
시리도록
제 곡은 흐르는데
이름모를
산새
山心을 지저댄다.

콘크리트 벽속에서
상처 받았던
심장
꾸역 꾸역
올라와선
위대한 침묵속에
속연해 진다.





❁ 동시 ❁

눈 길

송 수 영

뽕드득 뽕드득
아무도 가지않은
눈길을 간다.

호호 입김을 불며
사박사박 가는길에
솔바람이 뿜-뿜
불어 오면은
나도따라 호이호
휘파람 불며
발걸음도 가볍게
눈길을 간다.

사뿐 사뿐
소복 소복
눈이 내리는
비탈길 오솔길을
나혼자 간다.

살금살금 사르르
미끄럼 타며
징글벨 징글벨
노래 부르며
마음도 환하게
피어 오른다.

❁ 시 ❁

기 원

공 영 옥

이 검은 밤엔,
흰 눈내린 산을 오르고 싶다.
침울한 생각일랑 계곡에 묻고,
햇속 깊숙한 고통일랑 밤 하늘에 날려버리고,
정상 너른 바다에 앉아
통곡하고 싶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란한 낮의 열기,
질푸른 하늘
사랑스런 땅의 소리,
지금은 모다 어둠속에 침몰했다.
모든것의 마침인양 공중에 머문
고요와 정적
아! 잠깐
벌레들의 가냘픈 소망이 있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 둑

허 양 회

어느 집을 가듯 바둑판 하나쯤은 오락기구로 마련 되어 있다. 이렇듯 바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점차 세계적인 대중 기예로 보급 발전되고있다.

“한잔 할까?”

이 보다는 “바둑 한수 하지”

후자가 얼마나 교양적이고 생산적 이겠는가? 그러나 바둑은 피를 말리고 속을 태우는 정신적인 전쟁이다. 전쟁에서 2등은 용납되지 않듯이 이겨 보고 말 것이다.

이제 겨우 4~5급 정도의 실력인 내가 감히 바둑혼을 피력 하겠느냐고 가소로움을 금치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바둑을 두고 있노라면 만사가 잊혀진다. 그 무슨 취미가 바둑 보다 더 하랴.

바둑판을 일컬어 1년과 비교 하기도한다. 4개의 화점은 계절을 뜻하고 361 칸은 1년의 나날을 뜻한다 한다. 마치 1년 운세의 앞길을 가는 마음 가짐으로 생각하고 뒤돌아보며 반성하다보면 인생살이가 우습기도하고 묘하기도 하다.

며칠전 손수 바둑판을 하나 만들어 보았다. 보는 사람마다 침마른 소리로 칭찬해 주니 우리 집 가보가 이것이라 여기며 회회 낙낙 즐겁기만 하다.

“대포한잔 하지?”

이보다

“바둑 한수 하지?”

가 훨씬 듣기 좋으니 말이다.

우리 학교에도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심강 기우회>를 조직하여 매월 친목 바둑대회를 열고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때 주택복권 1등 했을때의 기분은 비록 맛 보지 못했을 망정 이보다 더 했을까?

9회말 역전극을 벌이는 야구 경기가재미 있다지만 다 진 바둑을 때 싸움으로 역전 시키는 이 인생 살이야 말로 스릴 넘치는 대 역전극이 아니랴.

한눈에 내려다 볼수있는 작은 인생! 2시간 남짓한 싸움 이지만 즐거움이 쾌감이 긴장감이 있어서 나는 바둑을 좋아한다.

한판의 변화많은 기복이 조국까지 계속된다. 그 변화는 복잡 다난해서 곤란을 견딜때가 많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강인성이 필요하다.

장기는 기술 우선이라면 바둑은 인간우선이라 말할수 있다.

내 나이 40을 넘고보면 포석은 지났고 중반의 전투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끝까지 급소, 맥점, 육감을 발휘하여 끝내기까지 완착을 범하지 않고 반집 승부라도 기어이 해 내고 말리다.

탈 바 꿈

조 원 천

우리 반에는 삼총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

키가 작은 (신 ○○, 최 ○○, 권 ○○)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삼총사라고 하는 별명은 학기 초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 삼총사의 구성 멤버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시장에서 생활에는 아이들로 평소 급우들로부터 인식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여자 아이들을 울렸다 하면 삼총사, 유리창을 깬다하면 삼총사, 교실에서의 소란, 명찰을 달지 않은 삼총사등 무질서한 생활의 전부였다.

행동은 거칠지만 셋이 마음 만은 잘 단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면 훌륭한 일을 해 낼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5월 초순쯤 아버지와 약값 천원이 교실에서 없어졌다고 울먹이며 담임에게 호소하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삼총사 짓 일거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담임도 삼총사 얼굴들을 훑어 본 후 짐작을 하게 되었고 약값 천원을 담임이 지불해 주고 반 아이들을 모두 하교 시킨 후 삼총사만 남겨 하였다.

셋을 남겨 놓고 아주 조용하게, 다정스럽게 정직에 관한 대화를 하나 들려주었다.

또한 마음에 작은 상처라도 주지 않으려고 대화자료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등감이 가도록 유도 하였다.

조금 후 삼총사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필통 밑바닥에서 천원을 꺼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며 천원을 내 놓는 것이 아닌가!

혼이 나고 겁을 냈던 아이는 반대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준 담임의 태도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 교육이구나 생각하면서 다음 날 아침 학급 전원에게 삼총사의 짓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표면화 시켜 주기 위해서 책상 서랍에서 천원짜를 지폐를 꺼내 보이면서 누군가가 정직하여 이렇게 돈을 찾게 되었다고 공개하였다.

그후 삼총사들은 담임의 태도에 놀라기라도 했던지 교실에서 몽당 연필하나 콩쪽 만한 지우
게 하나라도 습득하면 담임에게 갖다주는 삼총사로서, 더운날 꽃밭 김매기 때에는 솔선하여 말
은 이랑을 제일먼저 끝내고 여자 아이들을 도와주는 아량을, 자진하여 변소청소를 하겠다는 용
기를, 꾸중만 듣던 삼총사는 이제 모범생으로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삼총사로 변모하였고 변모
한 삼총사 하나 하나의 행동이 대견스럽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하루도 저
문다.

＊ 동 화 ＊

꽃샘바람

조 대 현

성냥갑 같은 건물이 나란히 줄지어선 아파트 단지 그중 어느 건물 입구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고무신을 신고 비틀 비틀 걸어나왔습니다. 회색 치마에 검색 털 자켓을 입고 목에는 두툼한 목도리까지 두른 모습입니다.

때는 이른 봄.

단지 안 화단에는 흰 목련꽃이 활짝 피고, 잔디도 파릇 파릇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지만 이맘 때까지도 몸이 쇠약한 할머니들은 추위를 몸서 타게 마련입니다.

할머니는 자전거와 승용차가 가끔씩 지나다니는 단지 안 보도를 지나, 담장 밖의 큰 차길을 부지런히 건넜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가고 있는곳은 차길 건너편에 있는 논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선지 얼마안되는 이곳은, 차길만 건너면 바로 논밭이고, 그 논두렁을 한참 따라가다 보면 야트막한 야산이 줄을 이어,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아파트 7층의 남쪽 모퉁이 방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창으로 단지 밖의 별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그 건너편의 야산 줄기도 끝 간데없이 멀리 내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흰눈이 펄펄 날리는 한겨울 동안, 할머니는 높은 아파트 창가에서 그 논밭과 야산을 내려다 보며 길고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이 아파트로 살러 오게 된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서울 아들네 집으로 오게 된것입니다.

아파트에는 아들 내외와 손자 두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물론 며느리 까지 직장을 나가는데다가, 손자들도 눈만 뜨면 학교에 가거나 놀러 나가기 때문에 할머니에 게는 그 누구와도 재미를 나눌 말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 밖이 끔찍 얼어붙은 한 겨울동안 오로지 할머니를 위로해 주는 것은 단지 밖의 그 논밭과 긴 야산줄기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 산과 들에 덮인 눈이 모두 녹으면 봄이 오겠지…….’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골 살던때의 일을 생각하고 쓸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녹자, 할머니는 또 썩뿌리던 때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직 땅이 메마른 걸 보니 쟁기질을 할 때는 멀었군. 저 땅이 축축이 물기를 머금어야 씨를 뿌릴 수 있지.”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만 살아온 할머니는,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만 생각해도 괜히 마음이 들뜨고 바빠 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말 땅이 축축이 물기를 머금고, 건너편 야산이 어딘지 모르게 초록빛 기운이 슬슬 감겨오는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보자, 할머니는 시골 살던 때가 더욱 그리워 졌습니다.

“아이고! 지금쯤 우리 동네는 얼마나 일손이 바쁠까?”

전에 살던 시골을, 할머니는 지금도 우리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의 이런 생각이, 그저 생각에만 그칠 뿐, 아무에게도 들어내 놓고 말할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손자들도 모두 저 할일들이 바빠 아무도 할머니를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밝은 햇빛이 창문으로 환히 비치 드는가 하면, 한 낮이 되자 건너편 산 모퉁이에는 아지랑이까지 가물가물 피어 울랐습니다.

그것을 보자, 할머니는 잠시도 그냥 앉아 배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쯤 논밭 두렁에는 냉이며 달래가 한창일 텐데…….”

할머니의 눈앞에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보리밭이 나타나고, 그 위에서 자지러지게 울어 대는 노고지리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더 참을 수가 없어진 할머니는 아파트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애들 돌아오기 전에 얼른 가서 썩이나 한 움큼 뜯어 와야지.’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사하느라 파헤쳐 놓은 흙더미 옆을 지나, 그 너머의 논두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이곳 논두렁에는 봄나물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습니다.

잔디 사이로 냉이가 몇 포기 나 있었지만 그것도 시골 나물들처럼 싱싱하고 윤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봄나물이 보일 적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게 다가가, 맨손으로 그것을 뜯어 자켓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논두렁을 살피 나가던 할머니는 마침 논 한가운데서, 눈에 거름을 내고 있는 농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농부는 일을 하다 말고 할머니에게 슬슬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게서 뭘하셔요?”

“예, 나물을 뜯는다우.”

“여기야 어디 나물이 있나요. 시골 논두렁 같지가 않아서…….”

농부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고, 잠시 쉬면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시골서 오셨나 보죠?”

“예, 작년 가을에 아들네 집으로 살려 왔다우.”

“아들이 뭘하는데요?”

“그런 거야 내가 어찌 아우. 그저 난 집이나 지킬 뿐 인걸!”

“그럼 저 건너 아파트에 사시나 보죠?”

“그렇다우.”

농부는 담배 연기를 훌쩍 내며 혼잣말처럼 중얼 거렸습니다.

“아파트야 어디 노인들 살 만한 덴가요. 뭉니뭉니해도 노인들 한테는 그저 뜨근뜨근한 시골 구들방이 제일이지.”

그 말을 듣고 나니, 할머니는 정말 시골집 아랫목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아파트는 겨울에도 더운 물이 팔팔 나오고, 살림하기가 편한 것은 좋지만, 사방이 벽으로 딱 막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겨울 한철은 훈훈한 재미에 멧보르고 살았는데, 초봄이 되면서 스팀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바람에 할머니는 어찌나 떨었던지……。 그럴 적마다 시골 구들방의 따뜻한 아랫목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들이 있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 구경을 할 수 있나…….

할머니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농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일러 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물을 뜯으시려거든 저쪽 산밑으로 가 보세요. 거기나 가야 그래도 나물 구경

을 하지, 여기는 통 먼지 구렁이라, 뜯어도 못 먹는답니다.”

“예, 그럼 일하시우!”

할머니는 농부의 말대로 산밑에까지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나 가야 나물이 있더니 이왕 나선 김에 나물도 뜯고, 산 구경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농부와 헤어진 할머니는 논두렁을 이리저리 돌아 마침내 산밑에까지 왔습니다.

산이라야 잔솔 포기만 몇 무더기 들성들성 덮인 야산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솔포기 사이에는 윤분홍진달래도 몇 그루 피어 있었습니다.

진달래를 보자, 할머니는 고향에라도 돌아온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왈칫 앞섰습니다.

“오오라, 벌써 진달래가……,”

할머니는 나물뜯는 것도 잊어버리고, 부리나케 비탈 위로 올라가 꽃송이 하나를 뜯어서 코끝에 대 보았습니다. 그러자 향긋한 냄새를 타고, 고향 뒷산의 모습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고향 뒷산에도 봄이면 진달래가 그림을 펼쳐 놓은 것처럼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종다래끼를 옆에 끼고 뒷산으로 나물을 캐러 올라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조차 까마득한 할머니의 처녀 시절…….

그날도 뒷산 골짜기로 나물을 캐러 올라왔던 처녀는 바위 밑 웅달샘 근처에서 동네 총각을 만났습니다.

총각은 나무지계를 길가에 반쳐 놓은 채 처녀의 옆으로 와 슬슬 장난을 걸었습니다.

“내가 나물 뜯어 줄까?”

그러면서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싱긋웃던 총각의 얼굴이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섭던지……. 처녀는 그만 두 불이 화끈 달아올라 골짜기 속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각도, 버들 피리를 만들어 신명나게 불면서 처녀 뒤를 따라왔습니다.

“펠펠펠 펠너리…….”

처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거리다가 눈에 띄는 대로, 산비탈에 탐스럽게 핀 진달래꽃 포기 사이로 뛰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용케 진달래꽃 뒤에 숨어 있는 처녀를 찾아 내고 다시 짓궂게 뒤따라왔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야 좋담?”

처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그만 나물 종다래기까지 잃어버린

채, 골짜기 밑 집으로 쫓겨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놀리기라도 하듯 등뒤에서 신명나게 불어 대던 총각의 버들 피리 소리…….

그뒤 어찌어찌하다가, 처녀와 총각 사이에는 혼담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봄, 진달래가 다시 활짝 피어날 무렵에 처녀와 총각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줍은 혼례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뒤 처녀와 총각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살림 장만을 하는 한편, 아기를 낳아 기르다 보니 어느새 이마와 두 볼이 쪼글쪼글한 노인이 되었고…….

그러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그새 벌써 할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떠났고, 할머니는 기쁜 아들 손에 얹혀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몰아닥치는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 그자리에 쪼그리고 앉은 채, 아이들처럼 눈물을 짙짙 흘렸습니다.

“영감도, 가시려거든 나도 함께 데리고 가지지 않고 설랑…….”

할머니의 눈앞에는 고향 뒷산에 있는 할아버지의 무덤이 환히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 무덤가에도 진달래가 활짝 피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할머니만 남겨 두고 혼자 훌쩍 떠나 버린 할아버지가 더욱 그립고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영감님도,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얼마나 쓸쓸하실까.”

할머니는,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아들한테 부탁해서 할아버지의 무덤에 꼭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던 할머니는, 갑자기 오슬오슬 추워지는 바람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쫓쫓, 이걸 어쩔담?”

할머니는 허둥지둥 산을 내려와 다시 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새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녀석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지금쯤은 며느리도 직장에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워낙 성질이 까다로운 며느리라, 왜 집을 비우고 나돌아다니느냐고 신경질이라도 내면 어쩌나 싶어, 할머니는 더욱 가슴이 죄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발자국이라도 길을 질러가려고, 오던 논두렁을 제쳐두고, 대신 논바닥으로 내려가 곧장 아파트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그렇게 쉽게 왔던 길이, 갈 때는 왜 이렇게 더딘지, 할머니는 몸보다 마음이 급해 발을 자주 허둥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단지 앞까지 왔을 때에는 주위가 킁킁하게 어둡고, 아파트의 창문에도 하나, 둘 전등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찾길을 건너 다시 단지 안으로 발길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단지안 광장을 걸어 들어가던 할머니는 어쩐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발길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아니, 여긴 나올 때 그 마당이 아닌데. 내가 잘못왔나?”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급한 바람에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문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이 어둡고, 집이 모두 똑같은 아파트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수없이 그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여보시우, 젊은 양반!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가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우.”

그러자 지나가던 젊은이가 잠깐 그자리에 멈춰서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택이 몇 단지 몇 동 몇 호실인데요?”

아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그런 것을 한 가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저 늘 집만 지키고 있으라고 했지, 그런 것을 자상하게 일러 준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런 것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젊은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빙그레 웃더니, 그냥가면서 지나가는 말로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셔요. 혹시 가시다 보면 눈에 익은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할머니의 제주로는 도저히 눈에 익은 아파트를 찾아 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뭐라고 재잘거리며 할머니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허둥지둥 그 아이들을 따라가 물어 보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집을 좀 찾아 다우. 우리 집은 7층이야. 뜰에는 목련 두 그루가 있고…….”

그러자 아이들도 아까 젊은이가 묻던 것과 똑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네 아파트가 몇 단지 몇 동 몇 호실인데요?”

“글쎄, 그런 건 잘 몰라, 우리 집 손자 이름이 용호랑 용식인데, 혹시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그럼 이걸 어쩔담!”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찢찢매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그냥 가려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전화 있어요?”

“응 전화는 있지.”

할머니는 귀가 번쩍 띄어 아이들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전화 번호가 몇 번인데요?”

아, 그렇지만 할머니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평소에 집으로 오는 전화만 받았지, 어디로 전화를 걸거나, 또 걸 곳도 없는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자, 아이들은 전희들끼리 뭐라고 한참 떠들어 대더니,

“할머니, 그럼 관리 사무실로 가 보세요. 관리 사무실이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일러 주고는 바쁜 듯이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온몸의 기운이 죽 빠져, 아무데로나 발걸 가는 대로 아파트 단지 안을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눈에 익은 아파트 건물은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모두 그게 그저 같아서, 이제 우리 아파트라고 분간해 낼 힘이 할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완전히 어두워 아파트의 창마다 전기불 빛이 꽃밭처럼 밝혀졌습니다.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집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광장을 이리저리 헤매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집을 나와 가지고 이 고생일까?”

할머니의 귀에는 아들이 몇 번이나 당부하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절대로 바깥엔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만 계세요. 괜히 길을 잃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거기다 모래를 날리는 찬바람이 더욱 거칠게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진달래가 한창 필 무렵이면, 꽃 피는 것을 시새워 분다는 꽃샘 바람이 어둠과 함께 마당으로 몰아닥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추위와 허기를 이기지 못하여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바람은 점점 거센어졌습니다. 바람이 심해질수록 할머니가 주저앉은 땅

바닥의 온기도 차츰차츰 사라져, 이제는 푹푹 언 얼음덩이처럼 차가와 졌습니다.

할머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머리 위에서부터 꼭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 자꾸자꾸 몸은 땅바닥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들이 찾으러 나와 주겠지…….’

할머니는 은근히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을까?

할머니의 귓가에는 아련히 피리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았습니다.

“뽕뽕 뽕너리…….”

그 소리를 듣자, 할머니는 너무도 반가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저 소리는 우리 영감이 나 젊었을 때, 나를 쫓아오며 불던 피리소리야!”

그러자 할머니의 눈앞에는 갑자기 환하게 피어난 진달래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파트의 창문을 환히 밝힌 전기불 빛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흡사 고향 뒷산에 활짝 핀 진달래꽃 무더기처럼 보였습니다.

꽃밭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어서 오라고 할머니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도 반가와 영금영금 그 앞으로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영감 나도 좀 데리고 가 주구려. 나를 버리고 영감만 가면 나는 혼자 어떡하란 말이 우!”

그렇지만 할머니가 다가가면 갈수록 할아버지는 또 저만큼 물러가서 자꾸 손짓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애가 달아더욱 열심히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영감! 같이 가요. 나도 이제 당신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우 제발 나도 함께 데리고 가 주구려.”

그러자 한 순간 할머니의 몸도 공중으로 붕 떠오르며 오색 영롱한 꽃구름이 둥실 날아와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꽃구름 속에 안기자 어느덧 추위도 사라지고, 사뭇 아늑한 기운이 할머니의 온몸을 따스히 녹였습니다. 옆에는 어느 곁에 왔는지, 할아버지가 생시에서 처럼 다정한 웃음을 띠고 서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도 반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싣고 꽃구름은 어디론지 먼 하늘로 둥실둥실 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아파트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밖으로 몰려나왔습니다.

밤새 바람은 자고, 광장 안 구석구석에는 바람이 몰아온 꽃잎과 낙엽들이 여기저기 한 무더기씩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쓰레기 무더기 옆을 지나다가, 한구석에 죽은 듯이 웅크리고 누워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누워 있는 할머니의 어깨위에는 밤새 털자켓이 조그만 이불처럼 덮여 있고, 그 옆에는 어제 뜬 봄나물이 수북이 쏟아져 나와 땅바닥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지껄이고 지나갔습니다.

“쯔쯔쯔! 간밤에 꽃샘 바람이 그렇게도 드세더니만……. 저 할머니도 나물을 캐러 나왔다가 변을 당하신 모양이군!”

“아이, 가엾어라. 쯔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할머니가 간밤에 할아버지를 따라 저 아름답고 행복한 꽃나라로 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환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덜재 고갯길 얘기

임 교 순

황성군 안흥면 지구리와 소사리 사이에는 덜재라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 고갯길에는 숨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사리 아이들은 덜재를 넘어 안흥국민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매일 이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져 낮에도 어둡고 음산하여 혼자서 이 고개를 넘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열두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상호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자 상호 엄마가 돈을 세어 상호에게 주면서

“오늘 학교 공부 끝나면 안흥 장거리에서 쌀 한말 사 들고 오거라, 쌀이 떨어졌으니...”

하고 당부했습니다.

상호는 공부가 끝나자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장거리에 나와 쌀을 한말 사들고 부지런히 덜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오늘 아침에도 학교가는 상호에게만 밥을 지어 먹인것을 알기 때문에 상호는 빨리 집에 가서 엄마와 동생이 밥을 지어 먹게 해야한다고 무거운것도 참고 고개를 중간쯤 올랐을 때 었습니다.

갑자기 숲 속에서 어른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야, 토끼 새끼 한마리가 있구나”

하면서 상호에게 덤벼들어 쓰러트려 놓고는 돌을 들어 마구 찌어했습니다. 어린 상호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어른은 상호의 얼굴을 돌로 짓이겨대며 혼자 웃고 혼자 증얼거리며

“잡았다. 토끼 잡았다.”

하고 증얼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들 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비린내가 확 풍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호의 모습과 눈알이 빨갛게 된 어른이 미친듯이 상호의 몸을 돌로 이겨대는것을 보고 모두 뒤돌아 학교 쪽으로 뛰었습니다.

“고갯길에서 어른이 아이를 죽이고 있어요.”

소리를 치며 안흥 지서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순경들이 허둥대는 아이들을 차근이 물어보고는 이내 총을 들고 덜재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돌로 상호의 몸을 짓이기는 어른이

순경을 보자

“토끼를 잡았다. 신나게 토끼를 잡았어”

하고 순경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길바닥은 피로 물들고 온 골짜기는 비린내로 덮어있었습니다.

순경은 총을 들이대며

“손들어 쏜다.”

하고 닥아서자

“인명은 재천이다. 너희들도 토끼 잡으러 왔니?”

하자 순경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정신병자야, 미친놈이야, 빨리 쓰러트리고 결박지어”

하고 순경 하나가 날세게 달려들어 정신병자를 넘어트리고 결박을 지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호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상호를 끌어 안고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상호는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일이 있는 뒤 아이들은 이 고개를 넘기를 더욱 무서워하고 서로 앞에도 안서고 가운데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밖에 없어서 다른 곳으로 해서 학교를 갈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상호가 쓰러져 죽은 길바닥에서 핏물이 살아나는것 같고 골짜기에서는 상호가 아이들을 부르는것 같아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이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언제나 열한사람이 다 보여야만 함께 고개를 넘었습니다.

상호가 죽은 뒤 3년이 되던날 우연히 이 고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 산속에 어른들이 하얗게 쓰다니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아이가 목이 졸려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것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바람불이 들판집 아이가 그옆집 경찬이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이다. 이야 기인즉 경찬이 아버지는 안흥 장거리에서 이발사로 있어 경찬이 엄마가 경찬이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돈좀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옆집 철호가 같이 따라 갔다가 고갯길을 넘어 같이 오다가 갑자기 경찬이 돈을 빼앗고 싶어서 숲속으로 꼬여데리고 들어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으로 경찬이의 목을 졸라 죽자 먹을 매어 나무에 매달고는 경찬이 주머니에 돈을 꺼내어 장거리로 다시 내려가 손거울도 사고 나이타도 사고 양말도 사 신고는 돌아와서 경찬이네 집에게 경찬이

여동생을 보고

“경찬이 아직 안 왔니?”

하고 묻자 경찬이 여동생은 안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나 보다 앞서 왔는데”

하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경찬이 엄마는 밤이 되어도 경찬이가 돌아오지 않자 창호네 집에 가서

상호야, 너 우리 경찬이랑 장거리에 갔었지?”

“네 같이 가기는 했는데 올 때는 못 봤는데요.”

창호의 말을 듣고 혹시 아빠하고 이발소에 있거니 하고 하루밤을 자고 났는데도 또 다음날도 경찬이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경찬이 엄마가 장거리에 달려가 알아 보니 경찬이는 그 날로 집으로 갔다면 경찬이 아버지도 이상히 생각하여 경찬이를 찾기 시작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경찬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경찬이는 던재 고개 숲속에 목을 매어 나무에 걸고 죽어 있었습니다.

수상히 여겨서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한 결과 창호가 죽인것이 들어났습니다.

상호는 열다섯살이었습니다. 소년형무소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던재 고개에서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 했습니다.

던재 고갯마루에 묘 하나가 있는데 그 묘 앞으로 길이 났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을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기도 하고 남아서 산속 굴을 파고 숨어 피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흥 장거리에는 인민군이 버글거리고 있지만 이 산고개 넘어 소사리는 산골 마을이라 인민군이 간혹 지나 갈뿐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 인민군은 북쪽으로 쫓겨들어가는 행렬이 던재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인민군이 지나가더니 조용 해졌습니다.

장거리에 갔던 응철이 아버지가 마을에 돌아오자

“빨갱이 놈들이 다 쫓겨가고, 안흥 지서에 태극기를 꽂고 우리 국군이 들어와 있더라”

고 했습니다. 숨어 있던 마을 사람들이 굴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식이 아버지는 청년

대장이었는데 너무 기빠서 안흥 장거리로 국군을 보러가겠다고 던재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던재 고개 중간에서 갑자기 인민군 세놈을 만나 그만 총에 맞아 순식이 아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은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문을 듣고도 가지를 못하고 순식이 할아버지만 달려가 순식이 아버지의 시체를 업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던재 고개는 벌써 사람이 셋이나 죽었습니다.

다시 잠잠했던 던재고개 묘와 사람 죽는 이야기가 다시 돌기 시작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며, 던재고개 마루 묘가 조화가 있어, 그 놈의 묘가 생긴 뒤로 사람이 고개에서 자주 죽어가니 그 놈의 묘를 파 내버리던가 길을 달리 내든가 해야겠어 ”

동네 사람은 모두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전이 되고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모여들자 어느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던재 길을 다시 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놈의 묘 앞으로 길이 나서 던재고개에서 사람이 자주 상하니 길을 달리 내야 해요.”

동네 청년들은 삼과 쟁이를 들고 던재 고갯길을 묘 앞으로 가지 않게 달리 돌려 내는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은 동네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길을 돌려 내고 있는데 순식이 할아버지가 담뱃대에 불을 부치며

“원 세상에 저 놈의 묘 주인이 어는 놈인데 나타나지도 않아, 우리가 죽도록 길을 달리 내기 보단 묘를 파내는게 좋지 않아? ”

하고 다른 의견을 내었습니다.

“남의 조상의 묘를 함부로 파낼수도 없잖아요. 주인 허락도 없이 ”

하고 다른 의견을 내 놓자 순식이 할아버지는 앉아 있다가 폭 일어서며

“내가 자식까지 앞세운 처지에 뭐 볼게 있어,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나 혼자만이라도 저 놈의 묘를 파 내겠네 ”

하고 고개 위를 달려 올라가 묘를 파제키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자 상호 엄마가 순식이 할아버지를 따라 올라가 묘를 파는데 합세 하였습니다.

“이 놈에 묘 때문에 우리 상호도 미친놈에게 죽었어.”

하고 미친듯이 묘를 팠습니다.

경찬이 엄마도 뒤 이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길을 내던것을 중지하고 묘를 파는 일에 합세 하였습니다.

묘 속에서 꺼낸 해골, 그 해골을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붙을해 놓았습니다.

“이 놈의 묘 때문에 동네가 망할수는 없잖아, 불로 싸그리 태워 없애”

하면서 해골을 꺼낸 묘를 다시 묻기 시작 했습니다.

해골이 타는 연기는 파랗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왔습니다. 누군가 삼성계 마을에 무당을 데려 왔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해골 귀신을 멀리 쫓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가, 여기는 덕고산 산신을 모셔야 한다. 너 같은 잡귀가 있어 이 마을이 살기가 끼었는데 덕고산 산신을 모셔 너를 쫓으니 얼센도 말고 멀리 멀리 가거라, 술이술이 마바하.”

무당의 경중경중 뛰면서 던재고갯마루위에서 소리를 치자 동네 사람은 모두 삽자루를 옆에 놓고 앉아 멀리 도망치는 귀신을 보는듯이 있었습니다.

무당은 고개위에 돌무덤이를 해 놓고 몇번이고 절을 하면서

“덕고산 산신님, 제발 이 뒤로는 이 마을에 살이 낀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세요”

하고 방울을 흔들며 절을 꾸벅꾸벅 했습니다. 마을 사람도 모두 따라 절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뒤 이 마을에서 던재 고개를 넘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세월이 흘러가자 그냥 살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르도자가 고갯길을 밀어내어 커다란 신작로길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벌써 죽을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 동화 작가가 된 사람, 자동차 운전수가 된 사람, 지금은 모두 그 동네를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옆 어 까 기

정 재 영

꼭 하나 밖에 없는 꿈.

그 꿈을 가져야 한다.

서른 여섯가지 문구(文句)중엔 오직 한가지 만이 길(吉)이요 봉(鳳)일뿐 나머지 모두
개꿈 이요. 도깨비 지랄이요 비산몽(飛散夢)일 뿐이었다.

미치고 팔딱 뛰어도 시원찮을 그 꿈!!

그 꿈을 보듬기 위해 송영감은 사흘이 멀다 않고 해피망측한 꿈타령의 열병을 앓곤 했다.

X X X

방바닥에 놓인 문창호지 위에는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여자의 그림이 네 활꼴 꼭
펼치고 요염스레 누워 있었다.

진드리면 툭 터져버릴 듯한 유방, 팽팽한 영세이, 그리고 아리아리한 은밀한 그곳의 숲……
아무리 종이때기 위의 그림이지만 은근한 목소리로 ‘시악시-’ 하고 불러 대기라도 할라치
면 그 여잔 배시시 웃으며 금방이라도 일어나 앓을것만 같았다.

망부석 처럼 앉아 있던 송영감(宋 萬洙)은 깊은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게슴츠레 눈을
들어, 그림 속의 여자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 내렸다.

송영감은 소싯적 하룻밤을 드셨던 들팽이 처녀의 나긋나긋 하던 몸매가 잠시 머릿속을 어른
거리고 어둠속으로 「훅」 사라졌다.

송영감의 해피망측한 짓거리는 언제나 액매기를 시작으로 발동이 걸렸다. 소금 바가지질 손
에 든 송영감은 사방을 휘휘 둘러보곤 온갖 잡귀들을 불러 모았다.

영살귀, 말명귀, 원혼귀, 객살귀, 몽달귀, 수살귀, 주살귀, 주당살귀…… 만방(萬方)에
있는 잡귀들을 몽땅 불러 내서는 그들을 향해 소금을 뿌려댔다.

송영감이 식칼을 쏘나 든건 바가지의 소금이 거진 다 떨어져갈 무렵이었다.

칼날은 겨울강변의 사금파리 처럼 차갑고 매서운 빛을 통겼다.

칼날이 허공에서 파란 빛을 통기며 쉬-기 쉬-기 울었다. 취 죽은듯 잠자던 방안의 모든
것이 자릴 박차고 일어나 송영감의 칼날을 따라 땀을 흘렸다.

송영감은 숙듬질 하듯 여자의 앞몸위에 세 갈겨진 서른 여섯개의 채패(彩票) 문구를 향해 칼을 겨누곤 산신령을 불러 꿈타령을 읊어댔다.

“좋은 주사이다. 오색영롱한 봉황꿈을……”

모강지가 까실까실 해지도록 송영감은吉 맛을(채패에 당첨될) 봉꿈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

그리곤 그림속의 문구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여자의 두눈 위엔 광명(光明)이란 두글자가 번쩍 거렸고, 앵두 같은 입술에는 지득(志得), 이마엔 정계, 가슴엔 정순, 두발에는 필득(必得), 대산(大山), 원귀(元貴), 객주인(客主人), 합패…… 그리고 새카만 숲이 다부룩한 은밀한 그곳에는 길품(吉品)이란 먹글씨가 판자집의 문패처럼 휘갈겨져 있었다.

“핑-”

식칼이 허공을 날았다. 칼은 슬한 문구를 피해 넓적다리에 푹 꽂혔다. 불발탄이다. 송영감은 또다시 산신령을 불러대며 칼을 던졌다.

열번 스무번 창호지에 그려진 여자의 모습이 참혹한 모습으로 거덜이 날때까지 송영감은 칼을 던졌다. 온몸에서는 땅이 비오듯 쏟아졌다. 송영감은 마지막으로 거덜 난 그림을 향해 큰절을 몇번 구부렁 거리고는 길(吉)맛을 꿈을 간절히 기다리며 등잔불을 켜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끝이 났고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냈다. 그러나 어떻게 돼 먹은 조화속인지 바람난 서방 안부 오듯, 송영감 에겐 그놈의 봉꿈이라는게 얼씬은 안했다.

그저 멀쩡한 이빨이 쑥 빠져 달아나기가 일썤요, 길거리 나가 숲이나 얼어먹는, 근심꿈 아니면 개쫓몽데이(감기)들 꿈이 고작 이었다.

채패날은 보름에 한번씩 돌아 왔다. 물론 물주의 사정 여하에 따라 다소 달라질수도 있었지만 대개 손이 안건 날로 받아지곤 했다. 혹이나 기억력 없는 쑤(채패꾼)들이 도까비 잔치날(채패날)을 잊어 버렸다 손 치드래도 그건 별 문제가 안됐다. 발 빠르고 눈치 빠른 그저 신용 빼놓으며 시세말로 푹 쓰러지는 통수(統首)들이 골마다 자기통(統)을 뒤지며 일러들 주기 때문이었다.

마짱, 골패, 고스름, 쑤시기판에도 맹길심이 없는건 아니었지만 채패판의 맹길심에는 어렵 반쯤어치도 못따라 왔다.

달도 별도 없는 한밤중, 이글거리는 관솔불 밑에서 기스꾼(접대부) 속옷 까베리듯 한꺼

플씩쩍질을 벗는 채패보따리 보고 있노라면, 꾀들은 피가 서걱서걱 얼어 붙었고, 오장육부가 멍겨 들었다.

채패날의 모임터는 모든 꾀들에게 절대 비밀로 붙여졌다. 오직 물주 자신과 연락책임자인 통수들만 알뿐 그누구도 알수가 없었다. 이웃간엔 물론이요, 부자지간 예도, 한이불속에서 살을 쉬는 마누라 한테도 그것은 비밀로 지켜졌다.

그날의 채패판만 해도, 송영감의 통수인 덕대(張德大)한테 오늘밤 자시(子時) 경이란 것만 귀동냥 했을뿐 구체적인 장소와 얼마만한 꾀들이 모인다는건 전연, 깜빡이었다.

송영감은 앞서서 휘적 휘적 당채를 넘어가는 덩대를 보고, 오늘 판은 고베이 베루일거라고 어림짐작을 했을뿐이었다.

깜깜 오밤중.

초사흘달 이라고 시늬만 냈을뿐이지, 소낭구가 꼭 박아 선 당채는 원통 어둠뿐이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송영감과 덕대는 눈짐작만으로 밤길을 걸었다.

“이봐 덕대 뭐 강 잡은거 없나?”

“영감님두 그걸 알면 팔잘 고치게유 ”

“아따 이사람 그래도 자넨 통수질 몇해 했음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냐 ”

“영감님 그거야 산신령님이나 아시는 일이죠. 아-참 그 얽은배기 물주 칭채기는 알겠구 먼유 ”

“허- 사람, 싱거운거 하군…… ”

송영감은 장수연을 곰방대에 꼭꼭 눌러담곤 성냥을 그어냈다. 성냥 켜 송영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 씨발놈의 봉, 한번만 잡아 봤으면…… ”

“영감님 저도 올 한해로 이것 좀 칠렵니다. 시퍼렇게 붉은놈이 이진 정말 못해 먹을 짓이예요. 맨날 밤도깨비 마냥 산꼬데이를 쏘댕겨도 없어요 없어, 몇푼 안되는 와리돈, 외상 술값으로 더밀구 나면 홀라당 빈털털이구 거기다가 바람(채판판에 경찰이나 단속반이 덮침)땀에 가슴 박박 태우는진 얼마구요 ”

“…… ”

“덕대 참, 장거리 분이 넌은 어떻게 됐노?”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고저 지금 먼서기 김가한테 따리를 붙어 꿀을 빨텐대요 뭐 ”

“자고로 기집은 말야 맘 먹었다 하면 그저 한도끼에 찍어 냉기는 거야 ”

“영감님 그게 어디 옛장사 맘 대로 돼 줘야죠”

“예끼! 그년 뺨에는 금테 들렀남”

금테라! 송영감 말마따나 분이넌은 무슨테는 두루긴 두른 모양이다.

말이 났으니 애기지, 고것이 몽당치마 덜렁하니 걸쳐 두르고 장터거리 과부집에 나타나 켈 켈 거릴뻔 완연한 촌담 이었다. 고것이 배 부르고 등 따습다 싶더니 살짝 치켜진 눈꼬리로 눈웃음을 치며, 제법 광파질한 엉덩짝을 비비적 거리자, 장터거리에 옥시기 가마나 팔러온 측 들은, 맥없이 옥시기 가마를 과부집에 개 올렸다.

그런 판국이니 서른에도 귀가 붙은 덕대로선 먼 발치서 분이넌 모습만 보여도 바지속의 물건이 옥신거리 댔다.

단술에 물붓기 식으로 몇푼 안되는 덕대의 와리돈 들이 모일새 없이 홀라당 과부집으로 개 올려지곤 했다. 단숯꽃만 걸쳐 입고 무릎팍에 걸터 앉아 용을 쓰며 코맹맹이 소리로 웅얼 거릴라 치면 세상사 모든게 아잠질 않았다.

“아이구! 저절 그냥 짝 - 한입에……”

그러나 고것이 용궁 갔다온 토끼영신이 들었는지 출듯 말듯 혈압 올리는뎐 창말로 미칠 노릇이었다. 거기다가 요즘 응달말 김참봉 전실아들 녀석이 제간엔 기름종이 담시고, 모강지에 힘을 잔뜩 주고선 제집처럼 분이 방을 들락거리는 꼬락서니를, 덕대로선 도저히 못 봐줄 노릇이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작자가 분이 몸값으로 기만원을 없어 측닥 해버릴거라는 X같은 소문이 누렇게 젖어있던 덕대를 더욱 더 조바심 나게했다.

“그래두 지가 설마하니……”

덕대는 그래도 맘 한켠에 믿는 구석이 없는진 아니었다. 뭐는 뭐끼리 통한다고 분이는 슬 손님 에게 떡이 되도록 시달리키는 날이면 꼭꼭 덕대를 찾았다.

“우리도 한밀친 잡아서 버덩 나가 전담 사가지고 남 보란듯이 살어요 덕대씨-이”

그럴때 마다 덕대는 분이의 기동서방이라도 된 기분으로 분이를 다독거리 주었다.

그런 터수라 까졌 돈 기만원에 눈이 멀어 화투판 흑싸리 접대기 버리듯, 자기를 버리진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소문에 조바심 난 덕대 마음을 장제우곤 했었다.

그러한 덕대의 믿음이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난건, 며칠전 저벽 어스름이었다. 참말이지 지금껏 생각해도 그날 일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날도 덕대는 대낮부터 외상술에 알크래 얼어 있었다. 그는 본시 암사내라 알크래진 술기운에 용기가 생기자,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과부집으로 옮겨졌다.

외상술에 발동이 걸린 덕대는 과부집을 들어서기 무섭게 술을 시키고, 곁들여서 눈깔안주 (접대부) 한사라 까지 호기있게 떠들며 제꼈다. 그러자 과부덕은 야매 X하다 들킨 뒤시기 모양 엉거주춤 똥먹은 얼굴을 했다.

“덕대 총각 본인 어딜 가구 없어요”

“어딜가요? 어딜 가긴”

“넌들 아우 기집이 하두 요몰스러워서……”

뭔가 켜기는 듯한 기미를 과부덕 얼굴에서 읽은 덕대는, 능구레이 같은 과부덕과 더이상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손살같이 분이 방을 향해 내달렸다.

덕대는 괜히 가슴이 훌 떨러오고 정신이 매-앵 해졌다.

예상대로 였다. 봉당에는 사내 신발 한켠레가 분이 고무신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방안에 선 거친 사내의 숨소리와 자지러질듯한 제집의 신음소리가 되범벅이 되어 영크러지고 있었다.

덕대는 피가 꺼꾸로 들었다. 덕대의 두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것과, 외장창 방문을 건어 찬전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이 개 같은년 드럽다. 드러워-”

그래도 덕대 분이 눈물이라도 쨍쨍 짜던지, 아니면 대가리라도 이불에 쑤셔 박으며 변명이라도 한마디 할줄 알았다.

분이 녀은 허연 유방과, 그 아래 밀친까지 다 내놓은 채로 발라당 자빠져서 되려 덕대를 향해 소릴 뱉 질러냈다.

“야! 남 재미 보는데 왜 지랄이여 X할땐 개두 안 건드린 댕어, 너도 한코 생각 있음 오라구. 쌀 서너가마 「팡」메때려 놓고 선, 날 업고 가란말야 씨-발-”

“미쳤군……”

“그래 미쳤다. 미쳤어 돈에 미쳤어-”

덕대는 귀를 막고 뛰었다. 알크래졌던 술기운이 책 깨 달아났다. 알수없는 설움이 목구멍 위로 뻗적지근 하게 치받쳐 올랐다.

어떻게 집에 까지 달려 왔는지 덕대는 도통 알수가 없었다.

덕대는 이적지 가라 앉았던 속이 부글거려 참을 수가 없었던지 당채 마루턱에 쌓아 놓은 돌담을 거세게 걷어찼다.

“와구르르—”

요란박적지근한 굉음이 밤공기를 뒤흔들어 댔다.

“영감님 저두 오늘 큰거 하나 던졌읍니다.”

“큰거라 도대체 얼마짜릴?……”

“다섯장이요”

“뫼—! 오만원! 자네 미쳤나 영—, 제산속 빠르고 짜기로 유명한 자네가”

“영감님 이 한번으로 종 칠렵니다.

오늘밤 한판에 모든걸 걸었어요. 통수질 십년 세월에 눈물, 콧물로 얼룩진 생명과도 같은 제돈을 몽땅 걸었어요.”

“이봐 아닌 말로 술집 니나노 하나뎌에 증심 잃음 안돼……”

“…… 영감님 이제 모든게 싫어 졌어요. 내뻬가 굶다시피한 이 양짓말두, 채패판두 모두 가요. 오늘밤 봉한번 잡음 양짓말 뜰랍니다. 들녁에 나가 논마지거나 장만해서 농사나 짱짱 질렵니다. 그게 젤 뵈장 편할것 같애요”

“암— 뚝심 좋았다. 심덕 그만 하겠다. 어딜가면 못살겠나 그렇게 그렇게 살다보면 뎌두꺼 비 같은 아들두 털썩털썩 날꺼구 말야”

송영감은 평소에도 늘 그랬었지만 오늘밤 더더욱—덕대가 미덥게만 보여졌다.

송영감은 문득 제작년 시커먼 피를 각내쫓고는 세상을 떠난 아들녀석의 모습이 덕대의 평 퍼질한 어깨죽지와 더벅머리 위로 어른거렸다.

“덕대— 자네 올해 몇이지?”

“영감님두 귀가 셋 붙은 떠거머리 아닙니까”

“벌써 그리 됐나 우리 병구 녀석 살았으면 갓스물 일텐데……”

“영감님두 쓸데없이 병구 얘기는요 삼년이나 지났는 대도 정 못 떼셨어요?”

“어떻게 내가 그 놈을 잊어버려……”

송영감의 고명아들이었던 송병구! 그는 죽을 팔자였는진 몰라도 너무 가까운 녀석이었다. 삼년 터울로 한삼출에 여섯명의 아들들을, 난지 백일 되기 무섭게 산신령에게 빼앗겨야 했던 송영감 집에, 꿈에도 생각지 않던 아들을 늣그막에 보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야 오죽 했으랴!

더군다나 그때 송영감 마누라는 폐경기인 오십대의 단산할 나이 였다.

허구헌날 무자식 팔자 술타령에 썰어 붙었던 그는, 살맛이 났고 모든게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일을 해도 힘든 줄을 조금도 몰랐고 이때까 가을에는 목달개 송아질 사들여 왔다. 병구 나이 예닐곱에 명신보감을 서당에 이름 올린지 석달도 안돼 데꺼덕 때 제키자, 송영감은 너무나 기뻐 훈장어른을 찾아가 코가 깨져라고 절을 올리곤, 옥시기 맑은술과 무시루떡으로 책씻기를 했다. 입 가진자는 모두다 양젓모태이 도랑에서 용이 났다고들 입을 모았다. 하루를 사는 게 송영감은 너무나 짧기만 했다. 병구의 키는 해가 갈수록 아버질 옷자랐고, 목소린 아버질 닮아 왕탱이 소리로 왕왕 패갔다. 사람들은 송영감이 밀레장살 잘한 덕분이라고 조상에 게 은혜를 돌렸다.

“여보게— 거 명당자리는 따로 있는가봐— 아! 글썄 내가 캄캄 그믐날 오밤중 쇠경 뒀만지듯 아버지 유골을 파헤쳐 묻은게 틀림없는 명당자리였으니 말일세—”

순전히 병구를 얻은거나 요즘 잘돼가는 집안이 다 조상님들 탓이라고 송영감은 만나는 사람마다 명당자릴 떠벌렸다.

병구 나이가 그러니까 열일곱 되던 해 눈이 몹시 내려썩든 어느날이라 기억된다. 그즈음 병구는 서당에는 사서삼경을 읽고 있었다.

아침 4절 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서당을 갔던 병구가 집엘 오다, 당재 둔덕바지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구 친구가 흠뻑이 되어 뛰어왔다.

병구가 쓰러진 당재 둔덕바지에 흰눈이 한자는 실팍히 쌓여 있었다. 그— 새하얀 눈위엔 아직 채 영기지도 않은 검붉은 피가 스물거리고 있었다. 비린내가 확 풍겼다. 예사 비린내가 아닌 냄새, 그건 죽음의 냄새였다. 어릴적 장사집의 반포떡에서 나곤 하던 그런 냄새였다. 사람들은 살을 맞았다고 했다.

송영감은 동네를 핀담하며 좋다는 약이라 하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모아 들였다. 칠혹같은 깊은밤 공동묘지에 올라가 백골을 구해다 달여 먹여 보기도 했으며, 태를 훔쳐 고아 먹이기도 했다. 살이 겼다 하여 무당을 들여 일곱마당을 밟고 다리가름도 했다. 열이레 정도 읽었다. 누가 또 뱀이 좋다는 바람에 구레이, 까치독새, 살모새, 땅구레이, 십지언, 뱀시늬만 냈다 하면 무자수, 늘미기 까지도 닥치는 대로 잡아 들였다.

그러나 무당도, 경쟁이도, 온갖 약과 뱀들도 병구의 썩어가는 가슴을 막질 못했다. 쓰러진 지 백날이 못돼 병구는 저륜(大麻)같은 팔을 휘저거리며 “아버지—요” 소릴 한번 내지르곤 시켜면 피를 한바가지 내 쏟고는 영영 가버렸다.

총각이니 그냥 가마니 들둘 말아 치우자는 동네사람들을 울고 불고 졸라, 꽃장식이 요란한 행성(상여)에 병구를 싣고 동막골을 올랐다.

병구를 꺾고 나자 송영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갔다. 모든것이 허망하고 허해서 송영감은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지는 모든것은 도대체 믿을수가 없었다. 끊었던 술, 병구 장래를 위해 절제 했던 술을 마셨다. 그것도 왕창왕창목이 붓도록 마셔냈다. 술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허허롭고 사는게 뜬구름 같은진 매한가지였지만 그래도 술기운에는 병구의 환상이 덜 얼씬 거렸다.

채패꾼이라면 도둑놈 들이라고 발신양도 안했던 송영감은 한번 두번 채패 통수를 따라 산에 올라 밤을 깨곤 부수수한 머리를 해가지곤 산을 내려왔다.

원래 송영감에게 쾨 기질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쾨 기질의 삼대요소인 「안면물수, 현금박치기, 끝발유지 그 어느것도 송영감에게 내세울 만한게 없었다.

그러나 송영감은 꿈을 그리워 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는 잡혀 주진 않았지만, 꿈이란 언제나 현실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과 설렘이 있었다.

매사에 허했던 그가 채패판에 모든 꿈을 진다는 건 어쩔 당연한 이치였는지도 몰랐다. 거기에다 밤을 낮삼아 퍼마셔대는 술값과, 그동안 병구의 썩어가는 가슴에 디밀어 졌던 약값에 개부랄 갔던 땅마지기가 흔들리고 농우소가맹수 손에 고삐가 쥐어 질 지경이었으니, 채패판의 봄은 송영감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꼼짝 못하게 사로 잡았다.

달없는 칙칙한 밤길을 걸으면서도 송영감은 덕대가 모든것을 걸었다는 패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전달수가 없었다.

“여봐- 덕대 자넨 도대체 어디에다 거금을 붙잡아 댔나?”

“영감님은요?”

“나야 뭐 항상 벨 붙일 없지 뭐?”

“저…… 전 모두다 광명(光明)에다 벨 던졌어요.”

“광명! 왜 하필이면 안나오기로 유명한 벨 던져, 글러버린 노릇 아닐까?”

“글러요? 누구 죽는 꼴 불려고 글러요.”

“자신 있나?”

“전 봤어요. 보고 던졌단 말이예요.”

“보더니! 물주첨재기 채패보다릴 훔쳐 봤나?”

봤다는 말에 송영감은 숨이 넘어갈듯 덕대에게 마그쳤다. 간혹 몇천만번에 하나, 물주의 실수로 통수들에게 봄(당첨될 패)이 누설될때도 있긴 있었다.

“영감님 그게 아니라 꿈에 봤어요. 며칠전 꿈에 봤단 말이에요.”

“꿈에 봤다—아……”

아직 덕대에게 숨기고 있었지만 실은 송영감도 오늘밤 맘하번 독하게 먹고선, 왕창 큰것을 덕대와 같은 패(文勿)인 광명에 던졌기 때문에, 덕대의 확실히 꿈에 봤다는 말은 송영감을 한층 더 달뜨게 했다.

덕대가 보기는 붕을 봤다.

그날밤 과부집에서 정신없이 달려와 덕대는 이불도 안 덮은 채로 잠이 들었었다. 한 밤중이었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덕대는 벌컥 문을 열어채켰다. 눈이 부시도록 황홀한 빛들이 덕대를 덮쳐 왔다.

“아! 어쩌면 저 토록 아름다운 불빛들이……”

마당은 불빛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덕대는 눈이 부셨다.

오색영롱한 빛 달피갈피 사이에선 머리에 털 나곤 침 들어 본 신비스런 음악이 철철 흘러 넘 넘치고 있었다.

“오—! 봉황새—”

오색찬란한 빛들도, 가슴 밑바닥을 두들겨 대는 신비스런 음악도, 마당가 벽오동에 앉은 봉황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탉의 벼슬을 닮은 머리, 번쩍거리는 뱀비늘의 모강지, 거북이 등, 아름다운 선이 흘러 내린 듯한 물고기 꼬리……

발목엔 명주실이 매어져 있었다. 그 끝을 분이년이 비투 쥐고선 악을 쓰고 있었다. 봉황은 발목에 매인 명주실이 부담스러운듯 계속 발버둥을 쳤다.

“개 같은 년— 그 끈 못 봐—”

“못 봐— 죽어도 못 봐— 죽어도”

“저년이 정말”

“왜 나같은 년은 봉황번 잡지 말란법 있나? 나도 남들 처럼 멧멧하게 시집 가 애받고 살고 싶단말야”

분이의 악다구니는 얼마를 못갔다.

‘툭’ 명주실이 끊어지며 봉황은 완전한 보물선을 그리며, 덕대의 열려진 방문을 향해 날아 들었다. 분이의 「아이구 머니나!」 소리에 덕대는 마당에서 방을 못 들어가 보곤 꿈을 깬다.

다음날 덕대는 신 쫓힌 사람 처럼 비상금으로 몇년 동안 지직(짚자리) 밑에 짱 박아 났던 돈을 모두 꺼내 평평에다 왕창 땔 던져버렸다.

그나저나 마당에서 꿈이 끝나버렸으니 봉황이 방안으로 들어가 봤는지 아니면 도중 하찰했는지 덕대로선 알도리가 없는지라 맘 한구석으로 은근히 속이 탔다.

“영감님 틀림 없겠쬬. 봉황은 제 방으로 날아든 거쬬”

덕대는 떡거머리 장가 조르듯 송영감에게 애원을 했다.

“됐어— 됐다구 이제 덕대도 살았다구 한 밀친 잡았으니 장가도 가구 살림도 날수 있을거야”

송영감은 어린애 같이 좋아 하는 덕대의 손을 잡고 다정스레 어깨를 다독거리 주었다.

채패꾼들!!

그들은 오직 꿈만이 믿음의 전부였다.

명지관(名地官)의 육십갑자도, 쪽집개 신(神)딸의 어떤 소리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꿈만이 그들에게 붕을 가져다 주며 살길을 열어 준다고, 그들은 신앙처럼 믿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광명으로 시작해서 인체의 형상을 딴 서른여섯 가지의 문구중에서 그 어느게 봉인지, 지관이나 신딸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알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꿈속의 신령만은 서른여섯 가지가 아니라 삼백육십가지가 열키고 설켜도 틀림없이 붕을 찾아 내 줄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틀림없는 사실들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은 또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경우를 여러번 두눈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꿈을 사랑하고 간절히 원했다.

꿈을 판다.

밀친없는 가난한 꿈들은 꿈을 팔았다. 보다 크고 우람하고 번쩍 거리는 꿈일수록 값이 나가고 잘 팔렸다. 꿈을 파는덴 그들 대로의 내규가 있었으며, 보통 삼칠제나 사륙제가 많았다. 물론 사고 파는자 외에는 절대 비밀이었으며, 그건 꿈들 사이에 흔들릴수 없는 불문율(木文律)이었다. 행여 입 가벼운자가 있어 발설이라도 되는 날에는 채패판은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다.

고부(姑夫)간에도 꿈을 사고 팔았고 내외간에도 꿈을 팔았다. 언제 부터였는지 몰라도 양것모데이 사람들의 인삿말은 “좋은꿈 꾸셨어요?”로 시작해서 “봄꿈 꾸세요.”로 끝나곤 했다.

송영감두 그놈에 봉 한번 잡으려고, 사흘둘이로 벌거벗은 여자를 그려 놓고 수없이 칼을 던져 봤지만 어찌된게 말짱 도루묵 이었다. 판판히 불발탄에 그쳐 그의 꽤 많은 눈먼 돈은 채패물주 주머니로 개 올려졌다.

자연히 죄없는 마누라만 들들 볶이우고 애꿎은 핫술만 늘어갔다. 그런데 엇그제 아침 이었다. 마누라는 정색을 하며 다짜고짜로 꿈을 사라고 대들었다.

“이봐 지금 누굴 약올리나 -엥- 내가 요즘 밤낮 꿈타령만 해싸니 당신도 뭐가 잘못 된거 아냐?”

“싫음 판 두세요 만약 봉이 아니면 판꿈 도로 물러 줄수도 있어요 ”

마누라는 그만큼 자신에 차 있었다. 마누라가 엇저녁에 꿔다는 꿈은 대강 이런 것이다.

낮살에 어울리지 않게 마누란 고독인지 무슨 비스깨또지 썩으며 숲속을 걸었다. 어느만큼쯤 견고 있을때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누라는 질겁을 하여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머리에 황금빛 뿔이 돋힌 한마리의 산돼지가 식닥거리며 마누랄 향해 달려 오고 있었다. 그 산돼지의 두눈에서 나오는 빛이 어두운 숲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산돼지는 식닥거리며 마누라에게 달려 들러니, 어찌구 저찌구 할 틈도 없이, 치마를 훌러덩 제치고 무명 솟꿍을 빼겨 내리고는, 풀무질에 바싹 단 뜨거운 물건을, 마누라 그곳에다 들이밀더라는 것이었다. 마누라는 기절초풍을 하여 ‘어맛!’ 소릴 지르고 꿈을 꿔다는 것이었다.

송영감은 찬찬한 빛이 산돼지 두눈에서 흘러 넘치더냐고 재차 다그쳐 묻곤 마누라에게서 그 꿈을 사륙제로 샀다.

그리고는 웬지 이번만은 틀림없을 거라는 어떤 확신감에 이번 한판으로 그전 잃었던것 복구도 하고, 손털고 뜯 각오로 웬만한 채패판 에션 구경도 못할 거금을 광명패에다 왕창 던져 버렸다. 물론 그 돈은 마지막 남은 무량골 서너마지기의 논과, 텃밭 땅문서를 업자한테 잡히고 끈 돈이었다. 마을이 원래 채패꾼 일색이라, 땅문서 달기고 채패돈 빌리는건 은행돈 대부 받는 것처럼이나, 당연스레 생각들을 했다. 만약 기한부 약속이 뻥세 났다하면 채권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답의 소유권이 넘어 갔다.

‘십만원의 삼십배면 삼백만원이라……’

송영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깔이 획 뒤집혀지지 않을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껏 배추나무에 연 걸리듯 걸린 외상을 훌훌 털어 갚곤 병구너석 파문은 애초 안보이는 곳으로 송영감은 어디든지 틀 생각이다. 그저 두눈 꼭 감고 빛가리고 남은 돈으로, 버틸는 열댓마지기 정도를 사가지고는 죽을때 까지 농사나 저벌 생각이다. 송영감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지가 육

신 커리도록 신나는 일인데, 이거 손바닥 한번 휘까닥 제껴놓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곤두 박질 쳤다. 이제 빼두 박두 못하는 꼬락서니가 됐지만 자꾸만 송영감의 맘 속에선 알수없는 두갈래의 생각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송영감—마누라 꿈애긴 말짱 거짓말이라구 자네 팔딱서닐 볼려구 그래 본거여. 아—! 서당개 풍월 한다고 자네 마누라도 그정도 꿈애기 못들러 뉘출 아나—’

‘아냐, 그렇지 않아 덕대 꿈에도 광명을 봤다는데……’

‘얼간이 같으니라구 끈도 그런말을 다 하나 「봤을것이다」는 안돼. 덕대도 그 꼴 아닌가?’

‘절대 아냐, 마누란 거짓말 못—해—’

‘흐흐흐— 송영감 너 오늘 종쳤다구’

악마같은 목소리가 끈질기게 송영감을 물고 늘어졌다.

‘아—! 그럴줄 알았으면 명문서 몽창 잡혔다고 마누라 한테 토까 놓고 울러나 볼걸……’

“영감님 아까부터 뭘 그리 멍청하니 생각하세요.”

“아니며 생각은 무신 생각, 아직 멀었나?”

“썸만 가면 돼요. 저—기 모테이 지나면 바로 고베이베루인데요 뭐.”

그들이 막 노가지냥구 숲 모퉁지를 지나치자 어둠속에서 「획」 세번째의 바람잡이가 나타났다. 채패판 바람잡이란 바람(채패판에 경찰이나 단속기판이 덮침)을 막아주고 막걸리 값이나 얻어 쓰는 힘제나 쓰는 건달들이 대부분이었다.

듣기좋은 소리로 바람이지 그건 끈들의 피를 얻어 볼게 하는 무서운 지옥이었다. 많은 돈을 쭈셔 넣은 끈들일수록 바람은 질색이었다.

“쇠경이름(끈들 암호)은?”

“공산 명월이.”

덕대가 재빨리 대답 했다.

지독한 6.25 동란 때도 총소리 한번 난적없다는 고베이베루는, 정감록의 심승지마냥 도깨비 잔치(채패판)벌이기엔 그야말로 안성마춤 이었다. 곁에서 보기엔 평범한 골짜기요. 하늘을 찌를 듯한 산봉우리 사이라 할미새도 공명일 못부칠 만큼 보였지만, 골짜길 따라 조금 만들어 가면 마을 소동패들이 장치길 해도 부족 값을 평퍼점한 잔디밭이 자릴르고 있었다.

벌써 도깨비 잔치는 타오르는 관솔불의 열기를 따라 숨죽여 막바질 향해 일추얼추 치닫고 있었다.

업은뱅이 물주(吳東心)의 붓끝에선 출자액과 뺨 던진 문구들이 아무런 표정 없이 창녀촌 빨래줄에 속곳처럼 너편질 거러뒀다. 각 고을의 통수들도 지극히 사무적인 동작으로 신입액에 대한 와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통수들의 와리는 대개 2부로 계산 됐다. 그렇지만 끈들에게 그까짓 통수 와리돈이야 새발의 피였으며, 누구하나 아까워 생각질 않았다. 그들 맘속엔 하나같이 봉 들이 푸드덕거려대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물주인 동필은 덕대에게서 통문(統文)을 받아 들곤 너스레 부터 떨어뒀다.

“어디보자— 우리 덕대 통수 실적부터 볼꺼나. 그래 요즘 지수씨 분이도 안녕히시구”

“원— 물주 어른두. 그대는 강 건너 갔쇠다.”

동필은 여유만만한 동작으로 덕대가 내민 광목자루를 풀어 해치곤 끈들의 출자금과 패가 적힌 밀봉된 봉투들을 차례로 뜯어 나갔다.

‘아—니!!’

물주의 「혁」소리, 원인은 두가지다. 첫째 엄청난 출자금 일때, 둘째 끈들이 적어낸 문구가 그날의 봉이 뻗을때 였다.

비록 입술만 달싹거릴 정도의 작은소리였고, 짧은 순간의 표정변화 였지만 송영감과 덕대는 그걸 놓칠리가 만무했다.

채패물준 얼굴의 철판이 두꺼울 수록 관록이 붙는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태연해야 하는것이 그들 처세론 제 1장 1절이다. 만약 통문을 까며 무슨 눈치라도 보였다 하면 그걸로 밥먹고 사는 당일치기꾼들에게 작살이 난다. 당일치기 끈들은 모두다 확률의 대가들로서 물주의 눈치코치를 보고 현장에서 패를 던져 버리곤 했다.

동필은 맘속으로 물주처세론 1장 1절을 골백번 외쳐 봤지만 창호지에 써갈겨진 두출의 먹글씨는 무서운 힘이 되어 그를 쥐고 뿌리 채 흔들어 뒀다.

「張 德大 一金 五萬圓 光明」

「宋 萬洙 一金 拾萬圓 光明」

다른 글씨들은 회부영계 흐려오고 두출의 글씨, 「五萬圓 光明, 拾萬圓 光明」만이 헛바닥을 널름 거리며 유령처럼 동필의 모강질 조여왔다.

五萬圓 光明 光明 光明 光明 圓萬五拾 明光 光光光 明明明 拾 五……

동필은 미칠것만 같았다. 통문의 글자들은 어느새 갈가바퀴 떼가 되어 동필의 머릿속을 헤집어 뜯었다.

십오만원, 그건 작은돈이 아니었다. 그때 버텨는 양석자리도 3만원을 밀들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정도라면 그래도 동필은 엄두가 났다. 그런데 십오만원의 삼십배 그제 동필의 혼을 뜨게 했다. 십오만원의 삼십배라—! 거꾸로 봐도 뒤집어 봐도 사백오십만원 입에는 틀림이 없었다. 동필의 채폐물주 반평생에 이렇게 큰 출자금도 그리 흔한게 아니었고, 더더구나 그제 들다 봉맞은건 꿈에서도 없었다. 그당시 꾀들은 옥시기 서너말값 정도가 고작이었고, 간혹 배포 큰자가 옥시기 서너가마 었다.

잡자기 밭도 끝도 없는 시키면 우물이 아가릴 벌리고 동필을 덮쳐 왔다.

사백오십만원, 그건 죽었다 깨나도 사백오십만원 그대로의 숫자였으며 동필의 재주 가지곤 몇십년 채폐 물줄 한다해도 못만들 숫자였다. 동필은 눈을 감았다. 엉뚱한 생각을 해 봤다. 옛적네 채폐보따릴 쌀때 자신의 착각으로 광명아닌 다른어느 펠 샀다면 동필은 산다.

그렇게만 돼 준다면 동필은 작두로 손가락을 끊고라도, 채폐 내동맹이 치고 출자액 십오만원으로 소장사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산신령 할아버지가 열댓명 살아 난대도 될수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후면 닥쳐 올 무서운 광경이 동필의 눈에 어른거렸다. 이제 첫날밤 새각시 속고쟁이 벗겨지듯 채폐보따린 끌러질테고, 마지막 한 꺾질이 와이끈 벗겨져 나가면 이글거리는 관솔불 아래 光明이란 먹근씨는, 악마같은 몸짓을 하며 너편질 거리리라. 미친듯한 환호소리가 번쩍거리고 도주하는 동필을 향해 배신자란 낙인 아래 날어들 무수한 발질과 칼날……. 옆구리엔 피가 팔알 흐를테고 동필은 서서히 암울한 우물속으로 빠져 들테지……

동필은 그답지 않게 울켜 설음이 북받쳐 올랐다. 이날 이적지 채폐보따릴 끌어 안고 어둠속을 개뿔듯 허부적거렸던 지난날들이 허망스럽게만 느껴졌다.

넌 아침이면 누까리가 시빨개 갖고 동필의 오막사릴 건어차며 땅문서와 기둥 뿌릴 흔들어넌 꾀들의, 반은 미쳐버린 모습들이 어른거렸다.

어둠속으로 매운 골바람이 날카로운 쇠—스소리를 내지르며 「쌩」 지나갔다.

“물주나리 오랫동안에 큰거 잡아보니 맹길만 한가 보구료— 슬슬 풀어봅시다”

“그러 그러 얼핀 진행해 보드라구”

꾀들의 고탐소리에 동필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리곤 미친듯이 매듭을 찾아 보따릴 끌러베렸다.

“거 — 번개 X하듯이 해서야 어디 뱃창잘 뻑뻑 풀게하는 맹길심이 있나요?”

스—울 스—울슬”

덕대의 목소리가 밧출처럼 동필의 모가질 스울슬 조여 왔다. 모강지가 답답했다. 순간 동

필은 알수없는 살기가 한줄기 머리를 치 뺨쳐 울랐다.

“죽여 버릴까 보다. ……”

송영감은 신바람이 났다. 녀이 빠져 허부적 거리는 동필의 몸뚱이만 봐도 승부는 끝난 것이다.

‘그럼 그렇지 지가 어딜가 날이 새’

송영감의 마음은 나래를 달고 소달구지에 이사보따릴 싣고 양짓말을 떠나고 있었다.

죽었다 깨 나도 못 만져볼 붓들 는! 그곳의 붓도랑엔 사시장철 붓물이 넘쳐 날게고, 헤살 미 친 말강한 논바닥에 모퉁이라도 포 — 옥 콧올라 치면 젊은새댁 유방처럼 와 닿는 그 감촉 니미랄 웬 수놈에 무람골 친수담 가물도 이젠 송영감이 알바 아니었다.

미치고 팔딱 뛰어도 시원찮을 바람이 송영감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듯 했다.

‘덕대 녀석 살았군 살았어—’

남의일 같지 않게 송영감은 신이났다.

‘가만있자. 그래 그놈은 우선 돈보따릴 끌어안고 과부집 부터 쳐들어 갈테지. 암소를 향해 달려드는 종무소 처럼. 어이그 그 잔지 우거지상 과부년 상판매긴 어떨가?’

‘아이구 총 — 각 분이방 따뜻해요.

어서 — 어서 — 응’

‘에이그 옛 먹어라’

송영감 목구멍에선 끄룩 소리가 났다.

‘나같은 오천원 짜리 한장 그년 유방위에 폭 꽂아넣곤 나긋나긋한 허릴 잡고 끝내주는 거라……’

주책맞게 스리 송영감은 바지속의 물건이 끄덕끄덕 고갯짓을 하며 일어섰다.

채패보따리가 꺾질을 벗으며 관솔불로부나비 처럼 날아 들었다. 끈들이 잔을들어 그곳에 술을 뿌렸다. 바람막이 액매기로 그들은 보자길 태웠고, 유사시엔 증거를 없애는 수단도 돼 주었다.

채패보따린 한꺼풀 한꺼풀 꺾질을 벗어갔고, 바라보는 끈들도 하나 둘 오만가지 꿈의 꺾대 길 벗겨 네렸다.

몇번 얘길 했지만 서두 채패판의 팽길심 하난 정말 끝내 했다. 웬만한 시로도느 몇꺼풀을 못보고는 자지러지곤 했다. 벗는자나 벗어져 네리는 걸 보는자나 숨통을 달그치는 설렘은 매한가지였다. 등잔불 밑으로 벗겨져 네리는 교쟁이나, 니나노집 매미들 치맛단 틀어지는

소린 채패판의 맹질심에 대면 그야말로 모기다리에 워커였다. 맘약한 끈들은 막걸리로 증심을 잡았다. 이제 채패보따린 더 이상 벗겨질게 없음을 안동필의 손은 열병에 죽은 시체의 두 손처럼 하얗게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눈! 눈!

번쩍거리는 끈들의 눈들이 팽팽한 바람으로 마지막 채패통을 열어 제켰다.

“우지끈! 삐걱”

그렇게나 오랜 시간을 움츠려 있던 봉이 자릴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어둡기만한 고베이베루의 밤하늘로 메아리쳐 갔다.

光明!! 光明!!

눈을 비벼 봐도 넓적다리될 꼬집어 보고 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바람에 펄럭이는 문창호지 위에 쓰인 먹글썩 빛광, 밝을명 두글자였다.

동필은 너편절 거러대는 문창호지가 행성앞에 만장으로 뒤바뀌어 보여졌고, 글썩 웬수놈애 그 글썩 최판판의 사주 단지속의 빨간 글씨가 분명했다.

올가미! 동필의 몸뚱아릴 잡아 올리는 올가미 만드느라 반생을 채패판으로 뛰어 다녔다 생각하니 허망기가 이를데 없었다. 그 올가미 항상 동필의 몸에 늘 붙어 다녔었으며, 옛저녁 동필의 붓끝에서 확실히 뻗을뿐이었다. 인간사(人間事) 모든게 다 그렇구 그렇다구 생각하니 곱팡구 냄새나며 다가올 올가미가 좀 안심이 됐다.

하늘을 찢는 듯한 환호가 봉이 날아오름과 동시에 울려났다. 얻은자의 포효, 꿈을 잡은자의 뺨속마디에 응어리진 한(恨)의 외침.

그들은 울고 있었다. 주먹같은 눈물이 송영감과 덕대의 불위를 뜨겁게 흘려 내리고 있었다. 동필의 눈에 서도 알수없는 눈물이 뿅뿅 흘러 내렸다. 얻은자도 잃은자도 번쩍거리는 봉앞에선 어쩔수 없는 모양이었다.

동필은 눈을 감았다. 이제 「없어가기」라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기만 하면 모든것은 끝나는 것이었다. 「없어가기」. 즉 「당신들께 진배 줄 돈이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집을 뺏든, 마누랄 업고가든, 죽이든 살리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몰주 최후의 선언을 말한다.

동필은 관손불을 건어챘다. 한조각의 불빛도 동필은 두려웠다. 아무것도 안보였다. 어느곳이 살길이고 어느곳이 암울한 우물속으로 가는곳 인지……

“없어 - 깐다. /”

미친듯한 욕설과 발길질이 동필을 향해 날아 들었다.

橫城文化院에바란다

文化院에 바란다

현대아동문학가부회장

曹 大 鉉

횡성에 문화원이 있고, 거기서 문예지를 발간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어릴때 고향을 떠나 횡성 과거의 인연이 끊어지다시피 한 사람에게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향에 그래도 문화의 뿌리를 심으려는 기관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만이라도 한결 고향에 가까워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몇가지 주문을 권의한다.

첫째, 횡성에 뿌리를 두고 전국 각처에 흩어져 문화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통틀어 그 분들의 업적이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소록 같은 것을 만들어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횡성 문화원에 현재도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아직 없다면 작은 방 한 구석이라도 자료 전시대를 설치했으면 한다.

이곳 출신 문인들에게 작품집 기증을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아무도 이를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단 문학 분야뿐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고향 문화원에 본인 작품을 영구 보존한다면 이를 환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줄 안다.

세째, 횡성도 이제는 어느정도 문화 축제의 밀도가 깊어졌을 것이라고 보아, 1년에 한차례 정도 봄이나 가을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민속 축제 같은것을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해 보았으면 싶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고향을 떠났던 문화, 예술인들에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횡성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뜻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 제안한다.

文化院에 바란다

읍상1리 양 승 순

요사이 사회에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 이런 의식개혁은 오랜 역사 배경을 통하여 형성된 국민의식을 교정하는 일인것이다. 이 일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 지는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방심하여 역사에 원수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조류가 사회생활하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준하는것은 문턱으로 국민을 가르쳐 주는일을 문화원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철학자 Kultur가 말한대로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문화라고” 했듯이 이일을 위하여 황성사회에 문화원이 설립한데 대하여 고마움을 금할길이 없으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문화원의 필요성을 황성군민이 알게 될것으로 믿어지며 몇가지 것의 하렵니다.

1. 문화원은 설립당시의 본연의 목적에 이탈하지 않는 면에서 주민의 정신적 양식을 공급하는데 활력을 띠고 있어야 하겠다.
2. 문화시설을 구비하여 활용하는 일이다.
주민문화를 발달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설비가 현재 어느정도 구비되었는지 모르나 각계 각종의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도서부터 구입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하겠다.
문화원을 꽃으로 비하면 꽃에는 꿀이 있어야 향기도 나고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양식을 공급받으며 춤을 추듯이 문화원에도 주민을 끌수있는 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정신, 마음, 생활의 벽혈을 줄수있는 양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3. 시청각 교육을 할수있는 교육자재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영사기 환등기) 국민의 의식개혁, 생활개선 국가관정립 애국심양양, 향토애양양, 향토고유의 미풍양속을 발굴하여 필립에 담아 활용하며,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
4. 황성군민의 성인교육을 위하여 그들의 정신적 양식을 보급하는 봉사하는 문화원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실행하여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文化院에 바란다

횡성국민학교 교장 신재진

현대 사회의 특징은 변화라고 할 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들어 뜻을 같이하는 젊은분들이 자의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원을 새로이 조직 창립하고 활발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에 본교장의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큰 기대와 아울러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고장의 보다 앞찬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문화원의 첫 출발에 하고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차제에 본인은 두어가지 희망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화원은 우리 횡성군민들에게 자기 고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긍지를 일깨우고 심어주는 일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평소 국가의 발전이 국민들의 애국심에 대한 긍지가 애국심으로 승화될 때 가능하드시 한 고장의 발전또한 그 고장사람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를 키우고 지켜 가겠다는 애함심으로 뭉쳐질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문화원 활동의 대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비중을 무겁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일의 우리고장을 짊어지고 나갈 세대이기도 하지만 근간 우리고장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간접경험말고는 직접적인 문화활동에서 참여의 기회를 거의 갖지못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로 자세한 말들은 못하지만 문화원의 사업이 외형적이고 전시적이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알뜰한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원 창립과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의와 건강을 빕니다.

文化院에 바란다

성북국민학교장 김 종 근

『국가는 민족의 체구에 불과하며 文化야말로 민족의 영혼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가진이래 민족흥망이 허다 했지만 固有文化를 保存하는 자만이 세계에 장구히 버티어 나갈수 있습니다.』

이말은 1955년 제1회 예술원 개원 1주년 기념식때 중국 대사였던 王 東原씨가 한 말로써 민족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민족문화의 보호, 육성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文化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 일체의 성과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有形文化이건 無形文化이건 그 발굴과 보호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으며, 따라서 橈성문화원이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문예진흥의 기축이 되어 橈찬 출발을 하게 된것을 뜨거운 박수로서 성원을 보냅니다.

과거 우리는 가난의 굴레만을 벗기위해 너무나 물질문명에만 관심을 기울여 팽대하는 물질 문명 발전에 고매한 정신문화가 뒤따라 가지 못해 균형을 잃고, 엄청난 괴리현상을 일으켜 왔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버티어 내고 忍苦 끝에 비로소 生命을 잉태 시키는 한알의 밀알처럼, 橈성문화원의 活性化에 뜻을 같이한 문화원 회원들에게 부디 용두사미가 되지 말것을 당부 합니다.

또한

橈성文化의 요람이요, 산길로써 문화원은 연중 살아 움직이는 전시실로써 활용돼 주었으면 하고 바램을 보냅니다.

生 活 講 座

생활강좌: 法律코너

金世雄

一. 社會의 存在로서의 人間

造物主가 사람을 만들 때에 그 創造意志속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또는 「함께」 살도록 하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本能에 의하여 이든 또는 經驗의 결과로서 이든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人間」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所以는 사람이 사람과사람들의 사이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면 이것이 잘못일까? 어쨌든 사람의 이러한 屬性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人間은 社會的動物(Zoon politikon)」이라고 看破한바 있다. 여기서 「社會」란 人間の 集團의 生活을 뜻한다.

二. 社會規範의 必要性

만약에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千態萬象의 人間 各自가 自己本位的, 自己便宜의인 생활태도를 가진다면 어떠한 결과를 招來할 것인가? 그 社會는 無秩序·混沌(Chaos)의 狀態 또는 無政府的 狀態(anarchy)가 될 것이고, 社會의 원만한 維持·存續·發展은 불가능 할 것이다.

여기에 人間の 自己本位的 生活態度에 일정한 制限을 가하는 行爲標準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社會的 動物로서의 人間の 共同生活을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社會的 產物인 社會規範이다. 즉, 社會規範이란 共同生活의 秩序維持體 내지는 보편적인 行動樣式이라고 할 수 있으며, 社會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이러한 의미의 規範이 있게 마련이다.

三. 社會規範의 類型

보통 社會規範으로는 ① 宗教 ② 道德 ③ 法 그리고 ④ 慣習을 들고 있다. 만약에 慣習規範을 違反하면 違反者는 그 慣習이 通用되고 있는 社會로부터 指彈을 받게 될 것이고, 道德規範에 違反하면 非(反)道德的이라는 舌彈을 받게 될 것이요, 宗教規範에 違反하면 戒律違反이라는 評價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法規範에 違反한 경우, 즉 違法行爲나 犯法行爲를 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달라 社會로부터 心理的 強制를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物理的 強制나 法的 不利益 또는 法益의 박탈이라는 法律效果가 발생하게 된다. 즉 規範違反의 效果는 法的 경우가 가장 強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社會를 規律하는 強度의 측면에서 본다면 法은 道德만 못하고, 道德은 宗教만 못하다. 그 이유는 物理的 強制보다는 良心의 命令이 더 엄숙할 것이요, 良心의 命令보다는 宗教的 信念이 더욱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宗教를 上位規範, 法律을 下位規範이라고 하는 所致이다.

四. 遵 法

「法은 道德의 最小限」이라는 말이 있다(Georg Jellinek). 이 말은 지켜야 할 最小限의 도덕을 추려내어 規定한 것이 法이라는 뜻인 바, 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社會規範 중 적어도 法規範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에 社會의 成員이 이러한 最小限의 規範인 法을 違反할 때에는 社會는 自己防衛를 위하여 法的制裁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違法行爲의 效果가 他規範 違反의 效果보다 強力한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였든 法規範은 社會를 爲하여 지켜져야 한다. 혹여 「나는 法的 內容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異議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議論을 法은 容納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法律의 不知는 變론되지 아니한다」는 法諺이 로마法 이래 確立되어 있고, 「法은 그의 約束을 받는 모든 法主體가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도 또한 妥當한 것이다.

(Gerhart Husserl)」이 말은 法的 妥當性(法規範의 實現에의 要求)은 事實的인 受範者(法을 지켜야 할 사람= 社會의 構成員)의 主觀的 狀態(法律의 知 또는 不知)와는 관계없이 그 客觀的 意味內容의 實現을 要求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觀點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立法機關인 國會에서 法을 制定한다. 그런데 國會는 主權者인 國民(國家라는 社會의 構成員)의 代表機關이다. 따라서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制定한 法律은 곧 國民 스스로가 制定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法律의 制定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內容을 갖는 契約(約束)이라고 해석된다. 즉 ① 이것을 社會規範으로 하여 지키자는 國民相互間의 契約인 동시에, ② 國民은 國家에 대하여 이를 지키겠다는, 國家는 國民에 대하여 이를 違反하였을 때에는 法的制裁를 가하겠다는 內容을 갖는 國民과 國家間의 契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法律의 不知라는 變명은

容恕될 수 없는 것이다.

五. 法律이 問題삼는 것 - 行爲

宗教戒律에서는「간음의 意思를 품은 者는 곧 간음의 罪를 犯한 것이 되느니라(마태복음 제 5 장)」라고 하여 意思·생각·心思 자체까지도 問題視하고 있으나, 法律은 이와는 달라 現實的인 行爲가 있을 때에 그 行爲를 놓고 問題삼는다.

法律上「行爲」라 함은 行爲者의 意思에 基한 身體的 動作 또는 그 外部的 實現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行爲가 成立되기 爲하여는 ① 主觀的 要素인 意思와 ② 客觀的 要素인 意思의 外部的 實現, 즉 客觀的인 身體的 動作 또는 態度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意思가 결여된 動作이 나, 動作이 뒤따르지 않는 意思는 完전한 行爲로서 評價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凶惡한 생각을 머리나(思), 가슴 속에(心)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면(動作不在)한 사람에 대한 殺人罪도 성립되지 아니 한다. 또 잠자든 중에 잠결에 팔을 세차게 움직인 결과 옆에서 자든 사람의 이를 뿌러트렸다고 해도(意思不在) 傷害罪는 성립되지 아니 한다. 이와 같이 法律이 問題삼는 行爲는 <意思+動作>으로서의 行爲인 것이다.

六. 맺음 말 : 誠心·正思

近來 常識을 벗어난 凶惡犯行이 頻發하고 있어 世上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어찌하여 그럴 수 있을까? 왜 때문이었을까?

자기의 마음을 정복한 者는 열 개의 城을 정복한 者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다.

高度化해 가는 文明, 異質化된 社會, 첨예화해 가는 利益社會, 複雜해 지는 社會構造속에서 人間의 規格化, 文明의 노예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人間들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純朴한 人間性을 喪失해 가고 있다. 人間性的의 回復이 現代社會의 重大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這問의 鎊기 힘든 大犯罪行爲들도 생각의 잘 못 때문에, 마음을 잘 못 간수하였기 때문에 저질러진 것들이 아닌가?

心·思와 言·行의 거리는 몇 리나 될까? 心思를 즉시 言行으로 옮길 수도 있고, 心思에서 머무르고 言行까지 치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心思를 장시간 소화시킨 후에 言行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心과 思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思는 心+田으로 되어 있다. 마음(心)이 더 根本的인 것이요, 마음(心)의 밭(田)을 갈면 그 위에서 생각(思)이라는 싹이 돋아나게 된다고 兩者의 關係를 설명한다면 잘못일까? 마음을 잡아야 할 것이다. 마음을 잘 뛰어야 할 것이다. 항상 마음을 성실히하고(誠心) 생각을 옳바로 가지며(正思) 그러한 밭 바탕 위에서 言·行의 싹을 키운다면 法律違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할 뿐아니라 道德規範이나 宗教規範의 준수에도 接近되는 社會生活이 될 것이다. 誠心과 正思에 터잡아 모든 生活을 營爲해 간다면 「法律을 몰라서 지킬수 없노라」라는 걱정은 하지 아니 해도 될 것이다.

만약에 誠心·正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어찌 할 것인가? 次善의 策으로 常識에 따라서 生活하면 될 것이다.

「法律은 常識以上도 以下도 아니다」法律은 곧 常識인 것이다. 法律은 正常的인 社會를 維持하기 위한 社會規範이요, 常識이란 社會의 普通人이 가지고 있어야 할 標準知力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社會의 모든 構成員各自가 自己本位的 態度를 止揚하고 嚴格한 自己規律下에 常識에 입각한 生活態度, 誠心·正思에 根據한 生活樣式을 가지고 共同生活을 營爲해 간다면 社會는, 國家는, 世上은 바람직한 方向으로 굴러갈 것이다.

橫城이 繁榮하는 길

橫城繁榮會長 鄭 鎬 逸

이번 橫城文化院에서 文藝誌(郷土誌)를 創刊한다는데에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이곳 繁榮會의 責任을 맡은 저는 우리고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이 글을 써 보겠습니다.

(1) 橫城의 與件

우리 橫城은 典型的인 農村郡으로 農業에 從事하는 農民이 多數를 차지하고 있어 28 種의 所得作物을 栽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首道 서울에서 江陵으로 向하는 中間이고 春川에서 原州를 잇는 三角地帶인 交通의 中心을 이루고 있어 便利하며, 셋째로 生活圈은 서울과 原州의 영향권에 속해 있어 특히 畜産에 最適地로 손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實質的으로 全國에서 가장 畜産에 앞선 郡입니다. 人心은 淳厚하며 愛郷心이 強해 團結이 잘되는 長點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天然의 觀光資源이 不足한 缺憾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우리 橫城이 繁榮할 方法을 研究해 봅시다.

(2) 當面 課題

우리 繁榮會의 定款은 地域社會開發과 郡民福祉 向上이라는 目的을 設定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郡民意識의 近代化가 必要합니다. 고독한 배타성이나 편협한 생각은 일체 버리고 나나 우리라는 적은 데두리를 벗어나 郡民全體와 겨래의 共益을 도모한다는 大局의 見解로 바뀌는 것이 近代化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둘째로는 橫城市街地 北部開發의 促進입니다.

가장 時急한것이 共同墓地를 外部地帶로 移設해서 後世들의 教育에 도움을 주고 住居地帶와 慰樂施設이나 其他 公共施設을 積極 誘致하여 손님이 즐겨찾는 橫城으로 만듭시다.

셋째로 當面한 交通의 緩化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즉 橫城 原州間 國道를 現在의 2車線에서 4車線으로 擴張하며 郡廳과 邑面 所在地까지의 道路鋪裝이 되야 겠습니다. 特히 書院面과 安興面 그리고 屯內 晴日까지의 鋪裝을 推進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목계리와 北川里를 잇는 川邊巡廻道路를 開設하여 이 십강 川邊을 觀光資源化하

여 慰樂施設을 誘致擴充하며 그다음 全國 第一의 畜産郡으로 名實共히 開發해야 되겠습니다.

結 論

- (1) 郡民 所得源의 最大 開發策으로 첫째 地域的인 特性을 最大 活用하고, 둘째, 各種 農業 作目的 均衡發展 도모와 셋째, 無公害 工場 誘致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 (2) 살기 좋고 特色있는 高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 (3) 全郡民의 祖國 近代化의 前衛隊인 力活을 擔當하여 풀밭이 셋과랑게 자란 산에는 풀을 뜯는 소떼가 자라고 바가지 없는 상업풍토 造成과 明朗한 거리질서 확립에 힘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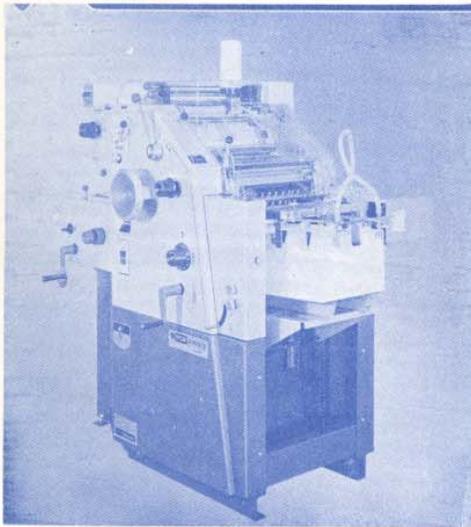
橫城文化院任員

횡성군문화원회원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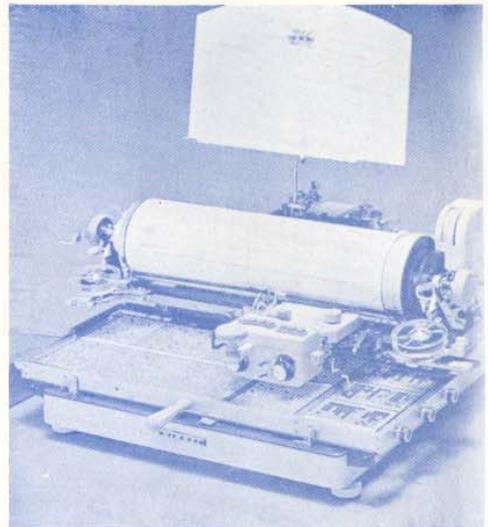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성 별
1	원 장	김 인 환	횡성읍 읍하리	의 사	남
2	부 원	김 한 중	" 읍하리	의 사	"
3	사무국장	한 창 일	" 곡교리	사무원	"
4	고 문	김 용 병		국회의원	"
5	"	김 대 열		"	"
6	"	유 재 규	횡성읍 읍하리	횡성군수	"
7	"	김 희 섭	" 읍상리	경찰서장	"
8	"	유 흥 수		교 육 장	"
9	자문위원	농협횡성군지부장			"
10	"	횡성군부군수			"
11	"	횡성읍장			"
12	"	조 철 연	횡성읍 읍상리	신문업	"
13	"	정 연 덕	갑천면 구방리	농업	"
14	운영위원	이 철 구	횡성읍 읍하1리	토건업	"
15	"	윤 재택	" 읍하2리	상업	"
16	"	변 규 성	" 읍하1리	회사원	"
17	"	송 인 호	" 읍상리	토건업	"
18	"	정 병 용	" 읍상리	상업	"
19	"	한 상 근	" 읍상리	양조업	"
20	"	정 제 항	" 읍상리	토건업	"
21	"	김 용 표	" 마산리	도정업	"
22	"	이 원 섭	" 읍하리	건축업	"
23	"	박 창 선	" 읍하리	의사	"
24	"	김 정 창	" 곡교리	동일업	"
25	"	최 창 규	동신운수(주)	운수업	"
26	이 사	김 정 기	횡성읍 마산리	신문업	"
27	"	김 병 익	" 읍하리	상업	"
28	"	도 회 관	" 읍상리	사무원	"
29	"	이 연 승	" 입석리	교원	"
30	"	유 수 룬	" 읍상리	상업	"
31	"	유 흥 욱	" 읍상리	의사	"
32	"	김 정 용	" 읍상리	약사	"
33	감 사	정 운 채	" 읍상리	사법서사	"
34	"	최 위 병	" 읍상리	상업	"
35	분과위원장	최 현 일	" 읍상리	교원	"
36	"	한 상 일		"	"
37	"	황 영 회	횡성읍 읍상리	"	여
38	회 원	이 관 술	" 읍하리	사무원	남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성 별
39	회 원	권한	횡성읍	교원	남
40	"	한인영	"	상업	여
41	"	이용상	"	"	남
42	"	이명재	"	사무원	"
43	"	고김상기	"	사무원	"
44	"	진봉현	"	사무원	"
45	"	조대식	"	교원	"
46	"	유장기	"	"	"
47	"	유점회	"	조합장	"
48	"	엄정희	"	교원	"
49	"	정허양	"	"	"
50	"	허박순	"	공무원	"
51	"	박대욱	"	인쇄업	"
52	"	민대규	"	"	"
53	"	정두영	"	"	"
54	"	최근덕	"	여행사	"
55	"	이광표	"	한전	"
56	"	전준소	"	한전의사	"
57	"	함필섭	"	한산장	"
58	"	김정회	"	축산물	여
59	"	최정인	우천면	공무원	남
60	"	윤춘식	횡성읍	"	"
61	"	윤탁인	"	"	"
62	"	고김성수	"	상업	"
63	"	김성기	"	교원	"
64	"	김안화	"	공무원	"
65	"	안유희	"	"	"
66	"	유김일	"	토건	"
67	"	민성성	"	토업	"
68	"	민종성	공근면	상업	"
69	"	한상동	횡성읍	상업	"
70	"	한최승	"	토건	"
71	"	최김배	"	토목	"
72	"	김기원	"	농업	"
73	"	진기환	"	농업	"
74	"	김환실	"	조합장	"
75	"	황신근	"	농업	"
76	"	이종수	"	농업	"
77	"	이재기	"	상업	"
78	"	김윤재	"	"	"
79	"	윤재기	"	"	"
80	"	원종기	"	"	"

경 어 사 매 창 간 축



RYOBI 全自動 Offset 印刷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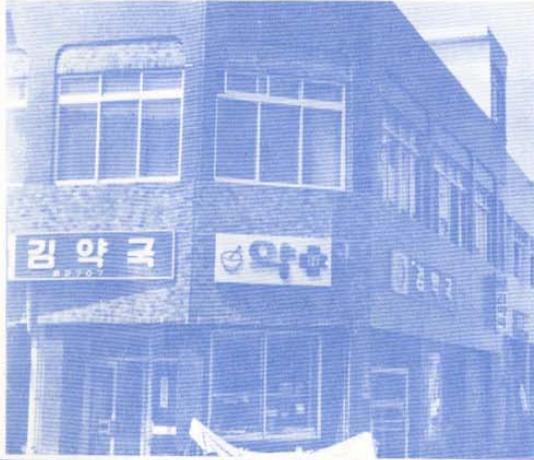


組板타자기

各種印刷 書院社
代表 鄭斗永

TEL 2404

김 약 국



약사

김 정 응

횡성읍 읍상리

TEL. 2707

韓重熙齒科医院



院長 韓 重 熙

횡성읍 읍하리

TEL. 2579

삼양사료

횡성읍 읍하리

정병익

TEL. 3105



진주뜨개털실



심재진
김채주

횡성읍 시장

TEL. 3352

각종건축자재

선 창 목 재 라왕미송



도 회 관

횡성읍 읍상리

TEL 2964

횡성가축병원



원장 홍 재 욱

횡성읍 읍상리

TEL. 2246



보건약국

정영순

횡성읍 음상리

TEL. 2851

횡성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천실

상무

정병웅

TEL.

2912. 2913





(횡성군 , 원주시 , 원성군 주류도매업)

합자회사 **동원상사**

사무실 : 횡성군 횡성읍 음상리 293

TEL. 2726. 2921. 3322

LPG 충전소 택시용 · 일반용

합자회사 **홍천가스상사**

사무실 :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00-1

**TEL. 2710
4105**

대표유수륜



발  간



濟一外科医院

外科專門医

院長金仁煥

형성읍 읍하리 T: 2727. 2120

